금주 법구
계행이 청정하면 즐거움 끝이 없고
파계한 이 마음은 괴롭고 두려움네.
청정한 계행 속에 번뇌는 멀리 가고
깃드는 이 고요는 열반의 경지일세.
-범계죄보경중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천흥사 대전 논산시 한산면 수정리

대표전화 02 737 2881 구독문의 02 737 0099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6월 6일 수요일(주간) 제 321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해인사의 '대불조성'

법보종찰 해인사가 한 시주자의 원력으로 총 높이 43m의 '세계 최대' 청동 석가모니 좌불을 건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불 건립에 대해 해인사 홈페이지 등에는 우려와 반대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해인사를 본사로 둔 일부 스님들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의견은 "수십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이러한 대불 불사를 왜 해인사에서 하는가", "물량위주의 대형불사는 그만 두고 실제로 필요한 인재불사를 하자"는 걸로 요약된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만으로도 세계에 알려져 있다. 고유한 전통과 독특한 수행가풍이 면면히 이어진 명찰 중 명찰이므로 굳이 대형불상을 세워 참배객들을 끌 필요가 있을까 한다. 왜냐하면 속리산 법주사와 양양 낙산사, 대구 동화사, 속초 신흥사, 천안 각원사등 대불들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공주 성곡사가 36m의 미륵불과 37m 와불을 회향한 것이 얼마 전이다.

예전에 '동양 최대' '세계 최대' 라는 수식어를 붙인 불사가 마치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번진 적이 있었다. 이러한 불사들이 불자들의 동참을 유도해 사찰을 정비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한 바도 크지만 폐해도 적지 않았기에 비판을 받았다. 80년대 후반부터 대형 불사는 이제 지양하고 교육, 포교, 인재양성, 역경, 복지, 전산화 등 실질적으로 한국불교의 내실을 다지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불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법보종찰이라지만 정작 해인사에는 번듯한 도서관도 없고 교육장도 부족하고 국제회의를 열 만한 세미나실도 없으며 연구단체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해인사의 상징인 대장경의 전산화 사업도 지난해로 정부의 지원이 마감되어 계속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부처님을 조성하겠다'는 시주자의 발원이야말로 갈수록



이기주의로 치닫는 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널리 선양돼야 한다. 해인사는 그 시주금으로 '수십억원이 드는 세계 최대 청동 대불 한 분을 조성하기' 보다는 '이 사회와 불교계에 크게 기여할 위대한 산(生) 부처님 여러 분이 나오도록' 인재양성 불사로 전환하는 것도 시주자의 뜻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모로 위기인 현대 사회에서 인류를 이끌어갈 진정한 선지식이 나오도록 여건을 만드는 불사야말로 해인사 역대 큰 스님들이 남긴 유지를 가장 잘 받드는 일이 아닐까.

이경숙(취재 1부 부장)

장 군 죽 비

◇ 불교여성회, 6개월밖에 안 된 나이지만 100수를 앞둔 어르신들에 자비 실천. 자비와 모성은 닮음꼴? (6면)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의지를 압도하는 집단의 권리는 과연 정당한가? (9면)

◇쌍계사 국사암 '산사문화체험'으로 불연 맺기. 최고 형태의 포교는,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임을 느끼게 하는 것. (11면)

◇놀부방생이 흥부방생으로 바뀌고 있다. 진정한 자비란, 모든 생명의 절대적 평등을 몸으로 실천하는 일. (23면)

희양산 '생태보존지역' 추진

봉암사, 환경부·산림청에 제안
"2㎞이내 건축물 건립 제한
개발억제 수행환경 보호"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사찰주변을 천연보호림과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수행환경권을 보존하는 법적 대응방법이 모색된다.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문경 봉암사(주지 원타스님)는 이 달 중순 수행환경보존을 위해 사찰주변 천연보호림과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환경부와 산림청에 제출키로 했다.

봉암사의 이 같은 법적인 대응방법 모색은 전국 대부분의 사찰이 빼어난 자연경관과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법적조치를 통해 항구적으로 수행환경권을 수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연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천연보호림이나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2km 이내에는 건축물 건립 등 개발을 할 수 없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2차례 희양산 일대를 현장조사한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현재 문경봉암사 일대는 천연기념물인 까막딱

● 봉암사 인근 개발 계획도



따구리, 원앙새, 수달과 희귀식물인 솜나리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생태계의 보고이자 동식물의 이동통로"라며 "희양산 지역 생태, 천연보호림 지정가능구역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봉암사 주지 원타스님은 "20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지켜온 봉암사 인근지역이 광산개발과 관광지개발로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선방스님들이 일주일에 2~3차례 조를 짜서 산림보호 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하루에 몇 대의 관광차가 희방산에 들어와 산림을 훼손하고 쓰레기 투척,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봉암사 인근에는 완장스키장 건설 계획과 봉암사 경내지에서 300m 떨어진 규석광산 허가 신청, 1km 떨어진 가은리조트단지 건설계획, 원경광업소의 허가기간 연장 신청으로 인해 사찰환경수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관련기사 3면

"입대 당시 불자 복무중 개종 많다"

강대남 군법사 조사

입대 당시 불자였던 사병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불교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종교였던 신병들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거의모두 개신교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군 포교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5월 26~27일 이틀간 서울 봉은사에서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열린 '군포교 지원 및 후원단체 지도자 워크숍'에서 3사관학교 강대남 법사는 최근 3년간 신병교육대 및 모 부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 포교에 심각한 문제가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입대 당시 무종교인을 제외했을 때 33%였던 군불자 수가 군 생활을 거치는 동안 28.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대 당시 38%나 됐던 무종교인들 중 불교에 편입되는 수는 단 1%에 그칠 뿐 천주교 2%를 제외한 25%가 개신교에 편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장이 되어서는 불교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탈자가 없는 개신교와 대조를 이뤘다.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대 지휘관의 종교는 사병들의 종교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나, 군 법당의 유무에 따라 최대 30%가량의 불자수가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우 기자 mahan@buddhapa.com



"부처님, 참회합니다" 음력 4월 윤달을 맞아 5월 31일 화성 용주사(주지 정락)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잘못을 참회하고 선근공덕을 쌓기 위한 생전 예수재를 봉행했다. 예수재에 참가한 신도들이 다라니, 지전, 발원문 등이 들어있는 함합소를 머리에 얹고 법당 주위를 돌며 참회기도를 올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고영배기자

가야산 도로 노선변경 검토

경남도 "공원 밖 우회"

경남도가 조계종과 해인사의 반대를 수용해 가야산 관통도로 노선을 국립공원구역 밖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5월 30일 "해인사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가야산 관통도로를 개설하려 했지만 조계종과 해인사,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공원 구역을 우회하여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는 노선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가야산환경위원회(위원장 정원스님)는 5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상남도가 추진중인 가야산 관통로가 개설되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야산 국립공원의 생태계도 파괴할 것이다"며 "도로개설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화엄학림 새만금 이전"

갯벌연대 대표 수경 스님

새만금 갯벌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은 5월 25일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실상사 화엄학림을 새만금으로 옮기고, 외국인 환경운동가를 초빙해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교적인 방법으로 간척사업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갯벌 전문학자들로 구성된 새만금학회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윤사월 적멸보궁 3寺순례

6월: 월정사 · 상원사 · 법흥사



윤사월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 하며 업장소멸과 공덕쌓기를 발원하는 삼사(三寺) 순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길게 뻗은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월정사에서는 8229층탑국보 제 48호과 5월 23일부터 윤사월 한달간만 성보박물관에서 공개하는 부처님 진신사리(분수동자 복장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상원사 적멸보궁에서는 자신의 언행을 점검하고 업장소멸을 발원하는 기도정진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구산선문의 중심도량 사자산 법흥사에서는 선풍진작을 위해 치열하게 구도정진했던 선지식들의 향훈을 느껴보십시오.

◇출 발: 6월 17일(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회 비: 4만원(중식제공)
◇접 수 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since 1991 늘 푸른 정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redacted] 주관 · 가산전문연구위원회

가산도량은 가산법인의 설립이념에 기초하여 인류의 遺産 중에 無上의 價値로 승인한 修行文化를 대중화하고 복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주제 :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
● 첫번째/"우리시대의 知性과 修行의 가치"
기조발제/시대지성의 반성과 수행을 통한 전망(원장 지관스님)
외 발표 및 토론(10명)
일시 • 2001년 7월 6일 오후4시~7월 8일 오전8시
진행 • 주제 발표 및 토론 그리고 수행체험
장소 • 해인사 용재암
참가자격 • 가산학회 및 후원회원 · 심학원생 · 외부가산참가자(6월25일까지 접수마감 :소정양식)

교육사업/불교원전전문학림심학원

● 취지와 목적 /佛敎原典專門學林 三學院은 佛陀의 慧明과 傳燈의 修行 傳統을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扶宗樹敎의 金堂.
● 교육과정
● 불교원전연구과정
『선전강독』 • 한국불교문헌강독 • 범어불교어연찬
● 불교학연수과정
불교한문강독 • 범어연습초급1 • 티베트어연습
● 기초학습과정 • 불교근본교설의 이해
○ 심학원생 원서모집중
○ 일반수강생은 수시 접수 가능

학술 · 교화 · 출판사업

■ 가산학회편/『伽山學報』 창간호~제8호 ,제9호근간
■ 『한국승비문총서』총간/『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신라편 /고려편1/고려편2/고려편3 /고려편4/조선편1
• 『한국승비문총집』(조선조 · 근현대)
■ 이지관저/『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 • 『南北傳六部律藏比較硏究』 • 『伽耶山海印寺誌』 • 『信行日鑑』 • 『要經序說』 • 『四集私記』 • 『曹溪宗史』
■ 가산수행론서 제1권/임승택 역주 『빠띠삼비다막가』
■ 세미나및학술자료집/『韓國佛敎文化思想史』(상 · 하) • 『세계승가공동체의교학체계와수행체계』 • 『세계정신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예토』 • 『자운대율사』자료집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가산불교대사림 본격출간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최대 포괄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적인 『자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을 후원하거나, 그 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敎大辭林 회원'으로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간행 1 · 2 · 3권 출간, 4권 근간 · 전15권 년차 속간 예정
• 전권금액 2,880,000원 / 예약회원은 20%할인하여 1,750,000원(우편료무료)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간행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개월~60개월로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여래사진은 유병심님의 "진리나무의 가슴"중 일부분입니다.



계 불교 용품 판매 및 출판물 제작
기획연구실 765-9602 , 영업관리부 765-9603 , FAX 765-9672

사 설

새로운 방생문화 기대한다

생명 존중의 적극적 발현인 '방생'은 불교의 자비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 의례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그 동안의 방생 법회는, 방생의 기본 정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으로 진행되어왔다. '생명 살리기'가 아니라 '생명 죽이기'라는 비난은 물론, 최악의 종교 상업주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생법회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렇다고 방생법회의 주체들이 비난의 내용만큼 몰지각하거나 파렴치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별다른 고민 없이 동기의 순수함이나 행위의 선함만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다.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모든 생명에는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불교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종교나 사상보다도 투철한 불교의 평등사상을 몰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본 결과였다. 이는 오늘의 한국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서구문명의 전지구화가 가져온 폐해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방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만 문제는, 방생이라는 행위가 불교의 절대적 자비정신과 합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부끄럽게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다. 그 동안 행해진 방생은 다분히 반생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에 깔고 볼 때, 조계종 총무원이 내놓을 〈친환경 방생법회 지침서〉는 그간의 폐해를 일거에 해소하지는 못할지라도 방생의 근본정신을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특히, 오는 20일에 북한산 도선사에서 열릴 예정인 '자연과 생명살리기 방생행사'는 조계종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무조건 박수를 치기에는 미심쩍은 구석도 있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캠페인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한여름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특정 조수를 풀어놓는 행위 등은 생명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기 때문이다. 어렵게 이루어진 새로운 방생문화가 자연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건 없는 자비의 실천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지리산 위령제와 해원 상생

'생명 평화 민족화해 지리산 위령제'가 지난 5월 26일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열렸다. 이날 위령제에는 50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지리산에서 한많은 삶을 마감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생명과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기원했다.

우리는 많은 산 가운데서도 지리산에서 위령제가 봉행되었음을 주목한다. 지리산은 민족사의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다. 좌와 우의 대립으로 수만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다. 아직도 그 상흔은 지워지지 않았다. 남과 북이 그렇고, 지리산에서 잠든 사람들이 그렇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한 서로에게 품었던 증오를 완전히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위령제에서 참전군인과 피학살자 유족회원들이 만났다. 그리고 지리산의 영가들이여, 이제는 편히 잠드소서 라고 기원했다. 실로 50여년만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가 한맺힘의 시기였다면, 이제 그 한을 풀어내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지리산 위령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와 200여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치렀다. 특히 7개 종교계는 위령제를 위한 백일기도, 백두대간 종주 등을 통해 마음을 모았다. 아직도 남북의 분단은 엄연하다. 과거의 대립이 남북화해의 앞길을 막고 있다. 해원 상생의 길을 여는 데 종교의 역할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50년 전에는 좌우의 이념 대립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다면,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이 우리를 옥죄온다. 지리산댐이 그 대표적인 예다. 갈수기에 영남 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 지리산에 10여 개의 소형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물 부족을 댐 건설이라는 자연파괴적인 형태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과 같은 비극의 씨앗은 인간의 탐욕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죽임에서 살림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현장이 되어야 하는 지리산이 또 탐욕의 제물로 바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문화재 전문수사관' 운영

이무영 경찰청장 조계종에 '도난 성보 수사계획' 전달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문화재 전문수사관제도가 시행된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하고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문화재 전문수사관을 지정, 문화재사범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문화재 전문수사관제의 운영을 포함한 '도난 불교문화재 수사계획'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이무영 경찰청장으로부터 문화재 전문수사관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문화재 전무수사관 지정과 관련, 경찰청 김인옥 지능2계장은 "이미 245명의 경찰관을 문화재 전문수사관으로 지정해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 발대식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에 앞서 24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문화재 도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방경찰청별로 전담수사반을 설치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찰청장의 정대 총무원장 예방에는 총무부장 원택스님, 문화부장 혜자스님, 기획실장 현고스님, 호법부장 종지스님,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

'도난 불교문화재 수사계획' 뭘 담았나

경찰서-사찰 방범망 구축

이무영 경찰청장이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해 밝힌 '도난 불교문화재 수사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재 전문수사관의 지정이다. 경찰청은 이미 본청과 14개 지방경찰청, 230개 경찰서별로 각 1명씩 245명의 경찰관을 문화재 전문수사관을 지정했으며,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현황 파악 등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명단을 총무원과 사찰,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에 알려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수사관 245명 지정

도난 예방 · 검거 주업무

문화재 전문수사관은 문화재 도난 예방과 조기 검거를 주업무로 한다.

전문수사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문화재청 조계종과 협조하여 문화재감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케 한다는 것이다. 아직 교육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이달 말 발대식 이후 교육을 실시한다.

경찰관서와 사찰을 잇는 방범망도 구축된다. 경찰관서별로 관내 사찰과 성보박물관 등 문화재 소장 시설과 유무선 방범망 구축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도난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모든 사찰에 방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물리적인 조치는 확보한 셈이다.

경찰청은 또 문화재와 고가미술품에 대한 수배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주요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인터폴과 협조해 국제적인 수배조치도 취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수년 전 도난당한 송광사 국사 진영 등 중요 도난문화재 38점의 사진과 관련 자료를 인터폴에 보내 국제적인 수배를 해놓은 상태다.

조계종은 지방경찰청별로 마약반과 같은 전담수사반의 구성을 요청했으나, 전문수사관제도로도 불교문화재의 도난 방지와 사건 발생시 조속한 도난 성보의 회수 및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장 혜자스님은 "경찰의 전문수사관 지정에 이어 사찰성보 조사가 이뤄지면 성보 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는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연장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문화재 도난범의 공소시효 연장(현행 7년)과 보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법률이 강화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강원-종단 기본교육 기관으로 승가대 · 동국대-전문교육기관"

전국 교직자 스님 요구

강원(승가대학)의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강원을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하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를 대학원 형식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조계종 교직자 스님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범용)가 5월 29-30 이틀간 직지사 설법전에서 개최한 '강원교육 개선을 위한 교직자 견찬회'에 참석한 전국 18개 강원의 강주 · 강사 · 중강 등 교직자 45명은 승가교육의 질적 발전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연찬회에서 월호스님(쌍계사 강사)은 "강원을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하고 동국대와 중앙승가대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연찬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대부분 동감을 표하면서 "강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심도있는 교육과정을 통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포교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운스님(송광사 강주)은 "일반 대학의 개론위주 강의보다는 원전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능에 치우치는 대학교육방식과는 달리 선과 교를 겸비한 교육으로 강원의 특징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교직자 스님들은 "강원의 전통과 특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교육원에서부터 강원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숨을 곳 없다!!

달라이 라마 방한 시사

한승수 외교통상 장관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월 26일 베이징에서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한국에는 천만명의 불교도가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 설법을 들으려 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중국측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탕자쉬앤 중국 외교부장은 "달라이 라마는 종교 지도자의 옷을 입고 중국의 분열을 선동하는 분열주의자이므로 방한을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원우기자

조계종 '본사 포교국장협' 구성

회장 종본스님…국제포교부 개설등 협의



동화사, 해인사, 송광사 등 전국 14개 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은 5월 29-30일 이틀간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포교국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에 종본스님(동화사 · 사진)을 선출하는 한편, 본사별로 돌아가며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포교국장 스님들은 협의회를 통해 △포교예산 독립과 포교사업계획에 주도적 참여 △포교사업의 경우 포교국장의 결재라인 형성 △업무 권한 확보 등 포교국의 권한과 위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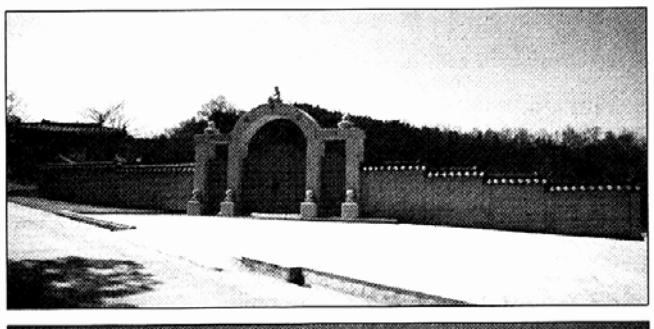
포교국장 스님들은 또 사찰 수련회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포교원에 국제포교부를 개설하는 문제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1년 빠르게 돼 있는 불기(佛紀) 문제도 세미나를 통해 바로 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과 포교원 관계자들은 사찰 수련법회를 사회적으로 정착시키고 포교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교원 내에 사찰수련법회 정보센터를 설치, 13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갈월사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조상에게 윤달에 효도를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 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윤달에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 의: 031)772-1909,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 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목어

TV와 도올



나는 텔리비전을 즐겨보는 편은 아니다. 얻을 것이 있는 프로그램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화가 치미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반드시 챙기는 프로그램이 몇 있다. 종합뉴스, 드라마 태조 왕건 그리고 도올의 논어강좌 등이다. 그러나 얼마 전 이 가운데 한 프로그램을 버렸다. 바로 도올의 시간이다.

TV에서 도올과 같은 학자의 시간을 장기기획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실로 획기적인 착안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성격의 프로그램이 이만한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누구도 쉽게 짐작하지 못했을 터이다. 많은 이들이 반가워했던 이유는 도올, 그가 불타는 향학열로 두루 섭렵한 석학이며, 그것도 동양학을 전공한 학자인데다 더욱이 대학교수를 내던지고 다시 한의학을 공부할만큼 열려있고 박력있는 지식인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그의 강의는 열강이고 해박하며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매주 그 시간을 기다리곤 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올은 크리스천 집안 태생이다. 그럼에도 그는 종교의 벽을 과감히 뛰어넘어 제3의 해법을 제시하는 학자로 여겨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간 주위에서 그를 폄하하려 해도 나 역시 그를 옹호하며 존경했고 TV속에서나마 열심히 배웠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역시 크리스천들의 그 옹골찬 아집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내면적 광신자임을 보게 되었다. 더욱이 추기경과 함께 자리해 공자를 스스럼없이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데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올과 이별한 시청자가 아마도 이 때 엄청나게 많았으리라고 나는 본다. 나는 요즘에야 비로소 이경숙씨의 〈노자를 웃긴 남자〉와 서병후선생의 〈도올에게 먼지는 사자후〉를 읽고는 도올의 면모를 더욱 깊게 읽게 되었다.

TV와 도올은 지금도 자신들의 위상과 인기를 빼기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 등을 돌린 나 같은 시청자의 숫자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할 일이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 1994년 10월15일 창간 | 등록번호 : 다-3379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 대표전화 02-737-8881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잇단 환경분쟁… '초강수' 선택

봉암사 '희양산 보존' 법정대응 까닭

경내지 300m 규석광산 등 위치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우려

20년간 일반인들은 물론 불자들의 출입까지 통제하며 수행환경을 보존해 온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가 최근 수행환경권 수호를 위해 천연보호림과 생태보존지역으로 묶는 법적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봉암사가 희양산과 봉암사 주변을 천연보호림과 생태보존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개발의욕을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꺾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합법적으로 막겠다는 것이어서 새로운 환경운동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사찰이 존재하는 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거해 사찰주변을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찰들이 관련법에 의거해 주장해온 기존의 전통사찰보존법은 개발의 당사자인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존지역 지정을 하는 부담이 있고, 보존지역도 전통건조물보존법이 100m,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로부터 2km 이내에만 보호하는 상황이어서 환경분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태계보존지역은 멸종위기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 희귀식물 서식지에서부터 2km 이내는 건축물 등 개발이 제한되고, 야생동물이나 조류의 경우 서식지가 광범히하게 분포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사찰이 위치한 곳은 대부분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수행환경보존을 위한 이같은 법적대응은 개발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방법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찰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봉암사는 1990년 초 먹는 샘물 개발계획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하여,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 지자체에 의해 완산스키장 건설, 리조트단지 건설, 원경광업소 채석개발, 규석광산 등 끊임없는 수행환경권 침해위협을 받아왔다. 특히 규석광산의 경우는 경내지로부터 300m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문경시는 교계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개발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사업을 변경하고, 투자자가 나설 경우 언제든지 개발사업이 재 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봉암사주지 원타스님은 "봉암사 일대를 개발하려는 지자체, 개발업자와 끊임없는 대응과 해결을 모색했지만 사찰과 자연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사찰의 수행환경권을 국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희양산 봉암사. 생태보존지역을 추진해 수행환경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승려 노후 복지 미룰 수 없다"

조계종 종회 사회분과위

보고서 · 세미나 준비
대책 마련 본격 논의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화범)는 5월 29일 5차 회의를 열고 노후에도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승가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승려노후복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8월 중순경 발간할 예정인 보고서에는 조계종의 승려노후복지의 현황과 과제, 다른 종교의 성직자 노후복지 사례를 담는다.

사회분과위원회는 보고서 발간에 이어 세미나를 열어 승려노후복지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범어사 왜곡보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승려노후복지 제도의 마련과 시행은 오래 전부터 요청된 사안이다. 96년 총무원에서 승려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 혜택과 의료 및 재해보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승려복지사업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9억4000여만원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 보류된 상태로, 종단 차원의 승려노후복지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사회분과위원회가 승려노후복지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승려의 고령화 추세, 수행과 포교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계종 승려 1만2000여명(사미, 사미니 포함) 가운데 65세 이상의 스님이 9.2%를 차지한다.(60세 이상 스님은 14.1%) 장로를 우대하는 전통을 이어온 불교에 노령화라는 표현은 적합하지만, 세속의 잣대로만 본다면 조계종은 노령화로 접어들었다.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노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역시 재원 마련이 승려노후복지의 관건이다. 96년이나 지금이나 재원이 풍족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으로서는 연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승려노후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보하고 사찰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느냐가 과제로 주어진 셈이다.

또 각 교구본사별로 승려노후복지원을 설치하더라도 스님들이 입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종이 위에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 실제 83년 승려노후복지원설치령 제정 초기 불국사에서 '노승원'이란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설치했으나, 입방하는 스님의 수가 적어 유명무실해졌다. "노스님을 어른으로 모시는 풍토의 정착이 멀지만 가장 확실한 승려노후복지 정책"이라는 말은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99년 조계종 총무원이 조사한 '승가복지에 관한 조사분석'에 따르면, 스님들은 종단에서 승가복지 사업을 위해 해야 할 일로 스님전용병원의 설립(31.3%), 스님수행원(26.8%), 의료보장(17.5%), 노후연금(14.5%) 등의 순서로 꼽았다. 절반이 넘는 스님들이 의료혜택에 대한 절실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에서는 또 응답자의 43.7%의 스님들이 노후와 건강을 염려해 보험과 연금, 적금을 들고 있으며, 38.6%의 스님들은 자활능력이 없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원은 5월 26일 봉은사에서 '군포교 지원 및 후원단체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당없는 부대 불자감소 '불보듯'

군불자 복무중 개종 '충격'

3사관학교 강대남 법사가 '군포교 지원 및 후원단체 지도자 워크숍'에서 밝힌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 부대의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병의 계급별 종교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개신교의 경우는 542(이병)-1080(일병)-1443(상병)-1441(병장)명이었으며, 불교는 231-505-618-483명 순이었고, 천주교는 108-257-284-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현황은 병장의 경우 불자 사병이 상병 때보다 130여명 줄어든 반면, 개신교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자 사병의 종교적 신념이나 신행생활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강 법사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신병교육대장병 6,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병력대비) 불교인은 20%, 개신교는 33%, 천주교는 9%였고, 무종교인은 38%였다. 무종교인을 제외한 비율(신자대비)로 보면 개신교 53%, 불교 33%, 천주교 14%라는 계산이 나온다.

무종교 사병도 대부분 개신교로

이는 국방부와 기독교 군 선교연합회가 내놓은 군 종교인구 현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곳이 밝힌 종교인구 현황을 보면 불교인구는 병력대비 21%, 신자대비 28.5%이며, 천주교의 경우는 병력대비 11%, 신자대비 15%이다.

이 두 통계를 비교 분석하면 신자대비 비율로 볼 때 신병 때의 33%였던 불자인구가 28.5%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병력대비 비율로 볼 때 신병 때와 그 이후의 불교와 천주교 인구가 각각 1%, 2% 증가한데 그친 것은 불교가 무종교인을 1% 밖에 흡수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나머지 35%는 개신교에 흡수됐음을 보여준다. 즉 무종교인에 대한 포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 법사가 실시한 4개 대대 표본 조사에 따르면 지휘관의 종교는 병사들의 종교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당이 없는 부대의 불자인구는 법당이 있는 부대의 불자인구와 비교해 최대 30%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법사의 활동과 지원에 따라 불자인구수를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명우 기자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1년도

설악산 백담사 여름 성지대회 공고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설악산 백담사〉



△등공탑-염불만일회 동참하신 분 한분 스님의 도산 등공부도탑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작년에 전남 대원사 순례하였고 2001년도는 아래와 같이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마지막 날은 건봉사 등공대 참배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1년 8월 6일 ~ 8일 (2박 3일)
◇ 장 소 :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
◇ 내 용 : 염불정진의 본행사 및 건봉사 등공대 성지순례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참 가 비 : 35,000원(염불조끼, 교재 및 식사제공)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 교 통 편 : 개인별 설악산 백담사 도착

서울 · 경기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
○ 출발시간 : 2001년 8월 6일(월) 오전 7시
○ 교통편 : 관광버스 (단, 동참자는 참가비 · 교통비 포함 60,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건봉사 성지대회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2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6)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15~6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일주문



수선회 5주년 특별법문

숭산 화계사 조실은 10일 오후 1시 대적광전에서 열리는 참선모임 수선회의 창립 5주년 기념법회에서 법문한다.



노인복지단체련 회장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은 5월 25일 열린 2001 경기도 노인복지연찬회에서 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에 선출됐다.



선암사 강원 1천만원 기탁

금융 태고종 광주 · 전남교구 지방종회부의장은 5월21일 선암사 강원에 후원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수미정사 봉불 · 개원법회

해주 동국대 교수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부암동 수미정사에서 부처님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언론인회 정기총회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장은 12일 오전 12시 불교방송 2층 언론인회 사무실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갖는다.



코렉트신탁 사장 취임

강명수 공정거래위원회 정불회장(前 행정법무 담당관)은 5월 24일부로 (주)코렉트신탁 사장으로 취임했다.

탤런트 장동건 장기기증 서약



인기 탤런트 장동건 씨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키로 했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1일 장동건씨가 서울 압구정동 모 스튜디오에서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서 장기기증 신청서에 서명했다면서, 장씨가 앞으로 생명나눔실천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나눔회 관계자는 "장씨가 '홍보대사라면 당연히 장기기증까지 해야할 것'이라면서 연예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서울 성북동 성라암에 다니면서, 손목에 단주를 차고 다닐 정도로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져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터넷 통해 법음 전세계 전달"

국제전자불전학회 새회장 보광 스님



"세계 불교 전자도서관이 구축되면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인도나 중국을 찾던 전 세계 불자들이 한국을 불교의 중심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 스님이 5월 26일 동국대서 열린 국제전자불전학회(EBTI) 정기총회에서 3대 회장으로 뽑혔다. 보광 스님은 "나라별 개인별로 추진되고 있는 불교경전 전산화 작업이 입력 등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전 세계로 보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제전자불전학회 정기총회에서 불교경전 전산화 사업의 주요 발전 목표로 삼은 세계 불교 전자도서관은 여러 언어로 된 대장경은 물론 불교전자사전, 불교자료,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까지 한 곳에 모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무료로 서비스한다는 계획.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가 주축이 돼 추진한다. 국제전자불전학회를 뜻하는 도메인(ebti.org)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불교학자와 컴퓨터 관련 분야의 협동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보광 스님은 "부처님 말씀 한 구절만 전해도 복 짓는 일이라 했는데 전자도서관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인 셈"이라며 전자도서관 구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광 스님은 동국역경원과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가 함께 진행 중인 한글 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성과로 한글대장경 318권 가운데 첫 30권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책1, 2권에 이어 〈한국불교전서〉 2권과 3권도 6월말까지는 인터넷(ebti.dongguk.ac.kr)을 통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람 살리는 복지불사 도와야죠"

노인복지타운 기금 3천만원 낸 규현 스님



"복지사업을 직접 전개할 수 없으면 보조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연꽃마을에 후원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5월 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는 자리에서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을 초청, 안성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기금으로써 달라며 3,050만원을 후원한 서울 안양암 주지 규현스님.

스님은 "누가 하느냐 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연꽃마을의 숙원인 노인종합복지타운이 빠른 시일내 건립돼 노인들을 위한 불국토를 이루길 신도들과 함께 발원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4년 전에도 연꽃마을 후원금 통장에 구체적인 연락처도 밝히지 않고 '안양암'이라고만 적은 채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그 때부터 보시한 성금은 약 7,000만원. 어려운 절 살림살이에 적은 돈이 아니건만, 신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에 거금을 기꺼이 희사했다.

규현스님은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불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불사가 더욱 소중하다"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불자들의 무주상보시를 당부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불사는 4월 26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10년간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수행 – 학문탐구 풍토 만들터"

중앙승가대 총학생회장 일음 스님



"김포학사를 학문탐구와 수행의 도량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근 중앙승가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장에 선출된 일음스님(사회복지학 3년)은 중앙승가대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상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 내외에서 중앙승가대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일음스님은 "김포학사 시대가 열렸고 학문탐구와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진 만큼 예전과는 다른 중앙승가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전법 일꾼 되겠다"

대전불교언론인회 김종완 초대회장



"대전불교언론인회의 내실을 다지고 도청, 시청 등 행정기관에서 활동하는 20여 개의 불자회 및 다른 지역 언론계 불자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월 25일 백제불교회관에서 창립된 대전불교언론인회의 초대회장을 맡은 김종완(대전MBC 보도국장 · 54) 씨. 김 회장은 언론인회가 전법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대전지역 언론사의 불자 현황을 파악하고, 회원스스로 매일 아침 백제불교회관에서 108배를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3~4명의 회원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어,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매주 금요일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7월 말경에는 여름수련회도 계획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형제 폐지" 1人시위

Focus



불교인권위원회 상임대표 진관스님은 5월 30일 인권법당 안국동 길상사에서 국회의사당 앞까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1인 도보행진을 벌렸다. 스님은 행진도중 천도교 수운회관에 들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최시형 선생(천도교 2대 교주)을 추모하고, 김대건 신부의 사형지인 절두산성지를 방문해 독경했다.

김원우 기자



동국대 中천진대학과 교류 협정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5월 29일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중국 천진대학과 교수 · 학생 교류 및 정기 학술회의 개최를 골자로 하는 학술교류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천진대학은 106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과학기술분야의 명문대학이다. 사진은 조인서를 교환하는 송 총장(오른쪽)과 천진대학 교무위원회 주임 양위친 교수.



혜원정사 소년가장돕기 음악회

혜원정사(주지 효명)는 5월 26일 소년소녀가장돕기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음악회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2천여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이날 음악회를 통한 수익금은 부산시에서 추천한 20명의 중 · 고등학생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됐다.

「회당학원 50년사」 출판기념법회

■일시:진기55(2001)년 5월 29일 ■장소:위덕대학교 중강당



'회당학원 50년사' 출판기념회

회당학원(이사장 최해욱)은 5월 29일 위덕대학교 중강당에서 회당학원 50년 교육사를 기록한 〈회당학원 50년사〉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회당학원은 지난 49년 건국고등공민학교를 시작으로 대구 심인중고등학교, 서울 진성여중고에 이어 지난 96년 경주에 위덕대학교를 설립했다.



여불련 전국 여성지도자 연수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5월 27, 28일 양일간 속리산 법주사에서 '동양의 사회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제5차 전국여성지도자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의 '여성의 정치적 역할 증대를 위하여'란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날 연수교육에는 경남지부 지도법사 지성스님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紫微垣과 大院君

韓國의 爲政者에게 告함

新羅의 元曉聖師도 義湘祖師와 함께 中國으로 佛敎遊學하고자 唐津의 內浦港口로 乘船하기 爲해 가든 途中 紫微垣을 發見하고 祖國의 民族的 矜持를 갖고 忽然히 回程 하였다는 說이 있는가 하면 唐의 風水宗匠인 一行禪師와 杜思忠도 紫微垣을 보고 歸國하여 언젠가는 新羅땅에서 世界를 統一하는 天子가 出現할 것이라고 豫言하고 記錄은 禁忌하였다. 또 高麗初 風水의 鼻祖인 道詵國師와 朝鮮의 無學國師도 紫微垣을 보고 將次 우리나라가 世界의 宗主國이 될 것이라고 秘傳하였다. 朝鮮末의 興宣大院君이 鄭萬仁禪師에게 紫微垣의 圖得을 懇請하였으나 不可理由로서 첫째 封建王朝體制가 崩壞하는 時代에 可用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대의 所有가 아니니 後日 有德君子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斷乎히 拒絶하였다. 그리고 只今의 德山땅에 當代君王之地를 點穴하여 그의 父親南延君을 遷墓케 하였다. 그리하여 一年後에 命福(고종황제)을 出生하였고 十一年만에 이르러 世子册封과 同時 攝政 大院君이 되었다.

그 後 萬仁禪師는 紫微垣 山圖의 一幅을 大院君에게 傳한 다음 곧 바로 海印寺를 거쳐 紫霞島로 晦名蹈跡하였다. 大院君은 이것을 刺繡하여 居室에 걸어두고 世界風水界에 있어 最上의 絶倫이라고 感嘆하였다 한다. 오늘까지 규장각에 所藏되었다는 說이 있다. 이 紫微垣 天子之地를 韓國正統風水大家인 哲山 丁世源明師께서 五十四年間 踏山끝에 마침내 機緣을 통하여 發見하였다. 이것은 우리 韓國이 國運隆昌할 時節因緣이 到來한 것이며 아울러 南北統一은 勿論 韓民族의 世界宗主化 時代가 開幕될 것을 豫告하는 瑞兆로 確信하는 바이다.

辛巳年 五月 十五日

韓國正統風水學會 會員一同 白

H·P 011-747-5035, 017-290-1289



◇부산세관 관우불자회가 5월31일 부산 관음사에서 봉행한 법회 모습.

"불성 깨우는 불자 되겠다"

부산세관불자회 재도약 발원

부산세관 관우불자회(회장 현후길)는 5월 31일 부산 관음사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활발한 신행활동을 서원하는 재도약의 자리를 마련했다. 관음사 주지 지현스님을 초청법사로 진행된 이번 법회에는 1백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했다.

지난 91년 창립된 부산세관관우불자회는 전국 최초 세관불자회로서 부산 지역 공무원 불자 포교에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금까지 사찰순례 법회 이외에는 뚜렷한 신행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2 창립을 서원하는 이번 법회는 부산 불교계의 관심을 적잖게 모았다.

이날 현후길 회장은 "교리 공부, 정기법회, 사찰순례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 의 불성을 일깨우고 포교하는 불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지하철 '자비의 말씀' n-TOP 서 본다

풍경소리 016 · 019도 추진

전국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스님)의 '자비의 말씀'을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게 됐다. 풍경소리는 무선 인터넷 전문회사 엠클(사장 최영철)과 기술 제휴를 맺고, 5월 25일부터 SK텔레콤 011 무선인터넷 n-Top을 통해 '자비의 말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011 가입 이용자라면 누구나 휴대전화의 n-Top 서비스에 접속, '자비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드는 글귀를 친구나 연인의 휴대전화로 '메시지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의 창으로 본 '자비의 말씀.'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처장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에게 최첨단 포교 방식으로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방법은 011핸드폰 n-Top에 접속해 초기화면에서 5번 '뉴스 · 생활'을 선택한 뒤 10번 'M매거진'과 8번 '매거진 명품관'을 차례로 선택하면 풍경소리의 자비의 말씀 메뉴로 들어 갈 수 있다.

오종욱 기자

"사회 밝히는 목탁"

대전불교 언론인회 창립



대전지역 언론계 포교의 첨병으로 나설 불자 언론인의 모임인 대전불교언론인회가 창립됐다.

대전KBS, 대전MBC, TJB, 대전일보, 충도일보, 대전매일신문 등의 불자 언론인 50여 명은 5월 25일 백제불교회관에서 대전불교언론인회 창립총회 및 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감사 주지 장곡스님과 연화사 주지 종실스님이 지도법사로 추대됐고, 대전MBC 김종완 보도국장은 회장, 대전일보 신도성 논설위원은 부회장, 대전KBS 이석능 편성부장과 대전매일 전재구 판매국장은 감사로 각각 선출됐다.

이날 창립식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상원스님, 구암사 주지 북천스님, 태전사 주지 도일스님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오종욱 기자

답사모임 가람 찾아 佛心 닦기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닫기 힘든 폐사지에서 목탁을 치며 육법공양을 올리고 석가모니 정근과 108배를 하는 불자들의 모임이 화제다. 불교유적답사라고 하면 으레 이름난 사찰을 방문해 국보, 보물급 불교문화재를 관람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들 모임은 유명 사찰이나 성보만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둘러보는 예전의 답사 형태를 , 예불 올리며 신심을 다지는 신행 현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석불연구회가 강원도 원주 용운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앞에서 예불하는 모습.

한국석불선양회 방치된 돌부처 발굴 보호조치

불교유적답사회 폐사지 찾아내 당국에 복원건의

아제아제답사회 사찰방문 108배·석가모니 정근

또한 답사 여정에서 허술하게 관리되는 성보를 발견하면 그 주변을 정리하고 관할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성보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와 같이 답사를 자신의 신심을 다잡는 신행의 현장으로 삼는 주요 답사 모임에는 '한국석불선양회', '불교유적답사회', '아제아제 불교문화답사회', '터사랑',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이 있다.

지난해 3월 창립된 한국석불선양회는 전국의 초야에 묻힌 석불만을 좇는 답사단이다. 산기슭 갈이 인적 없는 곳에 서 있는 석불만을 찾는 것은, 유명 사찰의 대웅전에 봉안된 부처님과 같은 존상(尊像)이지만 그에 걸맞는 예경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석불선양회가 답사지에 도착해 가장 먼저 석불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육법공양 등의 예불을 올리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또한 한국석불선양회는 5월 13일 충북 괴산 마애이불병좌상을 찾은 13차 답사에서 무속인의 훼불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는 한편 괴산군청에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석불 보존에도 적잖게 공헌하고 있다.

진주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로 결성된 불교유적답사회도 신행을 결합시킨 답사 모임이다. 불교유적답사회의 답사는 그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사롭지 않다. 폐사지 전문 답사회인 만큼 해당 사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지 않고서는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유적답사회는 폐사지 보존 상태를 파악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경남 합천군 가회면 영암사지를 답사할 때에는 20여 년 전 홍수로 소실됐던 탑의 일부를 찾아내 지자체에 복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20, 30대 청년 불자들의 모임인 아제아제 불교문화답사회 역시 일주문에서 합장한 채 경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답사를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대웅전을 3바퀴 정근하며 돌고, 미리 준비한 공양물을 불단에 올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108배, 석가모니불 정진,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답사의 일정을 마칠 만큼, 답사를 신심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아제아제 불교문화답사회는 답사에 처음 동참한 사람들에게 사찰 예절을 가르치는 시간도 갖는다.

터사랑과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사찰의 새벽, 사시예불에 참석하는 것으로 답사의 일정을 시작한다. 터사랑의 경우 답사 일정을 '무박2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새벽 3~4시에 도착해 새벽예불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여불사)도 사시불공에 참여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의 참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석불선양회 이귀인 회장은 "예불, 정근, 발원 등은 지금껏 피상적으로만 대했던 불교유산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고, 그 과정에서 신행의 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평화운동 이렇게…'

좋은벗들 1~29일 통일강좌

(사)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1일 '평화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6기 통일대화마당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평화의 이론과 현실'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민(통일연구원) 씨는 "남북한간의 통일문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과 의식, 행동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강좌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부터 2시간 동안 정토회관 3층 강단에서 진행된다. (02) 587~8996

게시판

알림

▲폐식용유 수집=자양사회복지관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각 가정 및 영업소에서 처치 곤란한 폐식용유를 수집한다. (02)458-1664

▲시민선방 철야정진=선학원 시민선방은 9일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02)732-3327

▲정신지체장애아동 미술치료=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5일부터 오후 2시 정신지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시간을 마련한다. 참가비는 무료. (051)868-0750

강좌

▲여름정기강좌=마야문화원은 6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제2기 여름 정기강좌를 마련한다. 불교, 건강, 전통교양, 어학, 특별강좌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02)722-1050

▲건강관리=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복지관 강단에서 '건강 관리'를 주제로 연강을 실시한다. (02)385-1351

모집

▲영어교실 자원봉사자=자양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어기초반' 및 '회화반'의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458-1664

▲가정봉사원=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세탁, 식사보조 등의 가사를 도울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봉사는 주 1회 실시되며 소정의 봉사료도 지급된다. (031)455-0551

▲도서관 도우미=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전용 도서관에서 도서를 관리하고 열람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차량운행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할 차량운행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0855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우리 모임에선

성북경찰서 보궁순례



성북경찰서불자회는 5월 27일 오대산 상원사와 월정사를 방문하는 사찰순례법회를 실시했다. 80여 명이 동참한 이번 순례법회는 상원사 적멸보궁에서 성북서 경승실장 정수스님의 지도로 108배를 하고 상원사 주지 정념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또한 월정사를 방문해 성보박물관과 석조보살좌상 등을 둘러보았다.

불기협 춘계체육대회



한국불교기자협회는 5월 26일 일산 동국대학교 농장 야구장에서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사 소속 기자 및 가족 60여 명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축구와 발야구 시합을 펼치고 온 가족과 함께 '럭비공 빳기' 등 명랑운동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회원들은 일산 불교종합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행자부 불자회장 신기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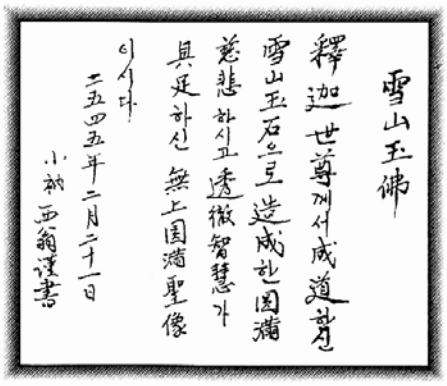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불자회는 5월 28일 오후 7시 긴급 총회를 열고 회장 등 임원진을 새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기윤 서기관(인사국)은 회장에, 곽임호 사무관(인사국)은 교무부장에, 남시우 사무관(민방위재난관리국)은 섭외부장에 각각 선출됐다. 이번 총회는 하재춘 前 행자부불자회장의 전보발령에 따라 마련됐다.

철불협 환경법회

철도청불교협의회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는 4일 오전 12시 30분 사나사 대웅전에서 화암스님을 법사로 초빙해 환경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 이어 불교법우회는 사나사 계곡 일대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수도권 일대 청정지역인 사나사 계곡의 환경을 정비하자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실시됐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 추천서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매달 경로잔치 '부드러운 여권운동'

신행현장 | 불교여성회 봉사활동

"할머니, 할아버지 이 노래 한 번 따라해 보세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인권법당 길상사에서 흥겨운 노래가락이 흘러나왔다. 길상사 2층 법당에서는 가회동경로당, 북촌경로당, 월서경로당에서 온 어르신 50여명이 불자 가수 김무환씨의 공연을 보며 즐거워 하고 있었다.

이어 불교여성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점심공양이 들어왔다.

길상사 주지이자 불교인권위원장인 진관스님은 "길상사가 안국동으로 이사온 뒤 매달 경로잔치를 열게 된 것은 불교여성회 회원들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보시와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절에 와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것이 '작'만 큰 인권운동"이라고 불교여성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아주 맛있어. 절에 와서 점심을 먹고 법문도 들으니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

매달 초이레 불교여성회가 길상사에서 마련하는 경로잔치는 이처럼 소박하지만 뜻깊다. 정겨운 대화와 작은 무대로 감동을 준다.

경로잔칫상 주위를 맴돌며 부족한 음식 채워주기에 여념이 없는 이동화보살은 "할머니 · 할아버지를 모셔 작은 잔치를 여는 경로잔치를 여러 불자들과 같이하면서 큰 감동을 받는다"며 "주위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진관스님의 법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덕담에 이어 비구니 스님들의 승무, 구품연지춤연구회(회장 오영희)의 춤 공양이 펼쳐졌다.

불교여성회는 창립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달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민주화 인사 위령재 등 일에서부터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모인 열린 신행단체. 길상사를 중심으로 불교인권위 여성 후원자들과 서울 청량사 신도들, 서울대병원법회 자원봉사자들, 봉은사 자은회, 선재회 회원 등 40여 구성원들이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민주화 인사 천도재 등을 매달 개최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였다.

직장 및 가정내 여성폭력문제, 여성근로자 탁아문제, 일본군위안부, 기지촌 여성문제 등 관심사가 다양하지만, 우선 여성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작은일에서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실천위주의 불교운동을 펼쳐갈때 이 사회가 점점 변모해가고 궁극적으로 '불국정토'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회원중의 한명인 장기표씨의 부인 조무하씨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논술강의를 시작하는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해 역량이 성숙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불교여성운동을 펼친다는 것이 이 단체의 방침이다.

이러한 불교여성회의 활동방침은 회장인 성법스님(전 청량사 주지)의 원력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 청량사에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을 키우고 있는 성법스님은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것을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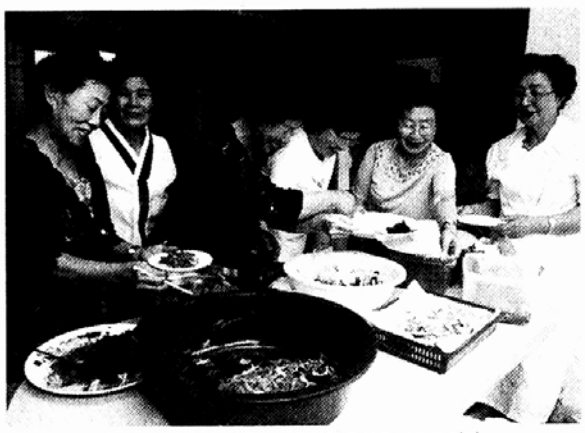
성법스님은 "소외된 이웃을 부처님처럼 공양하다 보면 여성의 자아실현, 남녀평등의 구현, 소외계층의 해소가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며 "여성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02)734-640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40여 회원 적극 참여

소외이웃 봉사 '먼저'

사회역할 확대 '점차'



◇조무하씨등 회원들이 어르신들에게 공양할 음식을 나르고 있다.

생활속의 불교 — 남의 소를 세는 사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국정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민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간이 지속되면 자칫 나라 망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컴퍼스로 원을 그릴 때 중심이 흔들리면 둥근 모양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는 것과 같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중심잡기'란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길, 학문의 길에서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삶은 일그러진 모습이 된다.

수행의 길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그 수행이란 평생 우왕좌왕에 그치고 만다. 제 스스로는 신심 돈독한 불자라고 할 지 모르나 고작해야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하며 환상을 좇거나, 신장의 가피를 갈구하고, 도력 높은 스승을 찾는다며 몸만 분주하게 된다.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비유하자면 빈 집과 같다. 빈 집에서는 부랑자들이 오며 가며 제 멋대로 드나든다. 뭇 짐승, 벌레들도 제 집처럼 들락거린다. 그러니 머지않아 창문 뜯기고 벽 헐어지고 기둥 썩어 쇠락하게 된다. 때로는 엉뚱한 놈이 들어와 제 집인 양 주인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심을 잃은 사람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황폐해져 속절없이 병고액난에 시달리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중심잡기에 대해 '법등명 자등명'으로 대답하셨다. 자성부처에 귀의하고 가르침을 지표로 삼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자칫 현혹되기 쉬운 명호와 형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법'을 근본으로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래야만 비로소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 독존(獨尊)이라 이를 만하다고 하셨다.

현대과학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불자라고 자부하는 이들 가운데 도력찾고 영험찾고 부적찾는 이들이 있다. 오관을 줄증하게 갖추고 태어났으면서도 자성부처를 찾을 생각은 안하고 밖으로 두리번거리며 남이 해놓은 것을 구걸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들이 있다. 제 목장은 돌보지 않고 남의 목장의 소를 세는 사람들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호국영령 위로하는 달 극락왕생 기원 합시다"



성운스님
삼천사 주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이래 1,300여회의 크고 작은 주변국들의 외침을 받아오면서도 나라를 유지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자주성을 지켜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숱한 목숨이 산화되었고 또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오늘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안녕과 안보에 있고, 불교의 본 뜻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살기 좋은 국토를 건설하는 데 있으니 결국 호국(護國)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와 민족이 위난에 처 했을 때 전선에 나서서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

"중생의 삶 윤회환생 좋은 곳서 태어나길"

고 싸운 호국정신이 역사속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이 영혼들이 안주하고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지닙니다. 이를 우리는 천도(遷度)라 부릅니다.

천도(遷都)란 천혼(薦魂),천령(薦靈)이라 하며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불보살님께 재(齋)를 올리고 영혼들로 하여금 정토 극락 세계나 천상에 태어나도록 기원하여 좋은 길로 천거하는 법식입니다. 시식(施食)이란 널리 베풀어 먹임이니 천도재를 올릴 때 천도하려는 영가 뿐만 아니라 선망 부모와 일체 유주 무주 고혼 등을 모두 청하여 그들에게 널리 법문과 염불을 해주고 음식을 베풀어주는 일입니다.

천도, 시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사십구재(四十九齋)로 사후 49일에 올리는 천도재, 둘째는 예수재(豫修齋)로 죽은 뒤에 행할 불사를 미리 생전에 닦는 재로 미리 사후의 길을 닦는 참회의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륙재(水陸齋)로 물과 육지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공양하는 재식의 법회입니다. 이는 중국의 양나라 무제가 제불보살의 몽중수기를 받아 대덕큰스님에게 수륙의문(水陸儀文)을 짓게 하여 백승재를 지낸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수원의 길양사에서 해거국사가 최초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중생의 삶은 단 한번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단지 윤회환생 할 뿐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아주 선한 업을 지은 사람은 그 과보로 곧바로 천상에 태어나고, 반대로 극악무도한 사람은 곧장 지옥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중음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음신은 49일이 지나도 다음에 태어날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 가족이나 친지들의 기억 속에서도 멀어지고 결국에는 아주 잊혀지고 말면 우주공간에 떠도는 한맺힌 혼백이 되고 맙니다.

이 같은 중음신이 있게 되면 그 집안은 편치 못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혼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 살아생전의 가까운 인척이나 친구들 주변을 맴돌면서 천도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고혼을 천도하는 일은 죽은 영가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히 나라를 위해 산화한 호국충혼열사나 자기 주변에 가까운 일가 친척의 영혼들을 천도하여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주, 무주의 영가들이 모두 왕생극락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신행 캘린더

6월 8일 (금)

■사찰음식 전시회=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림정보산업대학 본관 3층에서 전통사찰음식 전시회를 개최한다. (02)355-5961

■인터넷 관리자 연수=대한불교진흥원은 9일 9시부터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불교계 인터넷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한다. (02)719-1855

■남북화해 세미나=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오후 2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불교의 평화 정신과 남북 화해'를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연다. (02)735-5864

6월 9일 (토)

■전국불교청년대회=대한불교청년회는 10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수행, 교육, 실천이 하나되는 청년붓다'를 주제로 제20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02)738-3385

■철야정진 수련법회=조계사 불교대학 청년회는 10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철야정진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02)720-1390

6월10일 (일)

■운불련 체육대회=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 금산중 · 고등학교에서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053)764-0763

■양로원 봉사활동=능인불교대학 27기 법우회는 오전 8시 경기도 화성 자재정사 양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011-285-0082

6월 12일 (화)

■본존불 점안 대법회=중앙승가대학교는 오전 9시 김포학사 법당 본존불 점안 및 삼천불 봉안 대법회를 봉행한다. (031)980-7777

■한불언 정기총회=한국불교언론인회는 오전 12시 마포 불교방송 2층 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2)719-4084

6월 13일 (수)

■삼사순례법회=대구 법왕사는 오전 8시 '삼사순례법회'를 실시한다. 청송 대전사, 청하 보경사, 안강 대흥사 등 대구지역 사찰을 순례한다. (053)766-3747

■불교사상강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를 초청해 '윤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불교사상 강좌를 개최한다. (02)703-0108

부처님 꽃 친견 및 삼사 성지순례 법회
(운봉산 백운사 아미타부처님 몸에 핀 꽃 친견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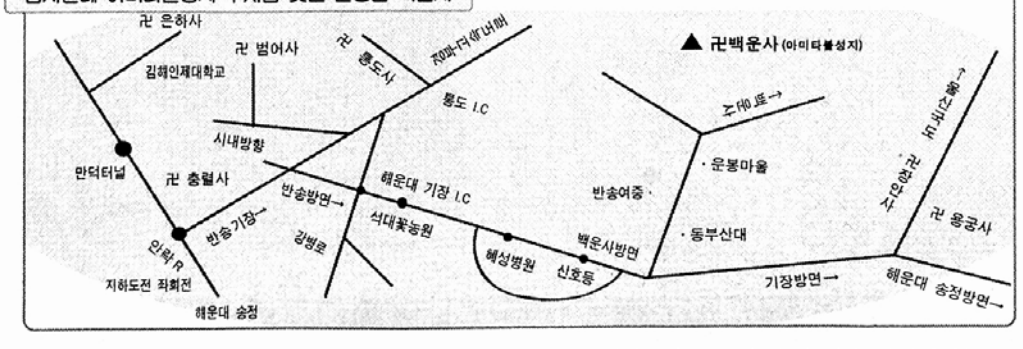
경진년(경진년) 설달 보름날 오후(밤)12시 가량 밝은 달 주변에 오색 무지개가 둥근 타원형을 그리며 넓게 자리를 잡고 오색 찬란하게 하늘을 3,4시간 수 놓다 소납은 넋을 잃을채 하늘을 감탄하며 한편은 기쁨에 소뼉치며 춤을 추면서 하늘의 길조가 곧 땅의 길조로 이어지며 그빛이 한반도를 빛추는 느낌에 반만년의 시련과 고통, 힘든 이 국토에 큰 영광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왔다.

신사년(신사년)에 삼재가 들어오므로 삼재자를 위해 부처님전에 개금공양을 올려야 겠다는 발원으로, 평소 예불시 상단 불보살님 한단부분에 개금 탈색이 심한것을 보고 정성 부족 한탄 참회하면선, 또한 나라와 신도님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금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개금 도색 하기위해 탁자에서 내려놓고 털고 닦는 도중 소납과 불모의 누에 물체가 환하게 빛쳐오므로 발견하게 되었다. 개금불사를 추진해야 겠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오늘에야 부처님의 가피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법화경 속에 우담바라가 피면 나라에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나라 안팎을 안락과 평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루신다 하셨다. 3000년 마다 한번 피는 우담바라가 상상속의 꽃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말법(말법)시대에는 중생들에게 구제와 희망을 바라고, 국가의 전륜성왕이 나올길 바라는 것으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종교적인 상징이 더욱 더 크다. 불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알고 행동하며 깨닫는 것이다. 대법회의 인연으로 이나라 이국토에 희망과 보람과 발전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과 마음에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새삶을 이르시길 다같이 기원 합시다.

운봉산 백운사 주지 마나 합장

삼사순례 아미타불성지 부처님 꽃핀 운봉산 백운사



※ 대형차량(버스)은 동부산대 입구에서 하차하십시오.(백운사 봉고사 운행 이용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산 136번지 운봉산 **백 운 사** TEL 051-542-4630

격월간 참여불교 창간호(2001년 5,6월호) 일반서점에서도 구입할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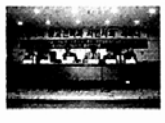
ENGAGED BUDDHISM
참여불교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25,000원

한국의 종교권력 현주소는 어디에…

창간기획 좌담 교단자정운동의 방향과 과제

기획연재
- 국가권력과 종교
- 세계의 공동체를 찾아서



논단
- 재가종무원, 전문직인가 부목인가
- 포교를 위한 인터넷 활용 방안



특별기고
- 동국대 불교학부 원로-중진 교수님께 드리는 고언
- 불교회관 이렇게 짓자

교계초점
- 얼굴없는 말, 괴문서 현상



손혁재의 세상읽기
- 남북화해시대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종교 내적인 자기 정화의 기운이 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입니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종교성인들이 보여준 삶의 길은 탐욕을 벗어난 자유의 삶이었으며, 부와 명예를 벗어 던진 청빈과 겸양의 삶이었으며, 만 생명의 고통을 벗게하려 일평생 길 위에서 쉼이 없었던 정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교단은 교단을 만드신 처음 그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르침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형건축물의 어두운 방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스스로의 깨침과 함께 고통의 현장을 돌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창간특집
-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 한국종교의 사회적 역할
- 한국의 종교, 그 존재 당위성 여부 문제에 대하여
- 권불유학 퇴살아나는가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전화 02-725-6231~2 팩스 725-6233 buddha21@budgate.net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302호

연간 구독료 2만5천원



박태원 교수의 39

불교로 보는 인생

생명 있는 몸은 강하다. 심각한 훼손이나 상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며 자신을 유지해 가는 생명의 힘은 강인하다. 그러나 또한 허망할 정도로 쉽게 무너지는 생명이다. 멀쩡히 들어와 자고 나서 아침 출근길에 나서다가 픽 쓰러져 저승길 올라서는 것이 몸이며 생명.

생명은 충격이나 변화를 소화해 내며 생존이나 건강에 필요한 균형 상태를 복원해 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타고난 신체 조건, 환경, 자기 관리와 정신력, 마음 씀씀이 등에 따라 이 능력의 정도가 달라질 터. 이 균형 복원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명은 질기고 강하지만, 일단 그 범위를 넘게 되면 한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린다. 돌연사는 그런 현상이다. 40대 이후 성비(性比)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일한 경우가 한국이라니, 남성 생명의 균형 복원력을 넘어서는 이런 저런 압박이 넘쳐나는 곳이 한국 사회인 셈이다.

균형이 깨지는 현상을 건강 상실이라 한다면, 몸 구성 요소 중 일부의 과도한 자기 주장이 그 균형 파괴의 한 내적(內的) 원인이다. 몸의 다른 부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과도하게 음식을 탐하면 건강이 망가진다. 다른 기관들을 배려하지 않는 혀(舌根)의 과도한 자기 주장이 건강 유지에 필요한 균형을 꺼뜨려 버린 것이다. 암이란 것도 암세포의 과도한 자기 주장 현상이 아니던가. 모든 구성 부분들이 촘촘히 얽힌 상호 의존적 관계가 몸. 그러니 각 부분은 여타 부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이나 기능에 그칠 수 있어야 전체 시스템의 건강이 유지된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과도한 자기 주장에 몰두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시스템이 망가진다. 이런 관점은 생태론적 세계관과 통한다.

지구 생명체 가운데서 유독 인간만이 끝 모를 자아 의식을 발전시킨다. 이 유별난 자아 의식은 생명 성숙의 '자기 자각'일 수도 있고, 생명 왜곡과 파탄으로 나아가는 '지나친 자기 주장'일 수도 있다.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활발할 때, 인간은 지구환경 전체의 건강을 배려하는 행위에 그칠 수 있는 본능적 자제력을 발휘하였다. 그 때는 나무 한 그루를 베고 땅 한 평을 헤집을 때에도 꺼리고 조심스러워 했다. 농업사회의 인간에게는 그렇게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생태론적 직관이 본능적으로 꿈틀거렸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에서도 신성(神性)을 느끼려는 범신론도 어쩌면 이 생태론적 지혜의 한 형태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문명의 어느 시기, 인간은 이 생태론적 감수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로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흥미롭게도 두 문명권에서 거의 동시에 두 빛나는 영성이 등장하여 인간의 이 과도한 자기 주장의 미혹과 재앙을 설파한다. 인도문명에서는 부처님이 자아에 대한 근본 무지와 그 후유증(苦)을 낱낱이 설하였고, 중국문명에서는 노자께서 자아의 그릇된 작위를 유위(有爲)라는 말로 비판하였다. 이 두 영성은 무지로 인한 인간의 과도한 자기 주장이 인간과 세상에 어떠한 병폐를 초래할 지에 대해 심오한 통찰을 밝힌다.

무아와 생태적 감수성

과도한 자기주장 전체 시스템 훼손

문명과 문화의 이름으로 인간은 과도한 자기 주장을 급속하게 강화시켜 왔다. 인간의 이 과도한 자기 주장은 급기야 지구 환경 시스템 전체의 건강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균형 파괴의 임계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듯 하다. '생태계의 위기'라 불리우는 이 시스템 건강 파괴 상황에서 탈출하는 길은 결국 '과다한 자기 주장의 절제'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자아 이해인 무아(無我)의 지혜라야 자아 관념의 질긴 덫에서 해방되어 마비된 생태론적 직관과 감수성이 부활할 터.

새만금 간척사업이 결국 강행되는가 보다. 지구 건강의 균형 유지력을 훼손하는 또 하나의 파괴적 자기 주장이 될까 걱정들이 태산이다. 개발이라는 미명의 자기 확장 속에 도사린 미혹과 재앙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지.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 ulsan.ac kr

집착없는 보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

참불자의 길 보시



◇자비심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보시는 참불자의 길을 가는 신행의 첫걸음이다.

"대웅전을 새로 짓는데 보시하세요." "기와불사를 하는데 보시하세요." 사찰에 가면 흔히 받는 권유다. 보시에 대한 공덕이나 의미에 대해선 일체 설명하지 않고 돈만 내라는 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작 보시할 생각이 있는 사람도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지난 일요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사찰에서 만난 불자는 "기와불사를 하면 복 많이 받는다며 얼마나 소매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지 할 수 없이 기와불사를 했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수 십년 된 불자나, 초심자나 '보시'하면 사찰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보수 그리고 절에 돈을 내는 행위만을 떠올린다.

그렇다고 이것이 보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보시의 의미과 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자비심으로써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를 권하고 있다. 결국 보시는 집착 없는 마음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부분 보시는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불자들의 의식을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례가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적는 기와, 범종, 불?보살상 조성 등의 불사다. 특히 삼천불, 1만불 조성불사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풍토가 만연하다 보니 일부 불자의 경우 '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보시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돈을 내는 행위를 보시의 전부로 여기는 풍토가 문제다.

포항 대성사 주지 운붕 스님은 "보시는 지혜와 자비의 표현으로서 보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바라는 바가 없어야 하며 조건도 없어야 한다"며 "잘못된 보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스님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보시는 사찰에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법문, 상담 등 불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것도 보시다"고 덧붙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시'하면 불자들만이 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스님들이

기와·범종불사 뿐 아니라 봉사·법문도 훌륭한 보시

하거나 법문을 하는 것 그리고 불교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다. 결국 보시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초월해 이떠한 상(相)에도 집착함이 없는 보살행이다.

〈대품반야경〉에는 "보시할 때에 자기를 붙잡지 않고, 받은 이를 붙잡지 않고 베푸는 물건을 붙잡지 않으며 또한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주변을 눈여겨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보시행을 펼치는 불자들도 많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합장주 비롯해 불서, 쌀, 약, 김장, 이불, 떡, 과일 등 다양하다. 심지어 군장병불자들을 위해 '차 한잔 나누기 캠페인'을 벌여 보시하는 불자들도 있다. 또한 사찰의 행사를 돕는 것도 보시요.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보시이며,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등 자신의 전문직을 살려 봉사하는 것도 보시다. 사찰마당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 목마른 이에게 물 한잔 주는 것도 보시다.

재시(財施)·법시(法施)·무외시(無畏施)등 남을 위해 베푸는 보시는 참불자의 길을 가는 신행의 첫 걸음인 셈이다. 사섭법과 육바라밀의 첫째 덕목이 보시인 까닭은 보시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행이기 때문이다. 김중근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⑯

진소경에 대한 답서(2)

취하고 버리는 분별떠나 있는그대로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묵조선(默照禪)을 설하는 삿된 스승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고 쉬고 또 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쉬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외도와 이승의 선적단견(禪寂斷見)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어떻게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한 작용과 완전한 안락과 있는 그대로가 청정한 해탈이 되는 묘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자연히 옛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옛 사람의 말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마니(摩尼) 구슬이 진흙탕 속에 아무리 오래 놓여 있더라도 때가 낄 수 없는 것은 그 바탕이 본래 깨끗한 때문입니다. 이 마음도 그와 같아서 어리석은 때에는 티끌 경계에 미혹되지만, 이 마음의 바탕은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듯이 본래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득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은 본래 부처로서 완전히 자재하며 있는 그대로 안락하며 온갖 묘한 작용들도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보통 참선한다고 하면 조용한 곳에서 묵묵히 앉아 있거나, 사람들과 동떨어진 토굴에서 홀로 자기만의 내면세계를 탐구하는 일로 여기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참선(參禪)이라는 말이 선(禪)에 참여(參與)한다거나 선을 참구(參究)한다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이 특별히 참여하거나 참구할 대상으로 따로 존재한다고 여기기가 쉽다. 함정은 바로 이러한 견해에 있다. 그리하여 참선이라는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선방(禪房)이나 토굴이라는 외딴 장소를 찾는다거나, 특수하게 설계된 집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활하여야 참선이라는 특별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여기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선을 보통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분별심(分別心)의 소산으로서 이른바 이법(二法)에 떨어진 것이다. 마음은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佛法)은 곧 불이법(不二法)이라고 한다. 선이란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선(禪)을 따로 추구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수능엄경〉에 나오는 아쥬냐닷타 장자처럼 제 머리가 없다고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짓이다. 밖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따로 찾을 수가 없지만, 찾고 있는 그것이 바로 찾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찾을 일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참선을 한답시고 조용한 장소에 묵묵히 앉아 아무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쉬고 또 쉬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묵조선은, 아쥬냐닷타의 추구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아무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쉬고 또 쉬자'라는 그 생각이 바로 마음이 스스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짓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선을 고요함이라고 여기고 생각을 끊어야 그 고요함이 달성된다고 하는 선적 단견(禪寂斷見)의 어리석음이라 하며, 마음을 가지고 마음 깨달을 것을 추구하는 잘못이라고 한다.

선은 생각을 취하는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생각을 버리는 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취하고 버리는 분별을 떠나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생각이라는 상(相)은 곧 생각이라는 상으로 독립자존하는 것이 아니라[非相], 생각을 생성하는 끊임없고 한정할 수 없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 고정되지 않는 움직임이야말로 생각이라는 상의 근본이다.

이 근본을 체험하는 것이 올바른 참선이다. 의식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 근본에서 비롯되지만, 이 근본은 의식으로 파악되는 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의식을 통하여 이 근본은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의식을 떠나서 근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은 불이법(不二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증구포(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이렇게 들었다

고리사채 범죄

"재물은 생활방편일 뿐"

▧욕심 있는 사람에겐 세상의 빈궁이 큰 고통이다. 다른 이에게 재물을 빌리고 재물을 빌린 뒤에는 남의 구박받아 고뇌가 된다. 빚 주인은 찾아와 독촉을 하고 그 때문에 끌내는 결박되나니 그 결박 무겁고 괴롭다. <중아함경>

▧"재물은 종종 번뇌죄업의 인연이 된다." <대지도론>

고리사채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1백 여 만원을 빌려준 뒤 1억 5천만원을 받아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심지어 돈을 갚지 않는다고 성폭행하고 땅 속에 묻는 일, 인신매매 등 엽기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륜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탐욕의 피해가 남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고통에 빠지게 한다며 소욕지족(小欲知足)의 삶을 강조했다. "나무가 필요할 때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만 그것들을 구하라"〈마니주계경〉,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요, 짐을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증일아함경〉고 설한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물론 이러한 생활이 요즘의 현대인이 지향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재물에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에 취하고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하나니 그는 마치 저 고기잡이와 같네. 그들은 나쁜 업으로 인해 지독한 괴로움의 갚음을 받으리라."〈빈리경〉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탐욕의 근원으로 보고 그 욕심에 빠지면 '인간 고기잡이'와 같다고까지 강하게 강조하신 것은, 돈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명예도 양심도 진리도 모두 그 속에 빠지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면 결국엔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인륜은 물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엽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악덕 고리사채업자들의 극악한 범죄를 살펴보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재물에 대한 폐해를 그대로 엿볼 수 있게 한다.

재물이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바닷물과 비슷하다고 했던가. 이런 점에서 일부 고리사채업자들의 엽기적 범죄행위는 재물에 대한 갈증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국세청에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고리 사채업자는 지난해 말 현재 1412곳. 여기에 무허가 업자를 포함하면 30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일련의 고리사채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관계기관의 관리부재도 빼놓을 수 없다. 어쩌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관계기관이 불법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김중근 기자

"내 마음 항복받아 한 생각 바꾸자"

불자 세상보기

우리나라 이혼률 급증 가정붕괴 인성 황폐화



김징자
언론인
본지 논설위원

어느 책이 잘 팔리고 있다면 그 책 속에 오늘의 시대적 문제에 던지는 무언가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보아도 좋다. 최근 한국에서도 잘 나가는 미국 여성 로라 도일이 쓴 〈아내여 항복하라〉도 그런 서적 가운데 하나다.

남편의 성(姓)도 따르지 않던 미국여성은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남편 성을 따르게 마련) 페미니스트인 저자가 가정의 주도권을 두고 남편과 신경전을 벌이다 드디어 파국 직전에 터득한 지혜, '아내들이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남편에게 항복하라'라는 강한 메시지를 이 책은 담고 있다.

"남편을 존경하고 가정의 주도권 영향력 경제권을 몽땅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말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전개해 나가는 품새로 보아 '이거 어느 중세시대 이야기야'라는 반응이 절로 나올듯하다.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제야 겨우 자의식을 싹틔워 인권으로서의 여권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말살하고 다시 노예근성으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그럼에도 이 터무니없이 보이는 책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다. 가족 또는 가정의 허체라는 오늘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에 해결책 하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통계를 보면 지난 한해 우리나라에서 12만 쌍이 이혼했는데, 이혼률로 따지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달해 미국이나 영국보다 낮으나 스웨덴 독일 일본보다 높다한다. 이혼수속도 쉬워 합의이혼이라면 두 번 생각 할 것 없이 단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수속으로 '끝'을 알린다. 옛날처럼 가족들의 반대도 거세지 않고 주변에서 느끼는 거부감도 엷어졌다. 사회적으로도 헤어지려는 부부를 화해시키려기 보다 '살기 어렵다면 헤어지라'고 충고하는 편을 택한다.

자기 중심적인 현대적 가치관은 그만큼 우리들 가정에 무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혼천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이제 결혼하는 7쌍 중 1쌍은 3번 이상 결혼하는 사람들이라지 않는가.

한마디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결과가 가져올 인성의 황폐화는 어쩌자는 것일까. 벌써 결손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사회에 적지 않은 짐을 지우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이혼하지 말고 부부가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가자고 쓴 책, 〈아내여 항복하라〉는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관심을 끈다.

'항복'이라는 말 뒤에 보다 고차원적 '남편 조종법'이 숨어 있고 내용상 이런 저런 한계와 모순이 있음에도 '우선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중심 메시지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부처님 말씀으로 바꾸면 '내 마음 항복 받아 한 생각 바꾸자'는 뜻일 것이다. '항복' 뒤 찾아오는 기적과도 마법과도 같은 행복한 결과. 이 역시 다분히 종교적이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세태따라 내 마음 좋을 데로' 따르는 것이라면 '아내여 항복하라'는 '마음 좋을 데로'의 그 마음을 항복받자는 것이니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아내여…〉를 찾아 읽는 이가 많다. 그것을 희망으로 삼자. 어디 아내뿐일까. '남편이여…'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화두참구, 깨달음 얻는 확실한 매개체"

박성배 교수 '활구참선…' 특강을 듣고



종호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지난 5월 17일 열린 박성배교수의 특강을 관심 있게 들었다. 먼 여행길의 여독이 가시지도 않았을 시간에 열정의 강의를 보여주신 박교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내용 중 달리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활구참선을 해야한다는 내용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다. 마음으로나 이치, 또는 언어를 통해 모색하지 않는(沒心路沒義路 沒語路無摸索) 참구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강의 이후 일단 '활구참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부터 정확했어야 했다고 느꼈다. 이는 활구참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그렇게 느끼고 충격 속에 강의장에 갔었다. 그러나 내용은 활구참선 그 자체가 아니라 수행자의 참구타도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화두가 방법이 아니라는 것과, 선이 종교요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필자가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새로운 화두에 대해 지적 산물이라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한다.

박교수는 화두가 활구참선이어야지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물론 간화를 할 때 무언가 성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참구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래서 화두참구가 동정일여(動靜一如)나 몽중일여(夢中一如), 나아가 오매일여(寤寐一如)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화두는 방법이고, 또한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혜 〈서장〉을 비롯해 두이나 몽산, 보조, 태고, 서산 등 수많은 선사들이 두자화(無字話)를 비롯해 여러 화두를 언급하며 그것을 참구하는 구체적 방법(간화십종병 등)을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며, 또한 간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면에서 화두는 매개체이고 따라서 간화선은 방법론에 속한다. 또다른 면에서 참구 시작 이후, 말씀처럼 '간화를 통한 무상대도 성취'라는 목적의식이 있거나 사색이라는 방법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지만(이것은 간화선의 기초지식이다) 화두참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매개체라는 인식을 수행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화두참구가 사색적 방법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간화선 그 자체는 화두를 매개로 하여 깨달음을 얻는 수행방법이며, 수행자들에게도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교수의 이런 방법 부정론은 강의 중에 느낀 '활구참선'의 일부 내

>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 옛 조사의 말씀 아무런 의미 없다"

용, 곧 참구 자체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관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묵조선의 기풍이다. 묵조는 이미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는 이른바 본증(本證)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미혹의 상태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간화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좌선 자체를 여불행(如佛行)으로 보고 있는 묵조와 간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구조의 간화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또 박교수는 선은 '일반적 관점'에서 말하는 종교이고 신앙이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선의 기본관점과는 다르다고 본다. 물론 종교나 신앙에 대한 개념규정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선은 '일반적 관점'에서 말하는 종교와 신앙은 아니다. 아무런 숨김없이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 그와 일치되도록 가르치는 이른바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종교라 한다면 선 역시 종교라 할 수 있지만 절대자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순종과 내세관 등을 내세우는 일반적 개념으로 본다면 선은 종교나 신앙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자행(自行)이 불행(佛行)이요, 자도(自度), 자성불도(自成佛道)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경〉을 비롯해 여러 선 전적에서는 그 자신이 이미 절대자요 세상을 성괴(成壞)시키는 창조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또한 새로운 화두가 끊임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를 지적 산물로 이해하는 것은 박교수의 오류라고 여긴다. 간화참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의단(大疑團)이다. 문제는 의단이 생기지 않는 것에 있다.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옛조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박교수의 말씀처럼 '난파'는 대의(大疑)에서 온다. 그리고 의단은 수행자의 근기와도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선가귀감에서는 이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실에 참문하여 화두를 받도록 하는 본참공안(本參公案)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조사는 지금의 수행자가 대의(大疑)를 가지고 참구해 갈 수 있는 화두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칠백 공안도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그게 누구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또한 일체현성(一切現成)이라 하였듯 현실의 난제에 대해 대의를 가지고 간화적 참구를 할 수만 있다면, 즉 활구참구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오히려 이 시대의 수행자가 그야말로 대의로 참구할 수 있는 화두가 끊임없이 나타날 때 간화선은 참으로 간화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박성배 교수의 특강은 5월 17일 동국대에서 '활구참선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렸으며, 강연 요지는 본지 319호 9면에 게재됨

독자의 소리

전국 설법 시연대회 신앙수기 발표장 변해

무위법을 말하면 설법이라 하고 유위법을 말할 때는 설교 또는 강론이라 한다. 며칠 전(5월 18일) 조계종 전국신도회에서 개최한 제 1회 전국 설법시연대회를 참관해 보았다. 행사는 설법이 아닌 신앙의 체험담(수기) 발표장이었고 내용도 염불이나 독송, 신앙생활에서 얻는 환희심 또는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개인적 소감이 많았으며, 심사위원들도 이에 채점의 비중을 두었다.

문제는 설법장이 아니었다는데 있다. 같은 불교를 믿어도 안으로 믿으면 신행이지만, 밖으로 믿으면 신앙이 된다. 주최측이나 심사위원 모두가 불교의 핵심을 모르고 대외 홍보용으로 행사하는 어린 아이들의 유희장 같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외적으로 불교계에는 수승한 불자가 많고, 이런 행사는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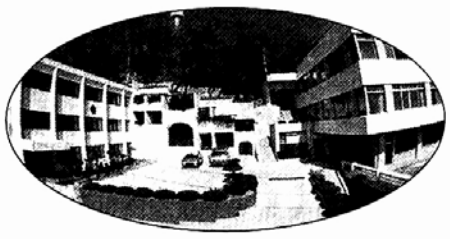
처음 공부할 때 유치원 아이에게 과자를 주는 것은 방편상 어쩔 수 없지만, 팔만대장경을 한 솥에 삶으면 '자신을 찾으라'는 한 마디 뿐이다. 이런 뜻에서 경전을 '뗏목'이라 한다.

신행도 아닌 수기를 전국대회의 대표 설법이라 홍보하면 법장(法藏)이 오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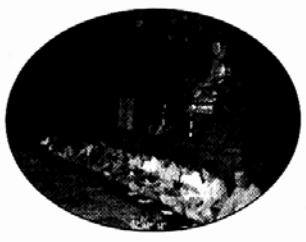
유치원 아이들이 떼거리로 몰려가 데모를 한다 해도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지만, 어른이 한 마디 하면 모두가 귀 기울이듯이, 신행단체가 수승한 불자를 찾아낼 수 없다면 아무리 불교개혁을 부르짖어도 공염불이 될 것이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친목단체로 머물고 말 것이다.

이창우(경남 양산시 웅상읍)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대원불교대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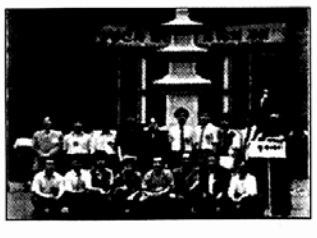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팔리경장 한글 번역 불사 회원 모집



최봉수교수

2,600년 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숱한 역사의 위기속에서도 존속해 온 소중한 팔리경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10년 대 불사가 대중불교운동의 요람인 남산 대원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불교 바로 대중불교운동은 부처님의 원음인 팔리경장 번역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신명을 다해 이번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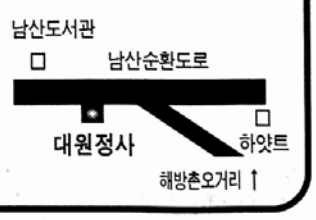
■ 연찬회원(월 30,000원)
팔리 경장 연찬회에 참가하여 우리말로 옮겨진 팔리어 근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강의 TAPE를 우송해 드립니다

■ 구독회원(연 30,000원)
매달 또는 격월로 발행되는 팔리경장을 보내드립니다.

■ 후원회원(경전 1권당 2,000원)
군부대, 병원, 학교에 팔리경장을 법보시 할 수 있습니다.

■ 송금계좌(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우체국 011791-01-000469 국민은행 098-01-0230-530

■ 팔리 경장 연찬회
일시 :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 대원정사 (02-754-1613)
강사 : 최봉수 교수



사·부·대·중

회암사 선각왕사비



도각스님
〈동국대 강사, 불교사〉

우리나라는 석조 불교 유물이 풍부한 나라다. 그 중 회암사는 3대 화상으로 불리우는 지공(指空) 나옹(懶翁) 무학(無學)선사의 부도와 비가 있다. 나는 96년 2월 말 잔설이 뿌리는 날 학위논문 준비로 답사차 갔었다. 그 때 지공의 '삼산양수지기(三山兩水之記)'를 생각하며 기울어져가는 고려를 세우려 고뇌하였던 나옹선사를 회상하였다. 그런데 97년 늦은 겨울 강의 준비 등으로 분주하던 때, 산불로 나옹선사의 비(선각왕사비)가 완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였다. 선각왕사비는 3대화상의 부도가 있는 동쪽 반대편 서쪽 능선에 모셔져 있는데 근래에 전각을 따로 세움으로써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현재는 모조비를 원 위치에 세웠으며 수습된 비는 접착 복원하여 경기도 박물관 수장고에 있다. 거의 완파된 비신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원형대로 복원된 사실은 석조 문화재가 복원된 첫 사례라 한다. 회암사는 인묵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래 3차례에 걸쳐 3대 화상 세미나를 가졌다. 유적지 발굴조사사업은 향후 3년이면 마무리 짓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본당과 방장실 그리고 유물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 때가 되면 복원된 선각왕사비를 회암사 전시관에서 다시 볼 수 있다하나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종단은 1996년부터 전국 교구본말사 1천여개 사찰의 2만 5천여점의 불교문화재를 조사하였다. 이 작업은 2003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고적조사는 1942년 일제시 조선총독부에서 본 말사 소장 목록을 조사하여〈조선보물고적자료〉를 발간한 것이 최초이다. 현재 종단에서는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불교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정부나 종단 차원 만이 아닌 전 국민적 관심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각자가 불교문화의 수호를 화두로 삼아 전국을 무대로 수행하는 자세만이 문화재 도난 사건 및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목탁소리

'강원' 명칭 회복하자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5월 29-30일 이틀 동안 직지사에서 열렸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교직자 연찬회'에 참석한 전국 18개 강원의 강주 · 강사 · 중강 등 45명의 교직자 스님들은 한결같이 강원과 대학교육의 목적과 과정이 엄연히 다른 만큼 이제는 '승가대학'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예전의 '강원' 명칭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이 승가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은 조계종 개혁종단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96년 승가대학령을 제정하면서부터다. 당시 승가교육의 개혁을 외쳤던 조계종단은 교육을 조직화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과 중앙승가대, 동국대를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묶으면서 강원의 명칭을 승가대학으로 바꾸었다. 강원을 일반 정규대학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계획도 명칭을 바꾸게 된 주요 이유였다. 물론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강원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승가교육개혁이라는 당위성에 밀리고 말았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강원뿐만 아니라 교계 관계자들 역시 다시 강원이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송광사 강주 지운스님은 "강원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자구적 의미를 넘어선 한국불교계의 호흡 그 자체인데 명칭이 바뀌면서 전통이 무시되고 승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관계자는 "강원과 대학은 환경과 생활 자체가 다른데 승가고유의 정체성을 무시한 명칭사용은 일방적인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반대학과는 분명히 다르다. 위계질서가 엄연하고 깨달음의 기초소양을 익혀야 하는 수행이 필수적인 곳이다. 강원에는 일반 대학이 흉내 내지 못하는 전통과 특성이 있다.

다행히 교육원이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원 결의를 통해 강원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반대학에 대한 학력 콤플렉스가 아니라면 승가대학이라는 명칭을 고수할 명분은 더 이상 없는 듯하다. 종법상의 명칭 정정 문제만 남았다.

불교와 아나키즘

자연론적 세계관 | 자주적인 개인
공동체의 지향 | 권위에의 저항

공통점 많다



◇불교환경교육원이 마련한 '에코 아나키즘' 강좌. 40여명의 수강생들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의 강좌, '에코 아나키즘'. 불교환경교육원이 운영하는 환경교육강좌(생명운동 아카데미)는 열다섯번째 주제로 '에코 아나키즘'을 잡았다. 이 강좌에는 대학 · 대학원생과 시민 · 환경단체 활동가 등 40여명이 동참했다. 4월 27일 '21세기, 왜 다시 아나키즘으로 오는가?'(구승회 동국대 윤리학과 교수)로 시작한 강좌는 매주 한 차례씩 열리며, 15일 막을 내린다. 13일에는 '에코 아나키즘과 21세기의 사회운동'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연다.

최근 우리 사회에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코 아나키즘 강좌도 그렇거니와 한국아나키즘학회의 창립(2월 17일), 〈아나키즘-국가권력을 넘어서〉〈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 등 관련 책자의 출판도 눈에 띈다. 〈불교평론〉은 '아나키즘의 불교적 특성'을 주제로 논단을 마련하기도 했다.

왜 아나키즘인가. 테러리스트, 니힐리스트 또는 '천진난만한 꿈의 옹호자' '뒤죽박죽의 혼란된 설교자'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역사 속에 묻혔던 아나키즘이 21세기의 벽두에 왜 주목받는 것일까.

한국아나키즘학회 김성국 회장(부산대 사회학과 교수)은 시민 · 사회운동의 이념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아나키즘을 주목한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이념적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가 현존하는 사회적 모순들(예컨대,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을 비롯하여 환경 및 생태 파괴, 여성과 인종 문제, 평화와 폭력의 문제 등)을 이론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사회 체제의 위기, 성장과 발전에 사로잡힌 가치관의 붕괴, 인간중심의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제 아나키즘은 새로운 시민사회를 추구하는 신사회운동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다."

최근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를 낸 조세현씨도 "아나키즘적 상상력은 21세기 우리의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한 값진 유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임홍순 교수(서경대 · 철학, 〈아나키즘-국가권력을 넘어서〉의 역자)는 정치 · 경제적 이유에서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의 출처를 찾는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상황이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에 겪었던 것과는 또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적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97년 말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과 통제를 받으면서 불어닥친 경제적 난관 가운데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정치가 당파적 이익에 몰두하여 그 어느 때보다 소모적인 심각한 정치적 분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그들이 꿈꾸어왔던 민주적 국가라는 국가의 정당성에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나키즘에 대해서 불온시하는 시각이 있음도 사실이다. 테러활동 참여, 국가를 비롯한 모든 권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를 좇는 사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렇게 보는 원인을 아나키스트들이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세현은 "아나키스트의 도덕적인 충동이나 건설에 대한 열정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여러 정치파벌들이 흔히 채용하는 테러의 방법을 그들만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책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옹호하고 있다.

현대의 아나키즘은 테러와는 거리가 멀다. 또 신채호, 간디, 톨스토이, 쏘로우 같은 이들을 아나키스트로 분류하듯 그 색깔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아나키즘이 지닌 특징을 자연론적 사회관, 자주적인 개인, 공동체의 지향, 권위에의 저항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 네 가지 특징이 불교와 맞닿는 지점이다. 종교와 사상체계라는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아나키즘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불교와 아나키즘은 모두 21세기의 사상적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방영준 교수(성신여대 윤리교육과)는 〈불교평론〉 봄호에서 아나키즘이 지니고 있는 '무집착의 논리' '권위에의 저항' '자연론적 세계관과 생태주의'를 불교를 불교이게끔 하는 공, 선, 연기론과 조응시켜 불교와 아나키즘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논리에 집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아나키즘의 사상 속에서 반야의 절대공의 체취를 맡고 있다. 또한 아나키스트들이 논리보다는 실천을 통해 자기수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반야의 실천성과 유사하다."

모든 강제적 규율과 권위 저항하는 것은 아나키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인간의 자율성과 자주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바탕하고 있다. "불교가 지구상의 종교 중에서 제일 저항적인 종교이며, 제일 권위를 싫어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방 교수는 "아나키즘의 사상 안에서 해탈의 맛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회 창립 · 잇단 강좌등 '열기'
NGO 운동 이념적 기반 제공

아나키즘이란
18세기 말 유럽서 이념화 탈 권위주의…자유 지향

아나키즘 하면 일제하 무장독립투쟁을 주창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떠오른다. 아나키즘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말에서 반대를 뜻하는 안(an)과 권위적인 통치를 뜻하는 아르코스(archos)에서 유래했다. 모든 강제적 권위에 저항하며 자유를 지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나키즘이 하나의 이념으로서 자리잡은 것은 18세기 말 유럽, 정치적 격동기에 자유와 연대를 기치로 내세웠다. 1930년 이후 사라진 이념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60년대 미국의 월남전 참전, 유럽의 학생운동 그리고 90년대 공산주의 붕괴 이후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가운데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환경운동이 세계적인 조류를 형성하면서 '에코 아나키즘'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여성운동, 공동체운동, 시민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30년 이후 맥이 끊겼던 우리나라의 아나키즘은 최근 대구, 부산 아나키즘연구회에 이어 한국아나키즘학회의 창립으로 아나키즘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번역한 것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였으며, 이를 빌미로 일본제국주의의 탄압을 받았다. 아나키즘에 대한 책으로는 〈아나키 · 환경 · 공동체〉(구승회 외, 모색) 〈한국 아나키즘 시와 생태학적 유토피아〉(김경복, 다운샘) 〈아나키즘〉(우두코크, 형설사) 〈아나키즘-국가권력을 넘어서〉(불프, 책세상)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조세현, 책세상) 등이 있다.

아나키즘은 공간적으로 서양의 산물이지만, 자연론적인 세계관과 생태주의적 성격은 불교의 체취를 물씬 풍긴다. "인간과 자연의 친교와 합일은 인간과의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욱 근본적"이라고 말한 쏘로우가 대표적이다. 방 교수는 아나키즘의 자연론적 세계관을 화엄의 생명철학으로 보고 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인연을 맺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주의 대생명을 조직하고 있는 모습을 〈화엄경〉에선 제망무애(帝網無碍)라고 표현하고 있다."

불교가 추구하는 대자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을 위해 아나키즘은 불교의 사유와 실천을 더욱 폭넓고 깊게 그리고 힘있게 밀어줄 수 있다. 여기에 불교에서 아나키즘에 관심을 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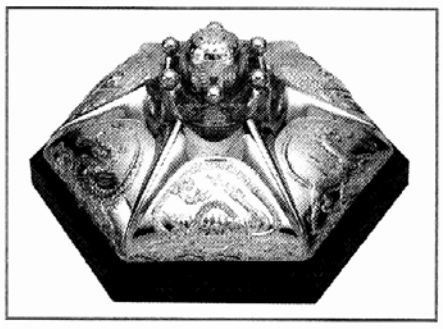
'불교와 아나키즘'을 신중하게 보는 시각도 많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은 "불교와 아나키즘의 관계는 불교와 인접학문과의 연계의 하나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아나키즘은 불교의 사유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실천을 보조하는 기제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보는 아나키즘이다"고 가닥을 쳤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소원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 청용(靑龍) (우) 백호(白虎) (남) 주작(朱雀) (북) 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가 격
1호 : 10만원
2호 : 20만원
골드1호 : 30만원
골드2호 : 40만원



육기방이 확 달라졌습니다

명당 육기(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라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점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神將)이 항상 수호해 주므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氣란?현실 입니다.
氣란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돌게하고 거짓말 같이 믿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이든 대도시 마을 가정을 보아도 좋은 기류가 흐르고 모이고 뭉친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모여들고 큰돈이 움직입니다.
명당육氣방은 氣가 뭉쳐 있으므로 가정에 놓아 두신분들은 기류에 따라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 나고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다하여법칙을 어기지말라." ◆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화목하다.
불행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 꿈의 게시 ◆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마루에서 빨래개지 하얀 옷을 입고 커다란 부처님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제를 부르며 빛아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불현듯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법집의 힘
1. 모여들게 하는 힘 2. 재산을 물고 들어오는 힘 3. 건강하게 자라는 힘 4. 부지런한 힘 5. 단결하는 힘 6. 정직한 힘 7. 자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당육기방은 벌집과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당육기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고, 돈이 많이 온다고들 하며,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육기방은 효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벌들은 좋은 명당에만 집을 짓고 삽니다.

❖말로써 메길말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속을 깊숙히 들여다보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속사정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가정에 꼭두십시오
항상가정에 천기와 지기 그리고 좋은 육기의 정기가 뭉치는 기운을 받게 해줍니다. 항상 근심걱정 없는 화목한 가정이 될 것 입니다. 언제 닥쳐올 줄 모르는 불행과 액운을 막아주고 항상 가정을 수호해주는 방패로서 사용하십시오.
항상 가정에 좋은 정기가 모이고 뭉치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불자님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 051) 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명당육氣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⑪

제16 범행품(梵行品)이다. 이 품은 게송이 없다. 대강의 뜻만 살펴본다면, 앞에서는 십주(十住)의 지위를 위주로 하여 행(行)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통틀어서 청정한 행을 말하고, 참된 지혜에 의지하여 여래의 열 가지 힘을 닦으므로, 관과 행(觀行)이 서로 어울리고 자비와 지혜가 원융하여 '처음 발심하는 자리에서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初發心時便成正覺)'는 돈오성불(頓悟成佛)의 사상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깨달음은 '철저한 자오자득(自悟自得)의 경계'라는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아니하여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처음 발심할 때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평등하고 수가 없는 법문을 말못하지만 중생위해 말하매 집착이 없네(了法自性如虛空하야 一切寂滅悉平等이며 法門無數不可說을 爲衆生說無所着이로다)."

다음 제18 명법품(明法品)을 살펴보자. 앞의 품에서는 초발심의 공덕을 말한데 이어 이 품에서는 정진혜(精進慧) 보살의 물음을 받고 법혜(法慧) 보살이 게으르지 않는 열 가지 행법(行法)과 이 행법으로 이루는 열 가지 청정한 법을 말하였다.

"어찌하면 사자처럼 두려움 없고 행하는 일 청정하기 보름달 같고 어떻게 부처 공덕 닦아 익히면 물 안 묻는 연꽃과 같사오리까(云何無畏如師子하고 所行淸淨如滿月하며 云何修習佛功德호대 猶如蓮華不着水니잇고) / 나아가고 머묾은 코끼리 같고 용맹하고 공포 없음은 사자 같으며 편안하기 태산 같고 지혜는 바다 같으며 가물 때에 소낙비 열을 식히듯 하네(進止安徐如象王하며 勇猛無畏猶師子하며 不動如山智如海하며 亦如大雨除衆熱이로다)."

여기서는 문답형식의 게송인데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맹하기 때문이요, 몸가짐이 여유롭고 편안한 것은 마치 코끼리 같다고 하였다. 선정을 많이 닦으면 청산처럼 요동이 없고, 지혜가 밝으면 한 여름 소낙비가 더위를 면하게 해주는 것처럼, 법의 비가 번뇌의 열을 식힌다는 의미이리라.

우리네 기후에 한여름이면 법당의 양초가 축 늘어지는데, 인도는 캘커타의 대교(大橋)가 휘청 엿가락처럼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들은 여름 석달도 덥다고 야단인데 인도나 열대지방의 살인적인 더위는 어찌 설명해야 할는지!

이렇게 제3회 설법을 마치고, 다음 호에서는 네 번째 법회 장소인 야마천궁으로 올라가기로 한다.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깨달음은 철저한 자오자득

밝은 지혜 바다같아 번뇌의 열 식혀

다음은 제17 초발심공덕품(初發心功德品)이다. 제16품에서 수행하는 지위를 갖추었으므로 훌륭한 공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니, 십주의 공덕은 한 계단보다 다음 한 계단이 더 훌륭함을 말하였다. 처음 발심한 공덕은 광대하고 끝이 없어 보현보살의 모든 덕을 포섭하였으니, 그 공덕이 법계와 동등하다고 말하였다.

"한량없는 큰 원력 부사의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케 하고 공하고 무상(無相), 무원(無願) 의지 없으나 서원의 힘으로써 밝게 나타나(無量大願難思議라 願令衆生悉淸淨하니 空無相願無依處를 以願力故皆明顯이로다) / 법의 성품 허공과 같은 줄 아니 온갖 것 고요하여 다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이를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하리라(於諸法中에 不生二解하면 一切佛法이 疾得現前하야 初發心時에 卽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 知一切法이 卽心自性하야 成就慧身호대 不由他悟하리라)."



그림 · 문병성

물질도 궁극엔 空과 만나

불교와 과학 〈30〉

이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2500여 년 전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물'이라고 했다. 당시의 어떤 철학자는 불이라고 했다. 어쨌든 오늘의 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유치한 답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질문이었으며 그 답 또한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 이전 사람들은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무슨 힘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가를 물었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 방식을 신화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계가 거북이 등에 업혀 움직인다거나, 거인의 손에 받쳐 들려진 것이라는 식의 설명을 신화적 세계관이라고 말한다.

그런 신화적 질문이 아니라 세계의 궁극적인 구성물질이 무엇인가 하는 과학적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었으며, 이로부터 서구철학과 과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탈레스에 이어 데모클리토스는 그 궁극적인 구성요인을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다는 뜻에서 아톰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러한 생각은 달턴이 근대적인 의미의 원자를 찾아낼 때까지 2000년 이상이나 서구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왔다.

근대과학은 사물을 구성하는 궁극적인 요소를 분자라고 했다. 18세기 말 화학자인 라부아지에는 물 분자가 산소와 탄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분자는 그보다 더 작은 원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물의 궁극적인 요소물질은 원자라는 생각은 이후 100년을 이어 갔다. 그러나 1899년 러더포드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우라늄이 두 가지의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중 한 방사선은 원자를 투과해야 하는데도 극소수의 방사선이 원자에서 튕겨 나오는 실험결과를 얻었다. 이런 방사선을 그는 알파선이라고 명명했다. 이 실험결과를 분석한 러더포드는 결국 알파 입자보다 무거운 그 무엇이 원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충돌하여 튕겨져 나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무엇의 입자는 원자 내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단단한 입자이며, 그것이 바로 원자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물질의 최종 구성요소가 원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자와 원자핵이라는 결론으로 발전하였다.

러더포드의 발견은 소립자 연구를 현대 입자물리학의 무대 위로 본격적으로 올려놓게 한 발단이 되었다. 이후 러더포드가 있었던 캐번디시 연구소의 젊은 연구자인 채드윅은 원자핵이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채드윅은 이 발견으로 1935년 노벨상을 받았고,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된 최종 요소가 바로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입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후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소립자들이 계속 발견되어 백여 개가 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수의 소립자들이 과연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입자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기본 구성물질이 그 수에 있어서 자꾸 많아지면 그것들을 기본 구성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드디어 1964년 겔만과 츠바이크는 독자적으로 마지막 구성물질이라고 생각했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보다 작은 쿼크라는 이름의 소립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6 종류의 쿼크와 전자를 포함한 6 종류의 렙톤이라는 기본입자가 물질 세계의 끝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질의 끝

과학 물질 기본요소 쿼크와 렙톤

불교 空한 존재 인연으로 형상화

지금까지 물질세계를 구성하는 소립자 발견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문제는 이런 소립자 발견의 역사가 아니라 물질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불교에서도 물질의 궁극적인 기본단위를 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극미(極微)의 단위이다. 극미는 가장 작다는 뜻에서 최세색(最細色)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최소단위로서 단순히 물질의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空)과 만날 수 있는 물질의 끝이다. 극미의 단위는 입자물리학에서 말하는 소립자처럼 당연히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극미가 소립자와 같이 최세색으로서 물질의 최소단위이면서도 소립자와 다른 점은 경험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연의 방식으로 극미의 단위들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극미의 묶임을 불교에서는 인연의 취집(聚集)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바로 색온(色蘊)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불교의 물질 단위의 이해는 입자물리학처럼 단순히 물질세계에 대한 끝을 찾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의 끝을 찾는 작업과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서구사유에서는 물질의 끝과 마음의 끝은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불교에서는 그 서로의 끝이 맞닿아 있다. 그것이 바로 공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극미는 아마도 앞으로 발견될 최고의 전자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혜안(慧眼)의 현미경을 갖고 있는 이라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chiak.sangji.ac.kr

케로악 육필 '노상에서' 20억원에 팔린다

지구촌 불교 / 美 불교소설 경매

미국의 대표적인 불교소설로 꼽히는 〈노상에서(On the Road)〉의 육필원고가 크리스티 경매시장(Christie Auction · 美)에서 150만 달러(약 20여 억 원)를 웃도는 낙찰가로 경매될 전망이다.

AP통신은 5월 27일 "1 ·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황폐해진 미주 및 유럽대륙 젊은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잭 케로악(Jack Kerouac, 1922~1969 · 사진)의 소설 〈노상에서〉의 육필원고가 크리스티 경매시장에 150만 달러로 공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카프카의 소설 〈심판(The Trial)〉의 육필원고가 1988년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198만 달러로 팔린 이후 소설 부분 최고가이다.

육필원고는 길이 137m 폭 23cm의 두루마리 형태로, 잭 케로악의 사망과 함께 그의 세 번째 부인인 스텔라 샘파스(Stella Sampas)에게 전해졌는데, 1990년 그녀의 사망 이후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보관하다가 최근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크리스티 경매시장에 나오게 됐다.



잭 케로악은 1950년대 전후 미국에서 거세게 몰아쳤던 '동양열풍'의 중심 기류를 이끌었던 소설가로, 〈노상에서〉를 비롯해 〈진리의 술통(Dharma Bum)〉, 〈거대한 만(Big Sur)〉, 〈지하에 사는 사람들(Subterraneans)〉 등의 작품을 통해 불교적 세계관을 펼쳤다.

잭 케로악이 1948년에 쓴 〈노상에서〉는 살 파라다이스(Sal Paradise)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여행하면서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그늘을 보고, 지금과는 다른 가치관(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눈을 돌려야 함을 깨닫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설은 당시 출판계의 관심을 끌지 못해 서지에 묻혀있다가 후기 작품들의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비평가들로부터 비트 세대(Beat Generation)를 대표하는 최고의 소설로 평가받으면서 1952년에야 출간될 수 있었다.

출판된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잭 케로악의 열성 팬들은 "네바다(Nevada) 주에서 발굴된 화강암에는 빙하시대를 견딘 침엽수의 화석이 있다. 이는 어느 시대이든 당대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으며, 그것을 찾아낼 때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인공 살 파라다이스의 독백을 애송할 정도다. 이 독백에는 동양의 진리 즉 부처의 가르침으로 미국을 새롭게 건설하자는 잭 케로악의 주장이 담겨있다.

비트세대는 미국의 50~60년대에 동양적 가치관에 몰두했던 젊은 문인 그룹으로 잭 케로악를 비롯해 알렌 긴스버그, 조안 키거 등이 주요 인물이다. 미국의 문화비평가들은 "냉전 속에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사상적 대립과 전쟁의 위협이나 자본주의로 팽배해진 물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동양적 삶의 태도를 통해 보여주었다"라는 말로 이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있다.

크리스티 경매시장 서지 담당인 쿠퍼(Cooper) 씨는 "완전한 형태의 육필원고이고 지금도 잭 케로악의 삶을 동경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 공시 금액보다 더 큰 액수에 낙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비트세대 영혼 달랜 최고 불서

"물질주의 폐해극복 동양적 삶 제시"



1차분 20권 완간기념 특별가 판매



• 판매기간 : 2001. 9. 15까지(정가:각권 9만원, 총180만원)
• 특별보급가 : 120만원(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1차분 수록대상(1996~2000년)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 직지사 · 월정사 · 화엄사 · 선암사 · 금산사 · 선운사 · 마곡사 · 법주사 등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및 박물관 7개 소에 소장되어 있는 1,621점의 탱화(3,674컷 수록)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 ·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했습니다.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저희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의 완간에 이어
2차분 20권의 차질없는 간행을 새천년의 원으로 삼아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고 또 2차분 회원이 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 석정 이사장 / 범하 원장 / 김현준
이사 / 무주 무현 동욱 태허 정우 명신 지현 정수 현기 우진
임창욱 홍윤식 장충식 손창길 조해수 조경숙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3, 701-6830, 6832 팩스 (02) 586-9078

『한국의 불화』 2차분 20권 불사에 동참을!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차분 20권을 편찬함으로써**, 이 땅의 독특한 성보요 전세계의 자랑거리인 우리의 불화를 총망라하여 **『한국의 불화』 총 40권을 완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매년 4권씩 발간하는 이 불화집의 편찬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불교계 전체의 일이요, 감히 한 연구단체에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부디 시방의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이 불사에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 회원 모집기간 : 2001. 9. 15까지
• 회원동참비 : 120만원 (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 회원이 되신 분은 20권 각 권마다 시주질(이름)을 밝혀 불연을 영구히 남깁니다.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 × 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회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사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 737-0695 Fax:02) 737-0696



◇쌍계사 내원골 바위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를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 선(禪)의 경지를 체험하는 산사문화체험 참가자들.



◇차 만들기 실습시간



◇쌍계사 팔영루서 선보인 법패시연.

쌍계사 국사암 '2박3일 산사문화 체험'

禪·茶·音으로 부처님과 인연맺기

20여불자 '진정한 쉼' 공부
구증구포 차 만들기 실습
가부좌 틀고 앉아 참나찾기
팔영루서 범패·찬불가 공연

5월 25일~27일 2박3일간 지리산 쌍계사 국사암에서는 선(禪) 다(茶) 음(音), 그리고 불교미술을 통해 불연(佛緣) 맺는 산사문화체험의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전국에서 모여든 20여명의 불자들이 사찰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온 몸으로 느껴보는 특별한 마당이었다.

우리 나라 고찰 가운데 전통의 향훈이 베어있지 않은 곳이 있을까만, 그 가운데서도 쌍계사는 차와 범패의 발상지로 이름 높은 곳이다. 특히 산내 암자인 국사암은 차와 범패를 보급한 진감국사가 주석했던 곳으로, 입구에는 진감국사가 심어놓았다는 사천왕수(四天王樹)가 도량을 지키고 있다.

5월 25일

저녁 8시 땅거미가 지리산을 덮어 어슴푸레한 쌍계사 국사암에서 '산사문화체험' 참선 지도가 시작되고 있었다.

"헐즉보리(歇卽菩提)라! 쉬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게 시간을 내어 이곳 지리산 쌍계사 국사암까지 오신 만큼 모든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푹 쉬도록 하십시오."

국사암 암주 월호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참가자들은 모두 가부좌를 틀었다. '진정한 쉼, 그 자리'라는 이번 산사문화체험의 주제를 마음 속으로 되뇌이며 모든 번잡한 마음을 쉬고, 자신의 성품을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다.

"개구리 울음소리, 이름 모를 새 소리, 물 소리, 바람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를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으십시오. 어떻게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지 자신에게 묻고 또 의심하다 보면 바로 참선이 되는 겁니다."

참선 시간이 끝나고 20여명의 참가자들은 국사암 마당으로 나왔다. 저녁 바람이 쌀쌀했지만 우리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공부하기 위해서다. 동국대 강사 유근자씨가 팔상도를 슬라이드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사찰에 자주 가면서도 그저 '부처님 일대기가 그려진 그림' 정도로만 알았던 팔상도의 종교적 의미와 회화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차츰 부처님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5월 26일

오전 8시부터 차 만들기 실습이 시작됐다. 이 곳 쌍계사 지역은 감대렴이 처음 차씨를 심었다는 차 시배지를 비롯해 화개지역 일대에는 야생 차밭이 조성되어 있다. 840년 당나라에 가서 선종의 법을 잇고 돌아온 진감국사(眞鑑國師) 혜소(慧昭)스님도 이곳 쌍계사와 국사암 주변에 차의 종자를 가져와서 심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국사암 주변도 야생 차와 울창한 대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는데, 오늘은 그 야생차밭의 찻잎으로 국사암 아래 효월 수제차에서 직접 구증구포의 차 만들기 실습에 나섰다. 3개 조로 나누어 직접 차를 덖고 비비기를 3시간여. 처음 몰기 가득했던 잎들이 그야말로 참새의 혀처럼(雀舌) 향기 그윽한 차잎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차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 줄은 몰랐어요." 창원에서 아빠와 함께 온 김공민군(중3)은 "옛날에는 이 차를 스님들이 직접 사찰에서 만들었다는데, 지금은 이 구증구포의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한다.

오후엔 쌍계사로 내려와 도량 곳곳을 다니며 스님의 설명을 들었다. 육조혜능 스님의 정상보탑이 모셔진 금당(金堂)에서, 참선이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참선의 본지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저녁 7시 쌍계사 팔영루, 이번 산사문화체험의 하이라이트인 산사음악회가 시작됐다.

진감국사가 중국에서 불교 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와 우리 민족에 맞는 범패를 만들어 많은 범패 명인들을 배출한 교육장이 바로 쌍계사 팔영루이다. 이처럼 의미 깊은 장소에서 전통 불교음악과 현대 불교음악인 찬불가, 판소리, 그리고 서양 고전음악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었다. 산사문화체험 참가자들뿐 아니라, 쌍계사를 찾아온 관광객과 참배객, 사중 스님들까지 3백여명이 산사음악회에서 환희심을 발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지리산 쌍계사의 밤도 깊어갔다.

5월 28일

오전 10시 2박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참선이 시작됐다. 짧은 시간 동안 이곳 쌍계사 국사암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체험하고, 깨달았는지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 한결 익숙해진 자세로 가부좌를 틀고 앉은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처음보다 단단해진 불심을 느낄 수 있었다.

쌍계사 국사암과 참선, 직접 만들어 본 우리 차, 우리 불교미술과 음악, 그리고 따뜻한 만남과 만남들….

참가자들은 이번 산사문화체험을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여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또다른 불교의 세계를 접하면서, 숨겨졌던 자신의 진면목을 살 한 복판으로 드러내는 깨달음의 시간으로 간직할 것이다.

글=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서양 고전음악을 연주한 니르바나실내악단.



◇차와 범패의 발상지 지리산 쌍계사에서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환희심으로 가득찬 참가자들.

인터뷰 산사문화체험 기획 월호스님

"사찰은 열린 문화공간이죠"



"반드시 사찰에 신도로 등록하고, 법회에 자주 참석하지는 않더라도 마음 속 한구석에 불교에 대한 호감과 향수를 지닌 이들이 많습니다. '심정적 불자'라 불리우는 이들에게 사찰의 문을 활짝 열고, 불교문화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도한다면, 궁극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다운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선과 차, 불교음악과 불교미술로 부처님과 인연 맺어주기에 나선 월호스님의 말이다.

몇년전 쌍계사의 참선수련회를 지도하던 중 꽉 짜여진 수행 일정으로 지친 수련자들에게 잠시 차와 불교음악을 소개했던 스님은 그것을 계기로 산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도하게 됐다 한다.

"정통 수련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합니다. 불교수행의 핵심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수행의 단계에 들어서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본사마다 특색 있는 사찰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야 합니다."

스님은 바쁜 도시인들이 잠시나마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앞으로 봄·가을 국사암에서의 1박2일의 산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또한 스님은 쌍계사와 국사암 주변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생각이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오색산야초떡



어린 수좌가, 이른 아침에 좌선에 들어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까지 끄떡 않고 있다. 이렇게 밤을 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눈을 감고 있는 수좌의 모습은 청량경(淸凉境)에 이른 비슬산의 아침 이슬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일연 스님으로 유명한 견명(見明) 수좌였다.

스님은 수행 중에는 음식이 번거로워 떡을 좋아하셨다. 비슬산 울창한 나무 밑이나 바위에 앉아 떡 한 덩이로 낮 시간의 허기를 면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떡을 놓아둔 자리에서 떡이 자꾸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일연 스님은 말년에 〈삼국유사〉를 집필키 위해 운문사에 머물렀다. 그런데 두통과 침침한 노안으로 집필에 큰 애로를 겪고 계실 즈음, 아침에 방문을 열어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구기자 떡 한 덩이가 목기에 담겨져 있곤 했다. 그 후,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가 날라오는 구기자 떡을 먹은 뒤부터 스님의 두통은 씻은 듯 가시고, 눈도 밝아지고, 기력과 총기도 회복되었다.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지만 떡 공양의 임자를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놓여져 있었다. "스님이 비슬산에서 수행하실 때, 스님의 떡을 훔쳐 늙은 어머니를 봉양했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 떡 빚을 갚는 것이오니 부디 찾지 마소서…."

구기자는 인삼, 하수오와 함께 정력을 강화시키는 3대 약재. 양생(養生)의 선약으로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늙지 않게 하며, 혈압과 동맥경화, 간장기능 개선에 좋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혈압 동맥경화 간장 기능 개선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홍(구기자 달인 물 1큰 술), 대추 달인 물 1큰 술, 쌀가루 2컵, 꿀 1큰 술, 청(당귀잎가루), 백(산마가루), 황(치자 우린 물), 흑(석이버섯가루)

요리법 ① 쌀가루에 꿀과 천궁 달인 물을 섞어 체에 내린 후, 오색 가루를 섞어서 다시 한번 체에 내린다. ② 쌀가루에 산마가루를 섞고 물 3큰 술을 넣어 골고루 비벼서 체에 내린다. ③ 쌀가루에 치자 우린 물을 넣어 비벼서 체에 내린다. ④ 쌀가루에 구기자 달인 물과 대추달인 물(또는 잉금)을 섞어서 넣고 비벼 체에 내린다. ⑤ 말린 석이버섯 가루를 참기름과 갠 후, 쌀가루에 섞어 물을 준 후 체에 내린다. ⑥ 오색으로 각층의 두께를 고르게 담아 젖은 한지나 면포를 깔고 대나무 찜 그릇에 쪄낸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㉞ 끝

文殊偈云 一念淨心是道場
문수게운 일념정심시도량
勝造河沙七寶塔 寶塔畢竟碎爲塵
승조하사칠보탑 보탑필경쇄위진
一念淨心成正覺 故知少時頃念無漏
일념정심성정각 고지소시십념무루
之因 雖三災彌綸而行業
지인 수삼재미륜이행업
湛然者也 非特修心之士
담연자야 비특수심지사
成其益也 以此功德
성기익야 이차공덕
上祝聖壽萬歲 令壽千秋
상축성수만세 영수천추
天下泰平 法輪常轉 三世師尊父母
천하태평 법륜상전 삼세사존부모
十方施主 普及法界生亡
시방시주 보급법계생망
同承法雨之所霑
동승법우지소점

또 〈문수게〉에 '한 생각의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이는 강의 모래처럼 많은 칠보탑을 만드는 공덕보다 훌륭하다. 보배탑은 결국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의 깨끗한 마음은 정각(正覺)을 이룬다' 하였다.

그러므로 잠깐이라도 번뇌가 없는 깨끗한 생각을 가지는 그 인연은 비록 삼재가 휩쓸더라도 수행의 업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히 마음 닦는 선비만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덕으로 위로는 성수(聖壽)만세하고, 태자는 천세하고, 천하가 태평하여 항상 법륜이 굴러가고 삼세의 스승과 부모와 시방의 시주와 널리 법계의 산 자와 죽은 자가 한 가지 진리의 비에 젖게 함이다.

永脫三途之苦惱 超入大光明藏
영탈삼도지고뇌 초입대광명장
遊戱三昧性海 窮未來際 開發蒙昧
유희삼매성해 궁미래제 개발몽매
燈燈相續 明明不盡則其爲功德
등등상속 명명부진즉기위공덕
不亦與法性 相終始乎
불역여법성 상종시호
庶幾樂善君子
서기낙선군자
留神思察焉 時明昌元年庚戌季春
유신사찰언 시명창원년경술계춘
公山曉居牧牛子 謹誌
공산은거목우자 근지

그리하여 길이 삼도의 고뇌를 벗어나 대광명에 뛰어들며, 삼매의 바다에 노닐면서 미래가 다하도록 몽매한 중생을 깨우쳐서 불법의 등불이 이어져 광명과 광명이 다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법성(法性)과 함께 영원하지 않겠는가. 바라나니 선(善)을 즐기는 군자는 정신을 차리고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명창 원년 경술년(1190) 늦 봄, 공산에 숨어사는 목우자 지눌은 삼가 쓴다.

至承安五年 庚申 自公山
지승안오년 경신 자공산
移社於江南曹溪山 以隣有定慧寺
이사어강남조계산 이인유정혜사
名稱 混同故 受朝旨 改定慧社
명칭 혼동고 수조지 개정혜사
爲修禪社 然勸修文 旣流布故
위수선사 연권수문 기유포고
仍其舊名 彫板印施耳
잉기구명 조판인시이

승안(承安) 5년 경신(1200년)에 이르러 이 결사를 공산에서 강남 조계산으로 옮겼더니, 그 이웃에 정혜사(定慧寺)가 있었다. 이름이 혼동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명을 받아 정혜사(定慧社)를 수선사로 바꾸었다. 그러나 권수문(勸修文)이 이미 세상에 유포되었기 때문에 옛이름을 그대로 판에 새겨 인쇄하여 널리 반포한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정혜결사문〉이 이번호로 끝납니다. 애독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호부터 무산스님(경주 해회선원 주지)의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선맥'이 연재됩니다.

한 생각 깨끗한 마음 바로 도량
수많은 칠보탑 공덕보다 수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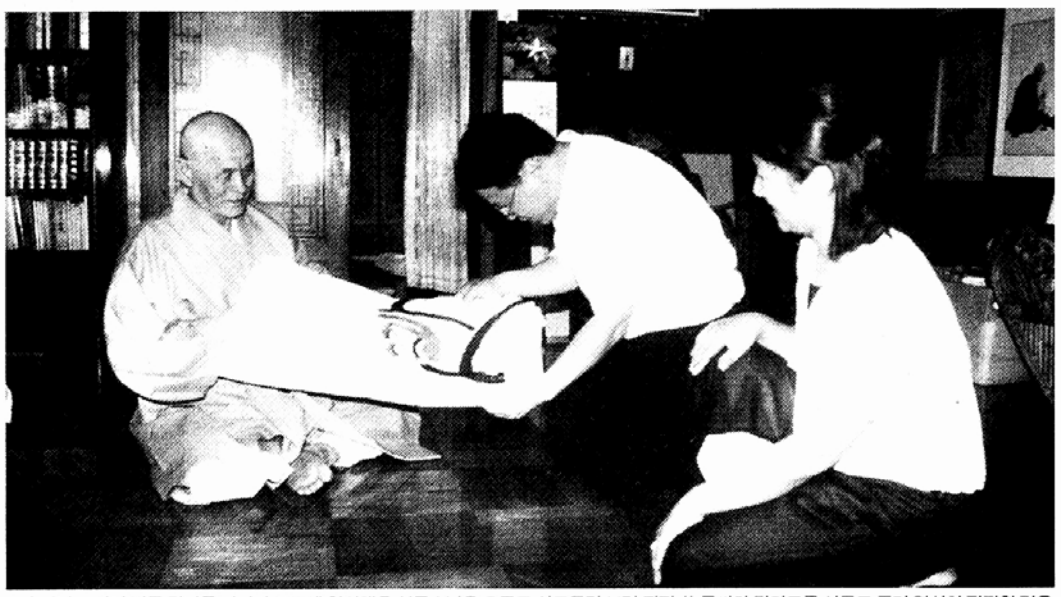
가까이서 뵌 큰스님

성공스님

부산 안양사 조실

"빚 갚는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분명 여긴 듯 싶은데 한편 아닌 듯 하여 다음 골목으로 들어서기를 여러번 한 끝에 도착한 안양사는 골목끝에서 돌연 나타났다. 안양사라고 벽에 써놓은 글씨가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지나칠 뻔 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알기 쉬운 안내표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도 체득하신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수많은 방편들을 펼쳐 놓았듯이 말이다. 안양사를 찾듯 단 몇번의 헤매임 끝에 불법의 궁극에 도달할 안내표지를 만날 수 있다면, 또 발견한 그 안내판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꾸준히 갈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으리라. 걸음을 재촉해 볼 일이다. 안내판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부지런히 가고 또 가 볼 일이다.



◇지난 50년간 전국 각지를 다니며 포교에 헌신해온 성공스님은 요즘도 신도들만 보면 직접 쓴 글씨와 달마도를 선물로 주며 열심히 정진할 것을 권유하신다.

문안으로 들어서 계단을 조금스레 올라가니 작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법당, 요사채, 공양간이 옹타리처럼 빙 둘러져 있다. 잎새와 꽃잎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마당에 수북하게 내려앉은 5월의 햇살속에서 49재 마지막재가 봉행되고 있었다.

"인연 따라 왔다 인연이 다하면 가는 것이 인간사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가신 영가 또한 그러합니다. 이 세상 인연이 다했으니 갔을뿐 더 이상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뜻밖에도 법상에서 영가 법문을 하시는 분은 성공스님이었다. 노구(76세)에도 불구 스님은 법문을 마친후 법상을 내려와 영가를 위한 축원을 잊지 않는다. 격식을 차리지 않은 편안함으로 영가를 보내는 가족들에게 이것 저것 일러주며 힘차고 맑은 음성으로 염불을 해 주셨다. 재를 마치고 나오시는 스님을 향해 합장으로 인사를 드렸다. 인사를 받기 바쁘게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쟁반에다 바나나와 음료수를 손수 챙겨들고 나오신다. 스님의 모든 움직임은 몹시 빠르고 민첩했으며 그러면서도 고요했다. 신도들은 스님의 움직임을 별반 의식하지 않는 듯 했다. 스님과 신도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친근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신도 한사람 한사람에게 공양을 권하던 스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양간에 간 듯 하자 예의 그 빠른 움직임으로 공양간으로 향한다. 스님은 안양사에 주석하시는 30여년 동안 단 한번도 공양상을 따로 받아본 적이 없다. 공양상을 따로 차려 스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리겠다고 여러번 여쭈었지만 "같이 먹으면 되지, 일없다"하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빨래도 그랬고, 청소도 손수 하고 계신다. 자신의 일을 남에게 기대는 것은 모든게 빚이라는 것이다. 얼마전 보다 못한 신도들이 세탁기를 사드렸으나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손으로 빨래를 하시고 방을 청소하고 마루를 걸레로 훔쳐내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한다. 그러한 스님의 모습은 함께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없는 가르침이 되고 있다.

공양상 따로 받지 않고 빨래 · 청소도 손수
남에게 기대살면 빚

스님은 독송테이프가 전혀 없던 1973년, 금강경 독송 테이프를 제작해 금강경의 가정 보급에 큰 역할을 해오신 분이다.

"36년전 오대산 상원사에서 여름 한철 기도를 했는데 하루 12시간을 꼬박 기도만 했었지요. 어느날 오후 기도를 마치고 법당 청소를 하고 문을 열고 나오니 열일곱 살 쯤 돼보이는 청년 하나가 서 있어요. 그래서 청소한 찌꺼기를 버리고 자세히 볼 양으로 다가가니 그만 온데 간데가 없어요. 그곳은 문수동자를 친견한다는 말이 전해져 오던 곳이었는데 아마 문수동자님을 겉모양으로만 그렇게 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10시쯤 마루에 앉아 정진중인데 맞은편 산에서 둥그런 불이 50m쯤 이동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더군요.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다음날 그곳을 가보았죠. 아무 흔적도 없는데 마음에서 '산삼이 있는데 산신기도를 하면 산삼을 캘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그래서 7월 초순 산신기도를 3일 했는데 중이 산삼 캐러고 기도하는게 자존심이 상해 금강경을 읽었지요. 일심으로 금강경을 읽은 후 그곳에서 산삼을 캐서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읽게 된 것이 매일 읽게 되었죠. 그 후 포교당에서 내 독경소리를 들은 신도들이 자꾸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그만 독송 테이프 제작을 하게돼 버렸지. 많은 사람들이 내 독경을 듣고 신심을 내 더욱 정진하게 됐다면 산삼을 먹은 은혜를 조금은 갚은 셈이지, 허허허"

이처럼 심상치 않는 일화를 갖고 시작되어 스님의 일상이 되었던 금강경 독송은 한국불교 사상 처음의 독경 테이프 제작으로 이어져 마을 마을 마다 부처님 가르침이 울려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강경을 자주 읽다 보니 금강경의 요체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질의 세계는 전부 '사'거든. 그 '사'를 깨뜨리면 저절로 정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거든. 물질의 세계속에 진공의 세계가 다 들어 있는 이치와 같지요. 일체유위법과 무위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위법을 깨뜨리면 도달하는 곳이 무위의 세계입니다. 물질인 머리카락 하나에도 진공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 물질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를 깨뜨리고 그 속의 진공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간단한 예를 들면 물위에 뜬 빈병이 물질의 세계라 하고 물을 진공의 세계라 하면 병을 깨뜨리면 물이 그 속에 들어오는 이치입니다. 저 법당 앞에 핀 붉은 꽃속에도 진공의 세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이 뼈, 근육, 피부 등 물질로 이루어 진 것 같지만 그 속에도 진공묘유의 진리가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물질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그 물질에 집착한 마음만 깨뜨리면 곧바로 진공의 세계와 만나게 되어요. 구름을 벗겨주면 곧 환한 달을 보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물질에 집착한 마음을 깨뜨려 물질과 둘이 아닌 진공의 세계를 바로 보려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세계를 파하는 파사현정의 길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물질을 깨뜨리면 진공의 세계를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가진 얼마 안되는 물질의 세계마저 잃을까 연연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보면.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 육임래정비법 -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묻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단원의 시간만 펀서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관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천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집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앎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너에게 이익주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익한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어다란 보면 앞 수 있도록 揭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血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前面上課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묻는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치유기 순조로울지 더딘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너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출설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낮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낮게 보실 수 있는 오늘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玄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器·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函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1960페이지·미삭용지·음셀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러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원,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 문 대표 김 나 러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하문심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蔔卜子 晩吳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 식물원에서 산성쪽으로 100m쯤의 「기원정사」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

▶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붙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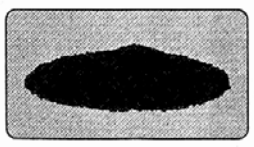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2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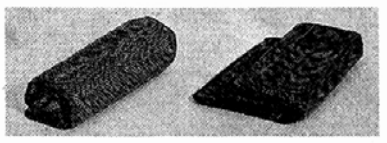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괄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4kg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 금 주 : 김 남 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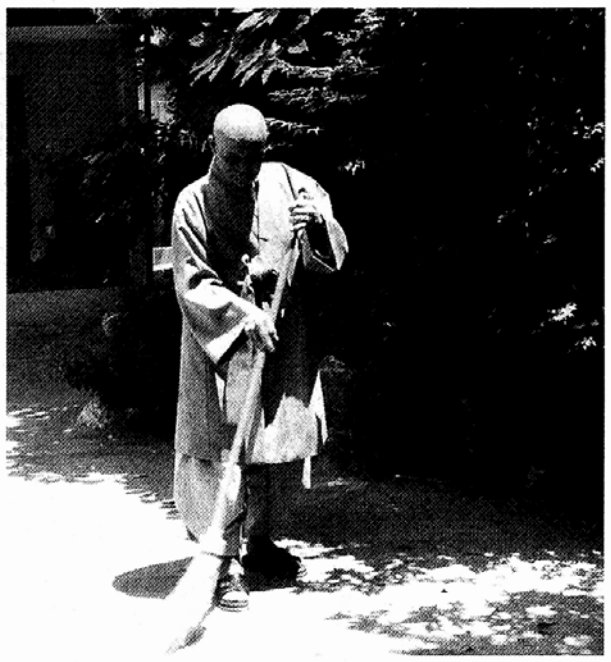
성공스님은?

전국 포교당 돌며 전법 경전 독송테이프 제작



1926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신 스님은 1941년 운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43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들어서기전 스스로의 수행을 위해 49년 금정선원 하안거 성만을 시작으로 정혜사, 도리사, 상원사 등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단했다.

이후 55년부터 충무포교당, 충무용화사, 마산 포교당을 맡아 포교에 주력하는 한편 전국 각지를 다니며 법문을 하는 법사로도 유명하다. 특히 스님의 법문은 풍부한 예화와 뛰어난 유머 감각이 돋보여 전국 각지에서 스님을 초빙하는 곳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수 76세인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법문을 하러 전국을 다니고 있을 정도. 이같은 법문을 통한 포교외에도 73년에는 금강경, 부모은중경, 천수경, 아미타경 등을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해 가정포교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71년 이후 안양사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지금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간단한 운동후 새벽예불을 모시는 것을 빠뜨리지 않으며 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무슨 일이든 손수하시고 검소한 성공스님의 일상은 주위 스님과 신도들의 귀감이 되고있다.

"예수재 의식 지냈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생활을 늘 예수재로"

"지금 사람들 살아가는 것은 안개속을 걸어가는 형국입니다. 안개속에서는 자기자신만 보이지 옆의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안개가 짙으면 짙을수록 옆은 더 안보이죠. 여기서 안개란 자기 욕심이고 이기심이며 사리사욕입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 차면 안개처럼 자신의 눈을 가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기심을 전환해서 이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모두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기심, 사리사욕을 파하는 것이 파사(破邪)라고 보는 것이죠."

공양을 마친 신도들이 한사람 두사람 스님이 앉아 있는 마루에 올라올 때 마다 반갑게 맞아 주신다. 어려움없이 대해주시는 친근감 때문인지 신도들의 왕래가 아주 자유롭다. 4년전부터 스님을 모시고 있는 각진 스님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가리는 법이 없으며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또 걸인이 와도 한결같이 반갑게 맞아주는 걸 보며 배우게 된다"고 했다. 실제로 스님의 방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다. 누가 찾아오든지 반갑게 맞으며 평소 그려놓은 달마상이나 난을 선물로 주시고 신심을 고양시키는 법문을 해주시는 등 포교를 멈추지 않으신다.

스님은 출가이후 53년동안 큰절 주지 한번 맡지 않았다. 오로지 각 지역 포교당 주지직을 맡아 법사로서 법문하는 것을 전부로 알고 지내왔다. 어느 곳이든 법사로 초청하는 곳이면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갔고 심지어 4년전에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에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룡사까지 가서 법문하기도 했다. 그때를 회고한 안양사의 한 신도는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펄쩍 뛰는데 법문을 하다가 쓰러져 열반에 드는 한이 있어도 가야 한다며 가시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며 스님의 포교에 대한 열정에 고개를 내둘렀다. 제방 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한 스님이고 보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철저한 면모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랜 수행정진의 결과 '혼자서만 성불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며 지혜를 닦으면서 반드시 전법을 하고 복을 지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겨났고 그것이 바로 전법의 행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신 스님은 새벽예불, 사시예불을 빠뜨려 본적이 없고,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법문을 다니신다. 법문을 통한 포교도 모자라 이제는 평생 모은 시줏돈으로 '관음원'이라는 복지재단을 설립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로원을 지어 물질과 마음을 두루한 회향도 준비해 놓은 상태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은혜 갚으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도리입니다."

양로원 불사는 효를 행하지 못하는 세인들을 일깨우는 일이며 부처님 은혜 갚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하다.

"요즘 스님들은 불사도 많이 하고 법문도 잘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방편임을 알아야 해요.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이 다 방편이니까요. 거짓말의 이름이 세가지가 있는데 남에게 해를 주는 거짓말을 사기라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것은 수단이라고 하고 남에게 해도 주지 않고 자신의 이익도 꾀하지 않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100%로 전부 남을 위하는 것이라야 방편이라 할 수 있어요. 스님들의 경우 전부 중생 제도를 위한 마음이어야 비로소 방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스님네들은 방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신도들에게 해를 주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아무리 큰스님이 큰 불사를 한다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은 방편이 아닌 사기요, 수단일 뿐입니다."

"대형불사 한답시고 다른 사람에 피해주면 방편아닌 수단돼요"

윤달 예수재에 대해 신도가 질문을 하자 스님의 대답은 명쾌했다.

"윤달이라고 생전예수재를 많이 하는데 예수재라는 뜻 그대로 미리 두는 수행을 하자는 것인데 닦는 일을 윤달에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몸 받아 인간세상 나올적에 명부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진 빚을 내 몸 살아 있을 때 갚는다고 해서 예수재인 것이고 천도재는 돌아가신 후에 자손들이나 다른 사람이 갚아 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하는 천도재보다는 살아 있는 동안 내가 내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예수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의식의 예수재를 지냈다는 자체만으로 만족하기 보다는 일상생활 자체가 예수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빚갚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수재에 대한 법문을 이어가던 스님은 신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육조스님의 이야기를 하셨다.

"육조스님이 길을 가다가 잠을 자는데 강도가 들이 닥쳤어요. 육조스님은 강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돈을 준비해 두었거든. 강도가 칼을 들이대니 육조스님은 준비해 둔 돈꾸러미를 건네면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빚진 적은 있지만 목숨은 빚지지 않았으니 이 돈을 받고 그만 가시오' 했거든. 그처럼 우리는 우리가 기억은 못해도 많은 것을 빚지고 이 세상에 왔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온 이후로도 보리쌀을 빌렸으면 보리쌀이 빚이 되고 돈을 빌렸으면 돈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이,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이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을 사는 것이 곧 그 빚을 갚겠다는 정신 하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넓은 의미의 예수재라고 스님은 강조했다."

모든 불자들은 살아 있는 매일 매일이 예수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진 빚을 갚겠다는 마음이 철저해지면 나중에는 진 빚을 갚고도 남아 나중에는 저금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금이란 다른 말로 하면 복짓는 것을 말합니다. 막연히 나중을 기약하면서 오늘 힘쓰지 않거나 다음 생을 말하며 이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직 잠도 들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꿈을 꿀 것인가를 물으며 꿈꾸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니 오늘 부지런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 원타스님



해인사에는 산내 암자가 16개 있다. 그 중에 청량사는 해인사 경내에 있지 않고 매화산과 접해있는 천불산(일명 남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산기슭에 버려진 듯 폐사 직전의 초라한 암자였는데, 원타 스님이 주지를 하면서 중창의 원력을 세워 지금의 모습으로 일신하게 되었다. 짜임새 있는 가람의 규모나 불사의 내용으로 볼 때 원타 스님이 아닌 그 누구도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원타 스님은 평소 매우 과묵하다. 그러면서도 주변을 두루 살펴 챙기는 모습이 마치 맏형 같다. 스님은 수좌 생활을 하면서도 종단과 해인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크고 작은 소임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에 두루 밝다.

해인사에서는 매년 2번, 산중 대중들이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에 용맹정진을 한다. 7일동안 잠을 전혀 자지 않고 용맹정진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살벌할 정도로 엄하다. 어느 산중이던 안거 기간에는 용맹정진을 하지만 특히 해인사는 전국 사찰 중에서 대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더욱 활기가 있다. 성철 큰스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학인들과 신참들은 용맹정진 시작전날 3000배 절을 한 후 용맹정진에 합류하게 했다. 바늘 끝만 스쳐도 도 통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

이·사 두루 밝아 소임 철저 안거 회향 5백명 대중공양

감으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는 온 도량을 뜨겁게 달구게 된다. 용맹정진은 행자에서부터 방장스님에 이르기까지 산중의 모든 대중이 함께 한다. 행자는 후원에서 하고 정진대중은 좌복 위에서, 소임자들은 소임처에서 한다. 이 기간동안에 다리펴고 편히 누워 자는 사람은 대중 아니기를 각오해야 한다. 예전에 어린 사미승이 용맹정진하던 3일째 되는 날 홀연히 사라졌다. 짐 싸 가지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 도대체 행방이 묘연했다. 용맹정진 중이라 달리 곳곳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나타나기만 하면 참회시킨 후 산문 출송을 시키려고 별렀다. 용맹정진이 다 끝나도 나타나지를 않았다. 급기야는 대중들이 온 도량을 샅샅이 뒤지며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미승이 쌀 뒤주 안에서 5일 동안 깨지도 않고 죽은 듯이 자고 있었다. 달랑 안아다 조실 스님 방에 편히 재웠다.

이렇게 7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고 나서 회향하는 날은 모든 대중들이 산행을 한다. 산행코스는 해인사에서 출발하여 신부락을 거쳐 남산을 타고 가서 청량사에 도착 후 점심공양을 한다. 점심공양 후 큰절로 돌아오는 팀과 다시 남산을 거쳐 가조에 있는 고견사로 넘어가는 팀으로 나누게 된다. 청량사의 대중공양은 특별하다. 원타 스님은 해마다 2차례 씩 500여 대중의 용맹정진 회향 대중공양을 흔연한 마음으로 며칠씩 준비하여 차려놓고 대중들을 지극히 외호한다. 원타 스님이 다른 곳의 선원에 결제하러 가서 사중에 없을 경우에도 이 대중공양 만큼은 꼭 챙긴다. 산중에 살다보면 대중공양을 가끔씩 내는 것이 생소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원타 스님이 용맹정진 회향 때 내는 대중공양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된다. 그 준비 과정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것이 매우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결코 겉치레나 체면치레로 하는 공양이 아니다. 부처님께 수자타가 유미죽 공양을 올리던 것 같은,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고 느낌이 있는 공양이다.

원타 스님은 출가이래 지금껏 좌복을 떠나본 적이 없는 수좌이면서도 종단과 해인사의 소임을 몇 차례 본적이 있다. 해인사에서 총무와 재무소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재무소임을 보다 한철이 지난 후 간단한 메모 한 장만 남기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내용인즉 "숫자만 보면 머리가 띵 해지고 골이 아파서 더 이상 재무소임을 볼 수가 없다. 이제 사중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니 다



시 좌복 위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그후 또 다시 마지못해 총무소임을 맡게 되었는데 두 철이 지난 후 극구 소임을 사양해도 뿌리치기가 어렵자 어느날 홀쩍 인도로 떠나 부다가야에서 정진을 하다가 그 이듬해 돌아왔다. 소임이나 직위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소임을 맡게되면 종단의 상황과 사중의 대소사 일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남다르다. 흔히 재무나 총무 같은 소임을 맡게되면 데데해지고 그만두기 싫어하기 일쑤인데, 원타 스님이 어느날 소임을 버리고 정진을 하기 위하여 홀쩍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성철 큰스님 문하에 입문하여 그분의 칼날 같은 정진 일념으로 훈습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간혹 도반들이 어떠한 사안으로 옥신각신 논쟁을 하는 때에는 한참동안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제 그만 치아라. 중이 무신 놈의 이론이 그래 번다하노" 나무라며 말리고는 한다. 수행자로서의 정진 이외의 세속적인 삶의 가치를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수좌, 그가 이번 결제부터 조계종립 선원인 문경 봉암사 주지를 맡아 수좌들의 정진 생활을 외호하게 되었다. 늘 솔향기 같은 수행자의 담백함과 진솔함을 지닌 원타 스님이 있기에 봉암사의 솔바람소리는 더욱 청아할 것이다.

▩정취암 한주

진성 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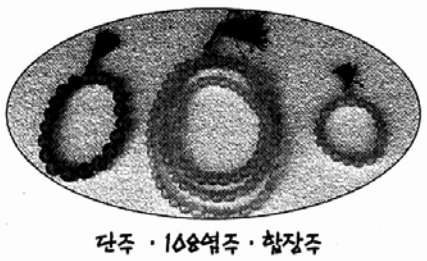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청 옥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새 천년의 불국 정토를 역어갈 십층 보탑과 오백나한 부처님 및 10층 오백 보탑과 오백지장 부처님 봉안 대불사 안내


말법중생을 제도하고 모든소원을 들어주는
나한부처님과 10층보탑 각한조에 일금 35만원


사람으로 왔다가는 영가와 중음신을 제도하는
대원 본존 지장부처님과 10층보탑 각 한조에 일금 35만원

※ 본 종단의 뜻을 같이하고 만중생을 제도할 달마종에 몸을 담고자 하는 도반과 인연있는 후원자 및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귀의삼보하옵고.
한국불교 달마종 총본산 달마선원에서는 2001년 새천년이 시작되고 천년에 한번드는 신사년 계사월이 뱀이 몸은 하나요 머리는 둘이되는 금년 윤달에 나한부처님과 지장보살님과 십층보탑을 봉안 불사에 동참한 인연자는 죽어도 죽지않고 늙어도 늙지않으며 시공을 넘어 초연의 경지에 도달하여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일들이 몽땅 이룰수 있는 대작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대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구 창조와 더불어 사람으로 태어난 침륜과 자성이 삼독의 번뇌로 오염된 업장과 병고에 고통의 숙박을 벗고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영겁의 윤회로 악연과 고통의 굴레를 벗고 다시 태어나는 거부장자 귀족의 밝은 지혜의 몸을 받아 태양과 같은 몸으로 태어나 후천미륵달마법도로 세계평화와 종교 통일을 위하여 불국정토를 만들 수 있는 자기부처와 자기 정성이 모아진 10층 보탑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 시를 새겨 넣어 변하지 않는 금강이 오욕에 오염된 업장을 벗고 전미개오의 대보살도로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혼을 바로잡고, 지구촌 종교의 이그러진 법도를 진작시키어 활연개오의 새로운 불국정토세계의 법연이 멸하지 않는 증산대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후천미륵 달마 부처님명호로 가름하오며 삼재팔란 소멸과 소원성취 하시옵소서.
기도 중 제일 빠른 기도는 7일 나한기도이며 조상의 명멸 영가와 중음신제도는 10일 지장기도이며 해도해도 안되는 일이 즉시 이루어지는 불사는 16나한 조성불사요 사람 몸 받고 왔다가는 영가의 보답은 지장 부처님과 10층 보탑을 조성하는 불사인 것입니다. 다같이 불사에 동참하시어 천년의 한번드는 지혜의 10층 보탑과 오백나한 오백지장 봉안 불사임을 명심할지어다.

불기 2545년 윤사월 초하루

■ 온라인 번호 ■ 성명 : 곽태일
농협 029-01-167866 하나 은행 157-015402-00108

예약문의 : 02)821-6622 / 821-7767
F.A X : 02)821-7768 / 016)239-3110

한국불교 달마종 총 본산 약사도량 달마선원장

신작 무용 '빨간 부처' 15·16일 LG아트센터

'왜 고뇌할까' 인간 탐구

전각-점토 등 소품 활용 동양정신 무대속으로

독특하고 세련된 안무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무용가 홍승엽씨(댄스시어터 온 대표)가 신작 '빨간 부처'로 관객을 찾아간다. 15일~16일 서울 강남 LG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부처는 무엇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현실과의 괴리,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반향(反響)에서 고뇌하는 인간을, 선명한 색감과 연극적 몸짓으로 풀어나간다.

댄스시어터의 간판 무용수인 이광석, 김선이, 이진우, 김용화, 남도욱씨 등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제1장 '꽃과 진흙과 방석'에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과 진리 그 자체인 자연을 대비시키는 내용이 명상적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며, 제2장 '똥과 부처'에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진 빨간 부처를 표현한다. 마지막 제3장에서는 고이는 것과 흘어지는 것의 묘리를 '반다라와 바람'을 주제로 삼아 선보인다.

"작품 속에서 빨간 부처는 고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을 선택한 것은 도발적이고 정열적인 이미지가 바로 세속의 속성을 대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습니다. 현실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뇌하는 사람을 빨간 부처로 설정한 거죠. 춤을 통해서 자신의 조각을 하나 하나씩 맞추어 가는 과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고유의 정서, 즉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 보겠다는 게 홍씨의 안무 의도다. 춤의 주제는 자못 무거운 듯 느껴지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해학적인 발상과 위트 섞인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는 재미를 안겨줄 계획이다. 이는 홍씨의 안무가 대중적 인기를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칫 관념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자 무용수들에게 개별적인 동작을 부여하고, 속세라는 상징으로 설정된 점토 및 분양 디자인 등의 소품에도 독자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14경의 무용수가 진흙으로 80여개의 부처상을 빚어내며 춤을 추고, 애써 만든 부처상을 다시 발로 뭉개며, '반야심경'이 초서로 쓰여지는 영상이 투시되면 획의 리듬을 따라 춤 동작을 구사하기도 하는 등 새롭고 실험적인 표현들이 시도된다.

이를 위해 전각 분양디자인 최규일, 점토 디자인 신이철, 영상 디자인 서양범씨 등이 참여해 동양적인 표현 기법을 통한 우리 현대 춤의 영역확장을 꾀한다.(02)2005-0114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무용가 홍승엽 씨는 이번 작품 '빨간 부처'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선명한 색감과 연극적 몸짓으로 펼쳐보인다.

음악-춤-의상-조명 '일체화'

빛소리 빛사위 빛맵시

한모음 실내악단 여섯번째 연주회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한국적 음악을 추구해오며, 중견연주단체로 성장하고 있는 한모음 실내악단이 창작곡과 춤, 의상, 설치미술, 조명으로 일체화된 빛의 합주 '빛소리 빛사위 빛맵시'를 11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96년 창단 이후 12곡의 창작곡을 발표하며 국악 실내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온 한모음 실내악단이 마련한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로, 음악과 무용, 패션 등 저마다의 분야에서 불교와의 접맥을 시도를 해오고 있는 이들이 뜻을 모아 이룬 실험적 무대다.

음악 작곡은 윤소희교수(동국대 국악과)가 맡았으며, 한모음실내악단의 윤문숙, 장은선, 송안나씨가 윤교수의 창작곡을 해금, 거문고, 가야금을 중심으로 연주한다. 설치미술 및 의상디자인은 불교적 소재들을 패션에 옮기는 작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이기향교수(한성대 의류학과)가 무용은 백현순씨(대구무용단 대표)가, 조명은 김창기씨(용인대 강사)가 맡았다.

총 5개의 곡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다겁생래(多劫生來)의 수행을 통해 보통 사람도 부처와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작품 전체의 주제.

첫곡 '시방세계 부처님께'는 소멸되는 과거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가는 윤회와도 같은 우리나라 전통가곡을 새로운 선율과 장단에 실었다. 거듭되는 윤회속에서도 항시 부처님을 만나 진리를 향해 가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곡인 '십우도' 1,2는 선(禪)의 십우도를 모티브로 구도의 과정을 상징화했으며, 세 번째 곡 '아득한 옛날부터'는 석가모니의 전생이야기 중에서 지극한 구도자였던 선혜청년의 이야기를 해금독주곡으로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 곡인 '회향'은 무한한 법열(法悅)의 세계를 모든 중생들과 함께 누리자는 뜻을 살리기 위해 밝고 경쾌한 대중적 악풍으로 전개했다.(02)575-0432

이은자 기자



◇김성환 씨의 '거지도 자가용으로 영업'.

풍자와 상상력의 세계

'아시아 만화전' 세종갤러리

'만화로 보는 세상이야기-아시아 만화전'이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갤러리에서 열린다.

경제 성장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1990년대의 아시아를 돌아보는 내용으로 꾸며진 이번 전시는 아시아 9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을 대표하는 유명 만화가들의 만화 90여점이 선보인다.

출품된 작품을 살펴보면 김성환의 '거지도 자가용으로 영업'은 한국사회에 만연된 자가용 소유를 풍자한 내용이며, 모리타 겐지(일본)의 '무(無)의 경지(境地)'는 문명의 이기가 공해로 바뀌는 현실 사회의 단면을 꼬집었다. 미야오 인땅(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주임만화가)의 '예인'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 TV가 보급되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관계의 문제점을 풍자한다. 이밖에도 기발한 상상력과 특유의 필치로 아시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익살과 유머로 그려 보인다.(02)2212-2820

문화단신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관광부의 6월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는 모두 55개 문화예술단체가 전국의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일~21일 충남 서산 해미읍성, 경남 남해문화회관 등지에서 '찾아가는 박물관'을 열어 신라시대 토우 등 복제 유물과 조선시대 풍물화 패널을 전시한다. 아미치예술단은 16~30일 용인정신병원 화성은혜원에서 성악곡을 들려주는 '음악치료를 위한 음악회'를 연다. 또 국립무용단이 20일과 22일 거창과 진주문예회관에서 '우리 춤의 맥을 찾아서'를, 국립창극단이 26일 거창군에서 '명진사대 경사'를 무대에 올린다.

풍경소리 홈페이지 단장

좋은 벗 풍경소리가 홈페이지를 단장했다. www.budson.or.kr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정보센터의 지원으로 새로 선보인 홈페이지에는 〈찬불동요 창작곡〉 1집~11집과 〈봉축기념음반〉 등 2백여 곡의 노래와 반주 음악을 mp3 파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풍경소리는 홈페이지 개설과 더불어 최근 발표한 〈법회의식곡집〉을 일반 음반매장에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찬불가 보급에 나선다.

김해자씨 누비 특강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기능보유자 김해자씨가 경주 탑동 누비공방에서 누비 특강을 연다.

'전통누비를 위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특강은 오는 16일~17일 첫 강좌로 애기조끼 만들기를 한다. 이 모임은 매달 셋째 주말에 손쉬운 소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우리 전통누비의 아름다움을 전한다는 계획이다.(054)775-2631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모든 작가들이 가장 고심해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일까?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취급되는 문학적 주제는 '사랑'일 것이다. 그러나 통속문학 작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해 글을 쓰는 작가라면 그가 평생을 매달려 풀려고 애쓰는 인생의 근본문제 중의 하나는 '시간'이라는 테마인 것 같다. 실제로 대부분의 세계적인 문호(文豪)들은 하나 같이 시간이란 주제를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시간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누구나 생이라는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면 결국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간이라는 블랙홀과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생사의 문제는 논리를 뛰어넘어 체험과 깨달음의 세계에 속한다. 일체 중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간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인류의 큰 숙제로 남을 것이다. 수많은 사색인들이 파고 또 파왔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인식의 샘인 시간은 지금도 우리에게 실존의 자각과 자아의 성찰로 이끄는 문이 되고 있다.

문학적 주제 '시간' (1)

인간과 우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대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면, 모든 문명과 사회 그리고 나아가 종교의 성격까지도 명확히 드러난다. 불교는 인생을 윤회를 거듭하는 원형적(圓形的) 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원으로부터의 이탈이 곧 고(苦)로부터의 해탈이라고 보았다. 중동의 사막에서 유목민들에 의해 탄생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시간을 천지창조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의 유한한 직선으로 보았다. 최신 과학에 있어서도,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역사〉에서 밝힌 것처럼 시간은 우주 생성의 비밀을 해결할 열쇠로 등장하고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하이데거와 화이트헤드 등도 모두 그들의 사유를 시간의 문제에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서구문명은 기독교의 직선적 시간관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 유한성을 비판하였다. 비판적 이성의 조명 앞에서 시간의 문을 닫을 '최후의 심판'이 증발되어 버리자, 시간은 무한한 직선의 형태를 띠는 '역사적 시간'이 되었다. 역사의식이야말로 모든 현대인의 마음에 찍힌 낙인이다. 시간의 직선적 역사성에 대한 맹신은 현대인을 '진보', '선진', '전위', '혁신'의 바람 앞에 내몰고 있다. 그 바람을 일으키는 엔진은 '과학기술'이다. 바야흐로 현기증 나는 '속도'의 시대 한 복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은 인간과 사회와 우주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모든 정신적 체험은 '시간체험'으로 환원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는 곧 '인생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좀 거칠게 말한다면 모든 문학과 종교경전의 핵심도 시간에 대한 해설로 축약되고, 깨달음이나 구원도 결국 인간의 '시간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계속)

불문학명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30,000원)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8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262cm(길이)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1,40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 32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철학자로 평생 후학을 지도해온 김승동(62·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16년간의 노력 끝에 <불교·인도사상사전>(부산대 출판부)을 펴냈다. 우선 불교와 인도 사상을 포괄하는 방대한 규모의 사전을 불교학자가 아닌 철학자가 냈다는 점이 이채롭다.

16년 노력…"불교학 발전 밑거름 기대"

'불교·인도사상 사전' 김승동 교수

2,351쪽의 두툼한 부피에 담긴 표제어는 18,530여개. 불교 및 인도사상 연구·검토·활용에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상·인물·문헌을 모두 수록했다. 인도·중국·한국·일본 불교 관련 용어를 모두 찾아 정리했을 뿐 아니라 쉽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어 일반인들도 접근 가능하다. 특히 불교의 경우 한국불교의 실태를 적극 반영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표제어의 출전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에 관한 설명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전통강원의 학제 및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언급할 정도다.

〈불교·인도사상사전〉은 김 교수가 이미 펴낸 〈도교사상사전〉 〈역사상사전〉에 이은 세 번째 동양철학 사전으로, 일본 중국 등의 18개의 사전과 불교경전을 토대로, 김 교수가 직접 표제어를 뽑고 풀이를 한 후 박사과정 이상의 제자들이 교정을 담당했다.

2천여쪽 동양최대 사전집
사상·인물·문헌 총망라
불교용어 영어로도 표기

김 교수는 〈불교·인도사상사전〉의 특색을 "전문용어는 기존 사전보다 더욱 상세하게, 또 인명은 반드시 생몰연대를 밝혔으며 불교용어는 영어 표기를 첨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의 사전편찬 원력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는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 더욱 사전 발간에 몰두하게 됐다"며 "남은 기간동안 〈유교·중국 사상사전〉과 〈동양철학사전〉을 더 펴내고 동료교수들과 시작했던 〈철학대사전〉도 마무리 할 것"이라는 계획을 털어 놓는다.

"사전 발간 준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를 정도"라는 김 교수의 수면시간은 하루 2~3시간. "사전 발간을 수행삼고 있다"고 스스로도 밝혔듯이 17년 전 시작된 사전 발간이 이제 김 교수의 수행이자 화두가 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값 15만원.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동양 최대규모의 '불교·인도사상사전' 편찬한 김승동 교수.

이책의 한구절

■"자연주의자의 명상이란, 공부하는 대상 세계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세계에 대한 이해와 순수한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다."

– 인간의 영혼을 조화롭게 하는 책 〈자연은 나의 영혼입니다〉(제임스 손튼 지음, 정영문 옮김, 모색). 값 7천5백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죽어야 할 필요는 없다. 살아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숨을 쉬면서 아름다운 나무를 껴안을 때 우리는 천국에 있다. 숨쉰다는 걸 의식하며 숨을 한 번 쉬고 우리 눈, 심장, 간, 이가 아프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간다."

– 참여불교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사상과 지혜를 보여주는 책 〈이 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다〉(틱낫한 외 지음, 진우기·신진욱 옮김, 양문). 값 9천2백원.

■"오늘을 살고 있는 불자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불교의 8만 법장들이 모두 이를 위해서 설해진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실천한다면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 불교학자가 제시하는 불교의 길을 담은 책 〈생활 속의 불교〉(권기종 지음, 숨). 값 9천8백원.

■"허공에 한 점 손가락으로 친 이 참 소식을 우주 인간 중에 몇 사람이나 아는가. 내가 허공에 대고 손가락으로 한 점을 찍으면 거기에 찍은 표시가 남아 있느냐. 인간이 몇이나 그 표시를 알아 볼 수 있겠느냐. 진리란 늘 허공 속에 떠 있는 것. 다만, 발견하는 자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의 차이일 뿐."

– 우리나라의 큰스님들이 나눈 편지글 모음집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명정스님 편역, 좋은날). 값 9천원.

■"마음의 병인 모든 욕망을 내버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진아가 드러날 것이다. 침묵을 지켜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라. 애씀없이 존재하라. 그러면 일순간에 그대는 자신이 항상 자유로웠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 인도의 영적 스승 마하르쉬의 제자 빠빠지의 가르침을 담은 책 〈빠빠지 면담록〉(대성 스님 옮김, 탐구사). 값 1만원.

존재의 궁극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내면 존재의 위대한 사랑



'나의 작은별 이야기'

신간 〈나의 작은 별 이야기〉(이안 지음, 씨앗을 뿌리는 사람) 표지의 위쪽에서 지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바라보는 별은 글보다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별 속에 비친 모습과 지구에 서 있는 주인공은 왜 같은 모습이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상상해 봐, 네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다가오게 될 때를, 그 때 네 걸음 하나, 네 눈짓 하나 하나가 모두 기쁨이 되지 않겠어. 고개를 들어도 고개를 숙여도 온통 사랑일 뿐이야. 그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네 별로 보일 거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인간이란 존재와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를 읽는 이에게 전달해 준다. 별과 나무 그리고 불새 등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동화형식의 글이지만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철학적이다. 물질과 마음의 상관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등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값 8천원.

전통미술 보는 코드 '생명·자연·인간'

'미술은 아름다운…'

정병모 지음



미술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장벽이 있다.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전(前)시대의 미술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감상자의 시각이 종종 작품의 진실을 흐려놓기도 한다.

미술 작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를테면 작가의 사상, 시대적 배경,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 따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제대로된 미술 감상은 불가능하다. 신간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다할미디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우리 미술의 내밀한 세계로 이끄는 책이다.

'생명'을 화두로 우리 조상들은 과연 우리 미술을 어떻게 보아왔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책의 지은이는 정병모(문화재학부 교수, 경주대학교 박물관장) 씨. 그는 우선 선조들의 미술 인식을 생명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란 세 단어로 요약한다. 조상들은 미술을 무생물의 물체가 아닌 따뜻한 피가 흐르는 생명체로 느꼈고, 자연을 미술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인간을 미술의 척도로 삼았다는 것이다. 즉 지은이는 '한국의 전통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라고 정의하고, 생명이란 관점에서 한국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살피고 있다. 예를 들어 탑은 돌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체이고, 그림은 종이가 아니라 생명체이며, 도자기 또한 그릇이 아니라 생명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다른 미술사 책처럼 편년체적 서술 방식을 따르지 않고 시대별 대표 장르로 우리 미술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책은, 삼국시대의 조각, 통일신라시대의 탑, 고려 불화 등 전통미술 가운데 각 시대를 풍미한 대표적 장르를 중심으로 그 전개과정과 조형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드라마같고 역사같은 달마전기

'아무것도 구하지마라' 유준호 지음



사료에 충실하면서도 드라마처럼 쉽게 풀어쓴 달마 이야기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유준호 지음, 시공사)가 나왔다. 지은이는 달마의 생애와 가르침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중국 선종의 개척자가 된 역사적 배경을 조명한다.

그는 특히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 왜 낯선 땅 중국의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면벽구년이란 전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팔뚝을 잘라 바치면서까지 진리를 구하던 제자 혜가 스님과의 이야기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신발 하나 남기고 다시 전설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는지 등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 책은 일화 중심의 달마 전기가 아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무엇이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짚어보는 것의 이 책의 본래 목적이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진심 밝히면 참사람

'진심직설' 이기영 전집



한국 불교학계의 거목이었던 이기영(1922~1996) 박사가 생전에 가장 즐겨 읽었던 〈진심직설〉이, 불연 이기영 전집 22권 〈진심직설 역해 및 강의〉(한국불교연구원)로 출간됐다.

책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역해는 지난 78년 동국대학교 현대불교신서 9권으로 출간된 〈진심직설〉을 실었고, 2부 강의는 이기영 박사가 지난 87년 11월부터 88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한국불교연구원 구도회에서 실시한 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걸립패의 한과 희망



'남사당패'

혜범 지음

승려 소설가 혜범(원주 송정암 주지) 스님이 풍물구도소설 〈남사당패〉(전3권, 태일)를 내놓았다.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삶에 활역소가 되었던 남사당, 그 중에서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걸립패들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을 담은 이야기다. '덕배'라는 10살 소년이 20살이 되기까지 풍물패와 함께 또는 따로, 가슴 속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을 키우고 삭이며 구도자로 거듭나려는 몸부림을 그리고 있다. 값 각권 7천원.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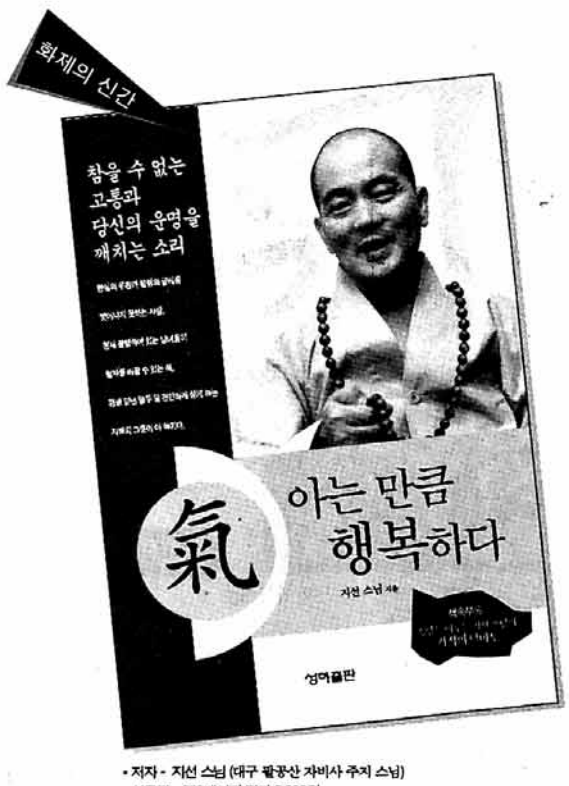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 아름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의 나침반	무 심	열 림 원
2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3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4	온 세상은 한송이 꽃	무 심	현 암 사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6	지장경 강의	무 비	불 광
7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8	라마나 마하르쉬 저작 전집	대 성	탐 구 사
9	물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서 웅	다른세상
10	금강경 강의	혜 거	뿌리스윕캣팸

도서 안내:(02)737-0695

성하출판 영업부 (02)2273-4452



• 저자 - 지선 스님 (대구 팔공산 자비사 주지 스님)
• 신국판 · 276페이지 정가 9,000원
• 책속 부록 : 기적을 일으키는 지선스님의 신비의 달마도

가족의 우환, 결혼 생활, 사업의 성패, 미래의 전망등 갖가지 인생문제 해답을 이책에서 얻는다!

"살아있는 에너지, 우리 몸엔 氣가 있다"

21세기, 과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4차원의 정신세계 기(氣)'.질병과 고통 등의 갖가지 인생문제의 해답을
氣 전문가 지선 스님에게서 얻는다. '좋은 기'를 받느냐 '나쁜 기'를 받느냐에 따라 무병장수 할 수도 단명병사 할 수도 있다.
좋은 기를 얻는 방법만 터득하면 누구나 다 행복해 질 수 있다.

"인간의 운명은 氣에 따라 바뀐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노력과 성공은 정비례한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는 등의 좋은 금언이 많지만 이것은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말씀이고, 4차원의 정신세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우선은 '기'의 영향으로 인간 삶의 행·불행, 인간사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고 본다.쉽게 말하면 모든 즐거움과 슬픔, 기쁨과 고통, 무병장수와 단명병사 등 인간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이 '좋은 기'와 '나쁜 기'의,영향으로 그 첫째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자신이 전개하는 논리와 현실적 사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자신의 환경을 좋은 기로 변형시킴으로써 그 기의 작용으로 행복한 인생의 촉진제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실의 우환과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신과 가족들이 밝은 미래의 인생을 보장받고 싶은 사람, 미래에 큰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 현재 불행속에 있는 남녀들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책,평생 일년 열두 달 편안하게 살게 하는 지혜의 그릇이 바로 이 책이다.

기(氣)아는 만큼 행복하다

지선 스님의 기(氣) 강의 전국 강태
• 한국정신과학회 세미나
(2001년 3월 28일 대전 KAIST강당)
• MBC-TV 아카데미 출연
(2001년 5월 4일 안동 MBC-TV 방송국)



선암사 대웅전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5월 30일 조선후기 대표적 사찰 건물의 하나인 전남 순천 대웅전을 보물 제1311호로 지정했다. 선암사 대웅전은 조선 순조 24년(1824)에 다시 지어진 정면 3칸, 측면 3칸짜리 건물로 처마 끝 무게를 받치는 장식부재 공포를 기둥 사이까지 배치한 다포식 기법으로 조성됐다. 공포의 배치, 새김 기법이 정교한데다 장식미가 뛰어나 전북 부안 내소사 대웅전(보물 제291호)과 함께 조선후기 절집 양식의 본보기로 꼽힌다.

봉정사 목조관음상 상세보고서 등 수록

조계종 '성보' 3호 발간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한 해 성보보존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비지정 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고 새로 발견된 자료 가운데 공개가치가 있는 성보문화재를 묶어 〈성보 3호〉를 최근 펴냈다.

조성시기를 놓고 국내 최고(最古) 논란을 일으켰던 안동 봉정사 관음보살상에 대한 보고서 등 모두 6편의 보고서를 실었다.

특히 이번 조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가평 현등사의 불상과 불화 9점 가운데 극락전 아미타불상과 후불화 3점, 지장전 지장보살상과 지장시왕도 등 모두 7점이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용인 용덕사 전래 불상 3구, 수원 청련암 극락보전에 조성된 영산회상도 등도 각각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등사 극락전에 봉안된 아미타회상도와 지장시왕도, 신중도는 문화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박락이 심해 보존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성보박물관 數 늘었지만 質 거북걸음

빈발하는 불교문화재 도난예방을 위해 90년대 중반부터 본사급 사찰을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는 성보박물관이 전시와 교육, 보존이라는 박물관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계에서 문을 연 성보박물관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비롯해 모두 12곳이다. 현재 성보박물관을 건립 중인 곳은 불국사 등 11곳에 이르고 법주사 표충사 등 5곳은 자체 유물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성보박물관들은 몇몇 성공적인 경우를 빼고는 추진과정에서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미비, 전문인력 확보 등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는 계획에 없던 시설변경으로 예산을 추가투입하거나 예산부족으로 건립이 중단·연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성보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한 사찰은 설계 과정에서 습기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문제가 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또 다른 사찰도 수장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기계실로 유물 훼손이 우려돼 구조변경을 진행 중이다. 수장고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전시관만 개관해 유물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도 있다. "그 동안 도난방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박물관 건립을 하다 보니 해당 사찰의 전문성이나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장고 없이 전시관만
관리 전문인력 부족
단순 전시 포교역 미흡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한 박물관 관계자는 말했다.

이런 현실은 가장 필수적인 전문인력 확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현재 개관중인 성보박물관 중 미술사를 전공한 학예직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은 절반도 안 된다.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갖춘 곳은 통도사와 송광사, 직지사 등 3곳뿐이다.

전문인력 못지않게 박물관 일을 전담할 스님 또한 중요하다. 주지 스님이나 재무 스님이 겸임하는 형식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스님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홍선 스님은 "성보박물관이 박물관다운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님들 가운데 역량 있는 분이 배출돼 실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보박물관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보박물관에 대한 교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성보박물관을 단순히 도난을 방지하거나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불교문화재를 보존하고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문화재전문가들은 밝혔다. 박상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은 "성보박물관은 일반 박물관과는 달리 포교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도 "성보박물관을 짓고 있는 사찰이 많지만 박물관을 단순히 전시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당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에서 시청각 포교당으로 가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올 3월 태고종 사찰로는 처음 문을 연 전남 순천 선암사 성보박물관(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세계 불교 전자도서관 만들자"

6개국 50여 전문가 참석 국제 학술회의서 논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 주최로 5월 25~26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린 세계전자불전학회(EBTI)의 국제 학술대회가 '세계 불교 전자도서관 구축'을 주요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불교 경전 전산화에 있어서 국제협력'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세계 6개국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불교 경전 전산화 작업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지금까지 국가별, 개인별로 진행돼 온 전산화 작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작업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 스님은 "이미 입력 작업과 가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학술대회는 이의 활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며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어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세계 불교 전자도서관 구축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어로 번역된 대장경뿐 아니라 불교 전자사전, 각종 불교자료 등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사이버 도서관 개관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걸음을 떼어놓은 셈이다.



◇국제 전자불전학회 국제학술대회가 5월 25~26일 동국대서 열렸다.

하지만 여러 언어로 된 대장경을 인터넷에서 통합해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호환해 활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 기술의 개발, 공통적인 전산화 개발 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

한편 학술대회 후 열린 정기총회에서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인 보광 스님이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은 찰스 뮐러 교수(일본 동양학원대학)가 맡았다. 학회의 영문 명칭은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나 한자권에서의 명칭은 국제전자불전학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9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권형진 기자

"범어 한글표기 원래 발음대로"

이지수 교수 주장



아직 표준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범어의 한글표기와 관련, 범어의 원래 발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이지수(사진) 교수는 2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에서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 대신 범어의 원래 발음을 한글표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할 경우 표현할 수 있는 범어 발음이 50%미만인 데 비해 범어의 음운체계와 발음법을 따른다면 80~90%까지 한글 표기가 가능하다며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자는 주장은 범어의 발음법을 모르는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범어 발음에는 있지만 우리말에는 없는 권설음, 장음 등을 표기하기 위해 방점(·) 장음부호(-)를 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교수의 안은 '까' '짜' '따' 등 된소리가 많이 쓰이고,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글자 위나 아래에 방점(·)을 찍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실제 활용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高僧 다시보기

연재 시작하며

요즈음 세간에는 궁예의 관심법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의 관심법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가 결여된, 유행어 따라하기 수준의 관심이긴 하지만, 불교계의 한 인물을 나름대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다룬 드라마라는 점에서 불자인 필자로서는 반갑기도 하다.

이렇듯 역사 인물은(현존 인물도 마찬가지지만) 관점에 따라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궁예의 예가 바로 그렇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승려로 볼 수도 있고, 왕권을 방편으로 민중을 위해 불심을 펴려던 인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그 관점을 제공하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불교는 민중들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었고 보다 높은 차원세계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계발·창조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애쓴 고승들은 수없이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고승들 가운데 권승·술승·요승·신승 등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적지 않다. 조선의 성리학이나 근대의 서구

민중의 삶에 깃든 고승행장

한국 문화 정체성 찾기 '한몫'

문화 경도에 따른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법의 정수를 널리 알리지 못한 탓도 크다.

이 땅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이가 순도화상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그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원효 스님을 성인으로 받들면서도 스님이 계를 깨뜨리면서까지 민중들 속에 뛰어든 위대한 뜻을 잘 모른다. 신라이래 조선초까지 민중의 정신적인 표상으로서 민중을 이끌었던 왕사·국사가 많았음에도 그들의 존재는 역사책에서나 있을 뿐이다.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도와 한양을 서울을 정한 것을 알아도 그것이 중생을 위하여 佛法을 일으키려 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 서산대사에 대해서도 조선왕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국의 선봉에 선 승병장이었음은 알아도 불교를 중흥시켰던 고승인지는 모른다.

이처럼 크나큰 가르침이나 위업을 남긴 고승들이 세간사와 얽혀 간혹 오해를 사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본디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30여회에 걸쳐 우리의 역사에서 잘못 알려졌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고승들에 대하여 역사적인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승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쓴이 **황인규** 씨는 동국대 대학원(사학과)서 '무학자초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동국대 강사 및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다. 〈마지막 왕사 무학대사〉 〈무학대사 연구〉 등을 펴냈고 중세불교사상사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정신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누기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전국 서점 판매중!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지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흘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홍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정현우 박사 지음
신국판
값17,000원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베일을 벗긴다」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길몽 흉몽)〉 〈태몽, 그 출생의 비밀〉 〈꿈풀이 삶풀이〉
■ 부록 〈결혼 부부궁합〉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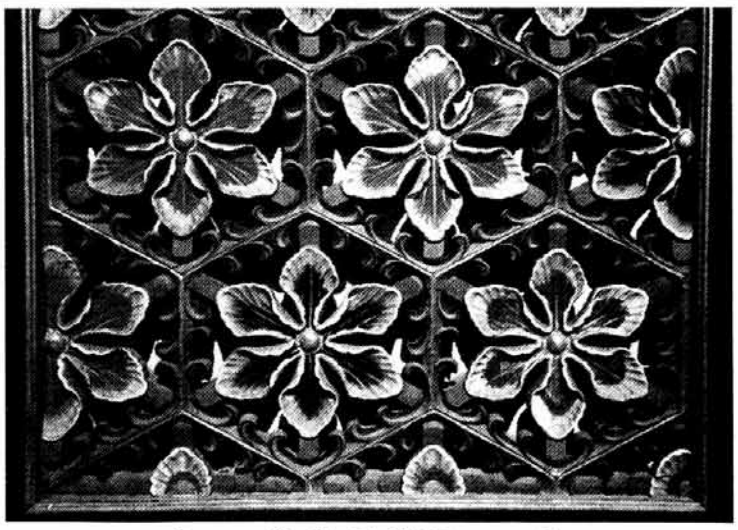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홍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昇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일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원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운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양장본 김성진 저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 정현우 저 /정가 17,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

권 동신전통목공



사찰문전문
대표 백 영 목 합장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동 523번지 (직지사 검문소 위)
전 화 : (054) 432-1312
공 장 : (054) 432-8121
휴대폰 : 011-535-7000

주요 공사 사찰
직지사.봉암사
각화사.대승사
해인사.축서사
윤필암.김용사
법주사.운문사
봉녕사.용문사
서광사(캐나다)
한마음선원대구지원

찾아오시는길
↑ 추풍령I.C
동신전통목공
1Km
← 직지사
직지사 검문소
김천시내 ↓

지인은 그날 이후 틈만 나면 동굴로 올라왔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㉞

(33) 선무공(禪武功)의 뿌리

"고약한 이리 같으니라고! 감히 조사님도 몰라보고 성스러운 동굴을 더럽히려 하다니."

지인은 목에 힘을 주면서 동굴 밖으로 나갔다. 땅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이리를 한 마리씩 집어 들고는 골짜기로 던져 버리려고 했다.

달마는 지인의 일거수 일투족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만치 관심이 컸고 믿음이 갔다. 달마는 큰 소리로 지인을 불렀다.

"여보시게. 잠깐 나 좀 보세."

막 이리를 들어 골짜기로 던지려던 지인은 순간 당황하면서 동작을 멈추었다. 달마는 지인 옆으로 다가와서 죽은 이리의 앞머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

달마는 탄성을 금치 못했다. 죽은 이리들은 하나 같이 콧등에 돌멩이를 맞은 흔적이 뚜렷했다. 이리의 급소는 바로 콧등이다. 아무리 드센 이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한 방만 맞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 달마는 다시 한 번 이리의 시체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몸통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는 새삼스럽게 혀를 찼다. 돌멩이 하나로 이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예사 솜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리의 시체를 살펴보니
콧등 급소엔 돌멩이 흔적
예사 솜씨가 아니었다

맨손으로 돌을 부수고

이런 솜씨는 상당한 내공(內功)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내공 수련이 깊어지면 아무리 조그마한 돌멩이일지라도 천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백발백중의 명중률은 물론이거니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썩은 고목처럼 쓰러지게 마련이다.

달마는 지인을 향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무공이 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구만, 대단해."

지인은 더욱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다.

"코잘 것 없는 무술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무공은 어디서 배운 거요."

지인은 밝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소림사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소림사의 스님들 가운데는 무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내공이 뛰어나 천근을 들 수 있는 힘이 있고, 맨손으로 돌을 부수고 벽돌을 가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런가!"

달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달마는 그것이 어떤 공법이고 어떤 연유로 소림사에 전해졌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달마는 소림사를 개창한 사람이 천축에서 온 발타 대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미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천축에 있을 때 자신도 일찍이 발타 대사 밑에서 무공을 닦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불가에서 무공을 닦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법을 시작했을 때부터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비와 인욕이긴 하지만 불교에선 인왕존(仁王尊)을 비롯하여 기타의 명왕(明王) 십이신장(十二神將) 등의 상(像)이 무공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천수관음(千手觀音)상은 손마다 온갖 무기를 들고 있기까지 하다. 이것을 의아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까닭을 알고 보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불교는 자비와 인욕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것을 기조로 삼아 이상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정의와 정법을 지키고 펴내기 위해서는 맨주먹의 권법(拳法)뿐만 아니라 창과 칼 그리고 활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술도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런 내용은 열반경(涅槃經)에도 뚜렷이 나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당시 사회가 카스트제도의 지배 아래 있던 사회 즉 계급사회였던데 반해 부처님은 인간평등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가진 바라문이나 왕족들의 방해와 박해가 극심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호신과 정법호지를 위해 파사(破邪)할 힘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무술을 연마하고 각종 무기를 다루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초기의 승려들이 수행에서 무공을 닦는 일은 단순한 기력(氣力)이나 체력 강화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공법을 함께 닦는다면

발타 대사가 소림사를 창건했을 당시 이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울창한 숲 속에는 호랑이와 곰, 이리 같은 맹수들이 득실거렸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늘 맹수의 습격에 시달렸다. 심지어는 승려들 가운데서도 희생자가 나올 정도였다.

발타 대사는 승려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했다.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아울러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의 '소림사 무공' 또는 '소림사 무술'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었다. 물론 달마 대사가 훗날 소림사에서 펼친 선과 선무도는 하나의 종주(宗主)를 이루는 확고한 계기가 되었다.

소림사는 역사적으로 수(隋) 나라 문제(文帝)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엄청난 토지를 하사받아 그 위세를 떨쳤다. 수 나라가 망하고 당(唐) 나라로 바뀔 때 중원은 군웅들의 할거로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일이 있었다. 이때 이세민을 위기에서 구해 준 이들이 다름 아닌 소림사 무승들이었다. 당 나라 태종으로 등극한 이세민은 이 때문에 소림사와 소림사의 승려들을 애지중지했다. 소림사는 황제를 보위한 사찰로 천하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달마는 지인을 통해 소림사 승려들의 무술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달마 자신이 익힌 공법을 함께 닦는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 달마는 문득 지인을 시험해 보고 싶어졌다. 짐짓 무술은 그렇게 아무 때나 쓰는 것이냐고 물었다.

지인이 얼른 손을 내저었다.

"아무 때나 무술을 써서는 안 됩니다. 단지 악인이나 맹수가 사원을 침범할 때 사용할 뿐입니다. 저희는 함부로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습니다."

달마는 지인의 대답에 흐뭇해했다.

"옳지! 옳은 말이오. 노납도 천축에서 무공을 조금 익힌 바 있소이다. 소림사에서 내려오고 있는 공법과 대동소이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오. 내, 그대가 원한다면 시범을 한 번 보여주고 싶은데…."

지인은 황급히 합장의 예를 갖추고 응답했다.

"조사의 공법으로 소승의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좋소."

달마는 그 자리에서 승복을 걷어올리고 무공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기를 모아 단전에 중심을 잡은 다음 두 발을 가볍게 구르다가 몇 길 높이를 뛰어올랐다. 나뭇가지 위를 마치 평지처럼 날아다녔다. 이 광경을 본 지인은 멍하니 서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신기이시다. 활불(活佛)이시다."

달마는 가볍게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지인을 향해 싱긋 웃었다. 지인은 또 다시 달마를 향해 합장하며 절을 했다.

"이처럼 놀라운 무공에 소승은 그저 감탄할 따름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소승에게도 한두 가지를 전수해 주시옵소서."

달마는 물론 지인의 입에서 이런 청원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가르쳐 줄 수 있소이다. 한데 소사부는 나와 함께 이 동굴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겠소이까?"

지인은 조사의 대답이 너무나 시원시원하여 오히려 불안스러웠다. 눈을 깜박이면서 신중하게 말했다.

"소승이 조사님의 허락으로 이 곳에서 면벽좌선하고 무공의 내외공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니…, 어찌 삼생(三生)에 돌아온 행운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달마는 지인이 왜 그러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이라니? 노납의 무술에 무슨 의문이라도 있단 말이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김명국 作 달마도(종이에 수묵, 96.6×38.8cm, 일본 이리에(入江)씨 소장).

지인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소승이 어찌 감히 그런 버릇없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지이신 혜광 스님께서도 자주 우리들에게 훈계하셨습니다. 혜광 스님은 선림의 무공은 방대하고 그 깊이 또한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공의 내력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승이 배운 것은 다만 넓은 바다에서 물 한 숟가락을 떠먹은 데 불과한 구우일모(九牛一毛)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배우려면 최상승의 것을 배우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옳은 말이오. 지극히 옳은 말이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만약 소승이 이 동굴에 머물며 오랫동안 절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주지 스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보내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께서 면벽좌선하시는 비밀이 곧 탄로가 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조사께서 몸을 숨기는 것조차도 대단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소승이 돌아가서 잠시 이 비밀을 숨기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조사께서 여기에 오래 머무르시면서 수행해 나가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히 문파의 편견도 사라지고 대승과 소승이 융합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소승은 조사께서 선림의 진정한 스승으로 세상에 나가시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달마는 지인이 대견스러워 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말이오. 한데 이 노납을 위하여 과연 비밀을 지킬 수 있겠소?"

지인은 엎드려 무릎을 꿇고 달마에게 큰 절을 올렸다.

대승공종의 성실한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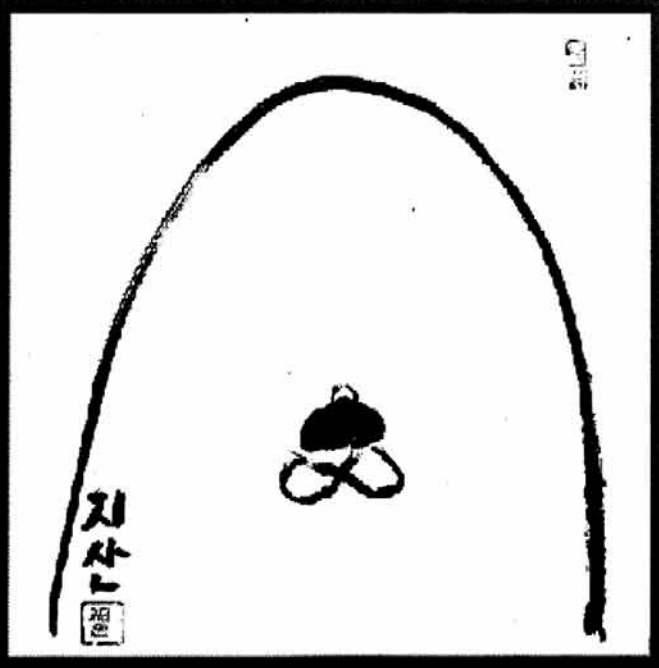
"조사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십시오. 소승은 이제 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인은 공손한 자세로 몸을 일으켜 뒷걸음으로 굴을 나왔다. 그리고 몸을 날려 석벽을 타고 산 밑으로 내려갔다. 지인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루가 지난 다음 지인은 기회를 엿보다 몰래 산으로 올라왔다. 달마를 위해 공양할 것을 정성껏 마련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작심이라도 한 듯 오랜 시간을 동굴 안에 머물렀다. 조사에게 내공(內功)의 요지와 외공(外功) 특히 경공(輕功)의 기초를 전수받기를 간청했다. 달마는 지인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 주었다.

지인은 그 날 이후 틈만 나면 동굴로 올라왔다. 그는 대승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었고 대승공종(大乘空宗)의 성실한 제자가 되었다. 달마에겐 지인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의 즐거운 일과가 되었다. 화룡동굴 안은 조사와 젊은 스님의 기운으로 신비한 조화를 이루었다.

히말라야 지산암 인등불사



☆ 일인당 한 등 · 월 오천원
☆ 동참구좌
· NEPAL GRINDLAYS BANK LIMITED
· 102-0514136-251 EUNG LIP LEE
· 국민은행 062-21-0578-835 이 응 립
☆ 우편주소
· P · O BOX 4930
KATHMANDU NEPAL
☆ 지산암 위치
· TAPOBAN NAGARAJUNA HILL.
KATHMANDU
☆ HOTMAIL
· JEESAN HIMALAYA@
HOTMAIL.COM

네팔국 히말라야
지산암 암주 지산 합장

순 구리로 만든 행운의 동(銅) 달마도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 중!

귀의 삼보하옵니다.
성주조형예술원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행운의 동 달마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장기간에 걸려 개발한 연구작품입니다. 예로부터 달마도는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액자 전면을 동으로 처리하여 만든 **'행운의 동(銅) 달마도'**는 나쁜 기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가정 및 사무실에 걸어 놓으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 재질 100% 구리
▷ 크기 가로 55cm × 세로 88cm
▷ 가격 120,000원

가격 30,000원 ◁
재질 100% 구리 ◁
가로 27.5cm × 세로 40cm ◁

성주조형예술원 031-311-3389 017-232-2858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123-1

대불청 '수행' 중심 활동 편다

청년불교의 활동이 수행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회장 김규범)는 매달 1080배 철야정진 개최에 이어 9~10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제20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서도 무차법회, 신백팔대참회 정진과 같은 수행 프로그램을 크게 늘려 수행을 통한 청년불자들의 초발심 되찾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전국 불교 청년대회'에서 청년불자들이 발우공양에 앞서 공양물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

청년불자들의 가장 큰 행사인 불청대회가 문화행사를 통한 축제 분위기 조성에서 탈피, 수행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뀐 것도 대불청이 올해들어 새롭게 내걸고 있는 '수행 · 교육 · 실천이 하나되는 청년붓다' 운동과 맥락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불청이 수행중심 운동으로 청년불교의 활동 방향을 선회한 데에는 그동안 결속력 약화, 회원수 감소,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청년 불교 운동이 침체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불청은 10년 수행결사 모임인 밀알결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불자들이 매일 108배 정진을 하고 있으며, 자비의 쌀 모으기와 독거노인돕기 등 보시행을 통한 청년불교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또 지난주에는 그동안 조계사 경내에 있던 대불청 사무실을 견지동 수송빌딩으로 이전하는 등 자립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행사 위주 탈피 매달 1080배 철야정진

이웃돕기 · 장기기증 남북불교교류 추진

이번에 열리는 불교청년대회는 이런 대불청의 새로운 변화와 노력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있는 대표적인 행사로 보인다. 서울불교청년회를 비롯해 16개 지부에서 1천5백여명 정도가 참가하게 될 이번 행사는 무진장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의 '누구이며,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주제 법문으로 문을 연다. 이어 박광서 교수(우리는선우 이사장)의 '청년불교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과 각 지구별 청년포교운동 모범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된 무차광장이 진행된다. 또 조계사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청년불자들이 모여 120개 지회 청년회의 명호를 부르며 108배 하는 '신백팔대참회 정진'은 청년불자들이 재발심을 발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날에는 조계사청년회 보리수합창단의 합창과 원심회의 수화공연, 컨츄리꼬꼬 초청 축하 공연 등도 펼쳐진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96 · 97년에 모금해 놓은 7백만원의 성금을 북녘동포돕기의 일환으로 북한 금강국수공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남북한 청년불교의 교류를 제안하는 김규범 대불청 회장의 친서도 전달할 계획이서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1천인 서명 운동도 벌여 명단을 생명나눔실천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규범회장은 "올해 불청대회는 단순한 축제의 성격을 넘어서 청년불자들의 나아갈 방향과 수행 지표를 함께 고민하자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참가단들이 초록빛이 아롱진 구슬땀을 흘리며 차를 비비고 있다.

"그윽한 녹차 禪味에 반했어요"

본사 5월 지역불교문화기행 성황

"칠불사는 가락국 태조이자 김해김씨 시조인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수도 한 후 모두 성불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칠불사는 통일신라이후 동국제일선원이라 하는 금강산 마하연 선원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2대 참선도량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청풍남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유서깊은 선(禪) 도량이기도 하지요"

26일 오전 6시 대웅전에서 새벽 예불과 기도가 끝나자 칠불사 원주 명조스님은 칠불사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하는 지역불교문화기행에 참가한 40여명의 참배객들은 스님의 설명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 번 불을 지피면 49일동안이나 온기가 식지 않았다는 아자방(亞字房)과 경내 선방인 운상선원을 참배했다. 아침 공양이 끝나자 참가단은 녹음짙은 차밭을 구경하며 제다실습 장소인 '효월수제차'로 이동했다.

구증구포 제다법 시연 칠불사 아자방 참배

"아홉번 쪄서 말리는 구증구포는 전통 제다법입니다. 특히 불가에서는 차를 만들 때 온갖 정성을 기울여 수행하는 마음으로 차를 만들고 마셨습니다." 효월수제차 이기영 사장의 제다법 강의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커다란 솥에 둘러서서 차 잎을 덖고 비비는 과정을 반복했다.

4시간에 걸쳐 구증구포 시연을 끝낸 이용주씨(40)는 "집에서 손쉽게 마시는 녹차의 제조과정이 이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다"며 "옷이 흠뻑 젖을 만큼 힘들었지만 녹차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값진 체험이었다"고 즐거워했다.

이날 답사 여행의 백미는 국사암 진감선사부도비(보물 제380호) 앞에서 열린 '다례제' 참관이었다. 명원문화재단의 차 공양 시연이 신기한 듯 순례단은 한 장면이라도 놓칠세라 고개를 빼곡히 내밀며 시종일관 행사 모습에 시선을 고정했다. 돌아오는길에는 1년에 5일만 일반에게 공개되는 쌍계사 금당선원에 올라가 육조 혜능 정상탑을 참배했다.

김주일 기자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③

• '이뭐꼬' 소리내기 •



'이뭐꼬'란 무엇인가? 이는 '참 나는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이다. 당신이 지금 '이뭐꼬'란 소리를 내는 그 소리의 주인공을 만지려고 하거나 그 소리를 찾으려 한다해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전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가 여전히 있다. 이러한 알 수 없는 의심의 상태를 관하는 것이다. 이 대답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자리 '이뭐꼬'란 꽉 막힌 의심의 상태가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것은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이며 우리 모두의 참 성품인 것이다. '이뭐꼬' 소리를 낼 때는 단전에서부터 위로 쓸어올려 입을 통해 나오는 것 같이 단전에서 소리를 낸다.

태산같은 의심 '이뭐꼬' 부처 성품 호흡으로 찾아

1. 숨을 내쉴 때 '이' 소리를 낸다.

2. 더 이상 숨을 내쉴 수가 없을 때 단전을 앞으로 내밀고,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에너지(氣)가 척추를 타고 올라오고 다시 단전으로 내려가게 한다. 턱을 당기고 단전에 집중한다. 어깨와 목에 긴장을 푼다.

3. 다시 입을 통해 숨을 서서히 내 쉬며 '뭐' 소리를 낸다. 단전 하복부를 서서히 수축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전 부위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면서 단전부위를 앞으로 볼록하게 약간 내민다.

4. 이번에는 '꼬' 소리를 내며 단전에 다시 집중한다. 이렇게 '이', '뭐', '꼬' 소리를 호흡과 함께 차례로 내면서 "이뭐꼬, 참 나란 무엇인가? 즉, 숨쉬고 있는 나, 소리 내고 있는 나,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참구한다.

K2에 동국대 100주년 깃발 단다

박영석 씨 14개 고봉 등정 마지막 봉 도전

"이제 단 한 봉우리만 남았다."

동국대가 히말라야산맥에 100주년 기념 깃발을 꽂는다. 산악인 박영석(37 · 체육교육 87학번) 씨가 이끄는 동국 Park's Grandslam K2 Expedition 원정대는 5월 2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1일 서울을 출발했다.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을 비롯해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 6백여명이 참석한 발대식에서 박영석 씨는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K2 정상에 개교 100주년의 깃발을 꽂고 돌아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번 K2봉 등정에 성공하면 박영석 씨는 히말라야 14개 고봉을 최단기간(8년)에 완등하는 새로운 신화를 이루게 된다. 박영석 씨를 비롯해 14명의 원정대는 20일경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7월 중순경 히말라야 제2봉인 K2 정상 등정에 나설 예정이다.


◇송석구 동국대 총장과 박영석 씨가 깃발을 마주 잡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청소년 단신

진선여중 '은혜경' 사경대회

진선여자중학교(교장 한기수)는 5월14일부터 4일까지 2학년생을 대상으로 〈은혜경〉 사경대회를 열었다. 불심을 기르고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여중생들의 재치와 개성 넘치는 〈은혜경〉 사경 솜씨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수첩에 인기가수의 가사를 옮겨 사경시로 개작한 박수진양은 "글자 한자를 쓸때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며 "사경을 하다보니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집중도 잘돼 집에서도 계속 할 생각"이라고 즐거워했다.

황해진 부총재 목련장 받아

문화관광부(장관 김한길)는 5월29일 5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장한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포상식'에서 청소년육성 유공 국민훈장에 황해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이하 청교련) 부총재를, 우수 청소년 단체상에 청교련 대전지부를 각각 선정하고 시상했다.

불교 유아교육 미래모습 찾기

불교유치원 교사 워크숍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부속유치원(원장 대원스님 불교아동학과 교수)은 7월 2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제1회 전국불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교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강연과 실습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원(동국대 불교아동학과) 스님이 '불교유아교육 기관의 운영관리', 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생태유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유구종(광주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유치원 멀티미디어 활동'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동국대 박상신 교수가 '탐구심을 발달시키는 어린이 과학놀이', 동국대 이수경 교수가 '창의력 개발을 위한 어린이 불교미술' 등을 주제로 실습도 병행한다. 대원스님은 "'불교, 어린이,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 및 교육 환경 속에서 불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어린이 교육과 이에 따른 불교유아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워크숍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를 원하는 원장과 교사 그리고 유아교육전공 학생들은 사전에 동국대 부속유치원에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054)770-2533

김중근 기자

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살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지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매사 안으로 굴려 밖으로 나올 때 '法'

출가와 재가 공부 다릅니까

문 스님을 뵙고 하다 보면 출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출가를 하는 것하고 현실 세상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그리고 여자가 하는 공부, 남자가 하는 공부, 어린애가 하는 공부, 노인이 하는 공부에 구별이 있는 건지요?

답 사람마다 각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있는 거지, 공부에는 그런 구별 자체가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으니까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렇게 아무 구별이 없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님이 되어야만 마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스님이 안되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는 똑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살림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가족이 있고 스님들은 가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좀 쉽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아무래도 이 마음이 그냥 걸림 없이 넓게 나가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겉 외양도 다르게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습을 보고 오기가 쉬운 거죠. 또 보이지 않는 중생들은 마음으로 공부하기 위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건질 수 있는가 하면 속가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그 모든 것을 굴리고 잘 이끌어 나가는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겸해서,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것을 천차만별로 나투면서 하기 위해 중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넓게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우주 바깥으로도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 속으로도 숨어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그 생각 자체가, 다시 말해서 어깨에 짊어진 게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그렇단 얘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갸륵하게 잘 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것이 미흡해서 잘 못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그것이 나의 공부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죽는 게 두렵다는 생각 들어요

문 저는 평소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어차피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크게 무서워하거나 삶에 대해서 집착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급박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답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다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죽는 걸 겁 안 낸다고 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차원의 그릇을 가지고 죽어봤던들 그 차원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죽더라도 아주 야무지게 알고 죽어야 그것도 값비싸게 옷을 벗는 거다 이거지.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옷 벗는다고 장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옷 벗을 힘이 있다면 자유스러운 마음에서 옷을 벗고, 즉 말하자면 자기가 만약에 옷을 벗는다 해도 알준하게 이 도리를 알고 옷을 벗으면 좋은데, 옷을 벗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게 이름해서 열반계야. 살아 있을 때 열반을 알아야지 죽었다고 열반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죽어야지 진짜 죽은 거지, 육신의 옷을 벗고 죽은 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진정 둘이 아니게끔 공부를 한다면 마음으로는 천백 억 화신으로도 나툴 수 있다고 했지. 그게 숫자가 없는 숫자야. 천백 억이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없는 걸 천백 억이라고 그래. 그런 데다가 이걸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돼 주고 저걸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저게 돼 주고, 아파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의사가 돼 주고, 가난해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관세음이 돼 주면서 나투는 이 자체가 바로 진정 죽어야 그렇게 나툴 수 있어. 죽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살아서 죽어야 돼. 옛날에 날더러 어느 스님께서 눈뜨고 삼 년만 푹 자라고 그랬어.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해?

눈뜨고 잠을 자라고 그런 것이 뭔 줄 알아? 그래서 지금 모든 작업을 하라는 거 아냐?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주인공이 뚜렷하게 있으니 네 주인공의 심부름꾼으로 알고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만 놓고 가는 게 푹 자는 거야, 쉬는 거고.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하고 따지고 생각하는 거는 이유가 들어가서 벌써 놓는 게 되지 못해. 이걸 생각해서 한생각에 '아, 이게 옳지' 한다면 그냥 거기다 맡겨 놔. 또 '이게 그르지' 한다면 그른 것도 거기 맡겨 놔. 왜냐하면 그르게 된 건 옳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옳게 되는 것도 거기 놔라 하는 것은 옳게 된 것이 좋다고 했으면 언짢게 된 게 거기 붙으니까 그것도 놓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죽더라도, 혹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마음 공부를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죽을 요량을 해야 사람으로 태어난 본의가 있다는 거야. 생각으로만 집착하지 않는다, 생각으로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코 마음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

자문자답 공부 어떻게 합니까

문 스님, 저는 청년회에서 이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법우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인공과 자문자답하며 공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공 이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 하는 느낌이랄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질문하는 것도 저이고 대답하는 것도 저일 뿐 그 대답이 진짜 주인공이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주인공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자문자답한다는 수행이 올바른 것인지요?

답 처음에 애가 길을마 떼어놓을 때에 잘 걸을걸 알고 길을마를 떼어놓나? 넘어질 줄 알고 길을마를 떼어놓나? 넘어지든지 안 넘어지든지, 잘 되든지 못되든지 그냥 걷는 거야. 그냥 걷다 보면 아주 잘 걸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문자답이라는 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야. 말하자면 누구나가 생명의 근본 불성이 자기한테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나로 생각하고 바깥의 문제들을 가만히 지켜 보라 이거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을지 어떤 겁 해야 옳을지 답이 나온다 이거야. 답이 나오는 것도 사량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믿지를 말아. 모든 거는 그놈이 하는 건데,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느냐 이 소리야.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된다, 귀가 열려야 된다 하는 소리는, 모든 바깥 경계를 잘 봐서, 내가 개천을 건너뛰어도 개천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봐 있나를 잘 봐서 발걸음을 떼어놔라 이거야. 그래서 떼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냥 떼는 것이 법이야.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자문자답을 하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모든 거는 거기다 그냥 놓아. 이거는 포괄적인 마음이라 이거야. 한마음 주인공에다가 아주 진심으로 맡겨 놓으면서 생각을 딱 해 보면, 바깥 경계와 안 경계를 다 잘 봐서 생각을 할 때 그게 바로 법이야. 그렇게 가다 보면,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가다 보면 걸음을 못 걷다가 걸음이 점점 점점 빨라져. 그게 실험이야. 그리고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접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구, 정말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고, 아예 '너는 너 나는 나야' 하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가 하나인데도 둘로 보고 이거는 아주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는 거지,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무조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수 억 광년 전에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나를 이끌고 진화시킨 그 주인을 어째서 믿지 않고 그러느냐 이거야. 이 도리를 깨우치지 못 했어도 진짜로 믿고 거기에 놓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진짜로 믿질 못하고, 한마음 주인공에다 놓고 하라니깐 '그냥 그렇게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하고 아주 굳건히 자기를 믿는데 한 달이라도 굳건히 했으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 그런데 이것이 두텁고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쌓아왔던 마음이 두터우면 생각하는 것이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가고 자꾸 마음이 두꺼워져. 정말 그럴까 하고 믿지 못하는 거지.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어? 허공을 믿을 거야, 형상을 믿을 거야, 이름을 믿을 거야. 그래야 자기 영혼도,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을 구제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한마음, 수억 개의 의식이 보살로 화하게 되는 거야. 자기 영혼을 건진다면 바로 그냥 화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서도 리드해 나가면서, 커버해 나가면서 들이고 내는데, 레이다 망이 모든 걸,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체크해서 점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두뇌에서 누진이 말이야.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두뇌에서 발표하고 또 무전통신기로서 사대를 통신을 하고, 바깥으로도 통신하고 안으로도 통신하고, 체크하고 결정짓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주 삼라대천세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다 이거야, 태양계하고도 직결이 돼있고, 일체 모두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 이거야. 세상살이 사는 거에 가설이 돼있고, 그러니 믿고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가는 계기가 되어서 차근차근히 해나가기를 바래.



그림 · 최주현

> "모든 것 처리할 수 있는 한마음이니
> 너만이 의욕이 생기고 병이 낫고
> 가정 화목하고 밝게 이끌 수 있다고
> 진실히 믿을 때 살아가기 편합니다"

나쁜 짓 봐도 놓아야 하는지

문 항상 따뜻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놓는 공부가 이 공부라면,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지어놓은 나라의 법과 질서, 그리고 규칙은 불법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다, 좋다라는 생각을 짓는 것도 착이라면 나쁜 짓을 보아도 '주인공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지은 대로 입력 될 것을' 하며 놓아야만 하는 건가요? 그것이 틀렸다면 왜 그렇게 나쁜가 하고 지적하고 따져야 하나요? 그도 저도 아니라면, '나와 둘 아닌 지난날의 내 모습이잖아. 몰랐을 때의 내 모습이잖아.' 하고 또 관해야 할까요?

답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잘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내 탓으로 돌려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려라,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아내를 원망하지 말고, 자식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라. 그건 왜냐?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입니다. 내 탓으로 돌리라니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내 탓으로 돌리지'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무슨 상대가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깊은 마음 속에다, 근본에다가 놔서 입력이 되고 입력이 된 게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법이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입이 무거워지고, 말이 적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안으로 매사를 굴려서 거기다 맡기기 때문에 입력이 돼 가지고 다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법이 되니까 그대로 걸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계를 거쳐서 물질계로 나오니까 그것은 걸림이 없지만, 물질계에서 물질계로 그냥 나간다면 항상 걸리고 사고가 생기고 이탈하게 되고 망종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대치하시렵니까? 바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잘하고 안으로 굴려서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법신이 되신다면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모든 걸 입력해서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야 화목해지고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거기다 넣지 않고 그냥 입으로 '어유! 차라리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이러죠? '어유! 저놈의 자식, 저거 차라리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말이 선선하게 나가죠? 그러나 이거는 과거로부터 쭉 인연을 맺어서 온 한 가족인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안에다가 입력을 해서 바깥으로, 물질세계로 나와서 둥글게 응용하도록 한다면 모두가 법이 돼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이 험악하더라도 험악치 않게 되고, 어떠한 걸림이 오더라도 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계 다가오면 힘들고 답답해

문 먼저 이렇게 라도 스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그때 스님의 법문과 함께 수많은 계기를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바로 잡고 수행해 나가다가도, 경계가 오면 너무나 힘이 들고 제 자신을 생각하면 답답하였습니다.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쁘고 환희로웠으며, 우리 인생이 한철이라는 스님의 말씀에, 한철인데 뭐가 무서울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잡고 나갑니다만 조금만 지나다 보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하며 마음을 연구하다 답이 나오면 너무나 즐겁고, 그러다가 또 별반 달라지지 않는 저를 보면 또 답답해집니다. 이런 저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며 푹 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죽더라도 꼭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놓아지지 않는 습이나 올라오는 모든 마음들을 그 자리에 되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지 스님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답 답답하고 허전한 게 도대체 뭡니까? 믿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허전하지, 정말로 믿어 보세요, 무엇이 답답하고 허전한가! 자기가 있는데, 참 자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예전에도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놈이 있다면 절도 지을 거고 제 놈이 없다면 못 지을 거니까, 하고 난 편하게 살았어요. 왜냐?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제 놈이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 제 놈이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요! 어떠한 거라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법우님은 믿지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영원한 친구를 왜 못 믿어요? 자기인데! 자기 몸뚱이는 집이에요. 자기 영원한 친구의 집이라니까요. 그 집하고 둘이 아니에요. 음식을 해서 끓이려면 오븐에 넣어야 끓여 내지요? 그렇듯이 그 오븐이 집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해내는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주인공에 몽땅 맡겨놓고 푹 쉬어라

☞ 19면에서 계속

집!

그러니까 대화를 하되 그냥 대화가 아니라 관하는 거죠. '야, 네가 있다면, 진짜 있다면 지금 이렇게 급한데 너밖에 할 수 없잖아'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지켜보는 것. 그렇다고 해서 꼭 방안에 들어앉아 문 걸어 잠그고 벽 쳐다보고 지켜보라는 게 아니에요. 방안이나 방 바깥이나, 들이나 산이나 똑같은 자리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공부한다고 산 속을 찾아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아니, 산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고 들로 나오면 마음이 달라지나요? 마음은 자기 몸뚱이 있는 자리에 그냥 있는 건데 말입니다, 안 그럴까요? 요즘은 단계 단계로 이름만 거창하게 갖다 붙이고 이러기도 하나 보던데, 그냥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면, 전지전능한 것은 이름을 안 붙여도 전지전능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갖추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이놈의 게 왜 안 되나?' 하고 모질게 용을 쓰고,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데 왜 안 되나?' 이러면 이것은, 항상 얘기했지만, 지네가 가다가 "아이고, 다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나?" 하니까, 딱 서서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겠다 하는 것도 그것이 착이 되는 거니까 빨리 깨우쳐야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대로 자기를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할까 저렇게 해야할까 하는 그 생각마저 놓고 지켜본다면, 그저 그렇게만 쥐고 들어간다면 스스로 성품이 발현 될 겁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밝고 긍정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그게 잘 안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몇몇 친한 친구들 외에는 저와 함께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학생활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저보다 나이가 많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굳어 버리고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나요?

답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게 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는 게 그렇고 진리가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닥쳐올 때마다 자기 주인공에게 맡기면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몸뚱이는 싹과 같고 자기 주인공은 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싹은 뿌리를 믿고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맡겨야 새롭게 입력이 되어서 바뀌고 밝아질 게 아닙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처리할 수 있게 구성된 하나의 큰마음이니까, 그것이 중심을 꿰어서 바퀴가 돌아가듯 하는 거니까 '너만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의욕이 생기게 할 수 있고 편안케 할 수 있고 너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너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밝고 긍정적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잘 이끌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고 맡긴다면 차차로 살아나가는 것도 편리해지고 또 가정도 편리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부처님 일체 마음이 비 내리듯 해서 나의 마음이 촉촉하게 되고, 주위의 모든 인연들의 마음도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비의 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서로서로 살기에도 여유가 있고 사람의 마음도 여유가 생기니까 혈색이 좋아지고 사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어떤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라는 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선장한테 믿고 맡기는 공부를 해 나가세요.

인연과 진실한 사랑에 대해…

문 많은 사람들이 부모 인연, 자식 인연,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인연도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어떤 인연은 서로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살면서 상대가 바깥 인연에 마음이 더 끌려서 자기 인연을 잘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집에 있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상대를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같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옳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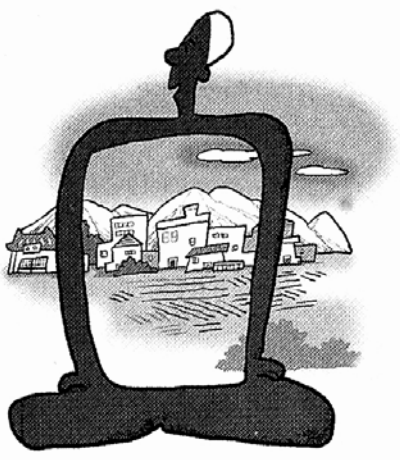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실히 믿는다면 한 순간에도 자기발견

지금 여기서 몰록 놔 해결할 때 업식 녹아

답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 싫다는데, 금은보화를 준다 하더라도 나 싫다는데 할 수 없지 그리고 선 놔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차원에 따라서 인연이 되고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에 따라서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당신의 팔자, 운명의 그 차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차원을 만들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데로 피해서 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차원을 또 만나게 되요. 자기 그림자는 항상 먼저 가 있죠. 그러니까 가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벗어나려면 그냥 헤어지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났으니까 네가 있는 거지 내가 없이 네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모든 게 내 탓이로다. 과거나 지금 현실이나 미래를 또 간다 하더라도 역시 또 그럴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하자.' 하고 거기다가 다 몰록 맡겨 놓고 들어간다면, 바로 과거에 살아오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재 입력이 되면서 앞서의 입력이 새로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얼마 지나지도 않고 생각해 보면 '어,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정말 헛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아주 새싹들을 잘 이끌어 가면서 잘 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헤어진다면 그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딴 자리에서 해결을 하려 그래도 딴 자리에 가서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하고 간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저 공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한 생이 좀 힘겹더라도 공부를 함으로 해서 세세생생을 다 건지게 되고 나와 남이 다 벗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사람으로서 참다운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어렵더라도 어렵다 생각지 마시고 '그저 내가 지워놓은 차원을 벗어나는 지름길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진실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무조건적인 사랑인지요

문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답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도 같이 만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철 나와서 만나는 것인데 이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느냐 구덩이에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악하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내면이나 외부의 모든 것이 더불어 같이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시고, 어떠한 억울함도 거기다 맡겨 놓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또 말로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부드럽게 말하시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아마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이 미묘한 도리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바른 행과 어긋난 행

문 진심으로 감사하게 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어리석은 중생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라 믿고, 큰 문제, 작은 문제 모두다 맡기는 실천 행으로, 부족하지만 자기 완성의 길로 조금씩이나마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기 부족으로, 바른 행인지 잘못된 행인지를 몰라 혼돈할 때가 있기에 여쭙고자 합니다.

중생의 삶에서 '유(有)'의 법을 거스르지 않고 행을 잘할 수 있는 공부에 있어서 바른 행과 어긋난 행의 차이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모습은 내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울이라 하셨지만 내 어긋난 행동이 타인을 배려치 않는, 그래서 사회제도나 규칙에 어긋난 행이 될 때 결국 자기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한 걸음 퇴보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주인공에 관하고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라면 사회통념상 어긋남이 있어도 올바른 공부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가 사는 데 대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어떤 게 시대에 맞춰서 옳은가 이런 것을 판단 잘 해서 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호박 넝쿨이 주욱 늘어져 있는데 애호박이 예쁘게 열렸거든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 주인공이 그것을 따가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그런 관습과 욕심이, 질투가 그냥 두리뭉수리처럼 있는데, 그게 뭉쳐서 앞을 탁 가리고 거기에서 자꾸 습성이 나오는 것을 대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그래서 왜 그걸 따느냐고 하니깐 주인공이 그렇게 따 가지고 가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될 노릇입니까?

이게 바로 내 마음에 관습, 습성, 욕심, 악의, 그러한 것이 그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녹이려면, 나가서 춤을 춰라 하더라도 싱긋이 웃고, 즉 말하자면 '아,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서 거기다 되놓고 싱긋이 웃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호박을 따 가지고 가랜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거란 말입니다. 따가져 가나, 그렇지 않으면 '이럭하면 안되잖어?' 하고서 거기다 도로 놓나, 이거 보느라고 그런 건데 그만 속았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장이 자기를 잘 이끌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진짜로 공부하려면 좋은 것도 거기다 놓고 언짢은 것도 놓고, 잘못 나가게 하는 것도 거기서 자기를 테스트 해보려고 그런 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 확고하게, 속지말고 해야만이 부처님께서 '나는 항복을 다 받았다' 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마구니가 나오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 씀씀이를 넓게 쓰나 좁게 쓰나, 또는 관습으로써 욕심으로써 습관으로써 쓰나 그거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구니가 나오든 신장이 나오든 미녀가 나오든, 어떤 게 나오든 용도에 따라서 그냥 '허허! 이게 다 그 속에서 나온 거로구나' 하는 순간 벌써 그렇게 화해서 나왔던 게 다시 원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의식들을 항복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항복 받았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얻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한번 삼키고 바다를 다시 토해 줄 때 중생들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01학년도 후기
행정대학원 원생모집안내

1. 모 집 과 정 · 석사학위과정 · 최고관리자과정
2. 모 집 학 과 가. 행 정 학 과 : 행정학 전공
나. 복지행정학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공
다. 정 책 학 과 : 정책학 전공
라. 종무행정학과 : 종무행정 전공
3. 모 집 인 원 각 학과 ○○ 명
4. 지 원 자 격 가. 4년제 정규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
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최고관리자과정은 학력 제한 없음
5. 전 형 방 법 서류전형 및 면접
6.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1. 6. 4(월) -14(목) 09:00-21:00 (토요일은 13:00까지. 단, 일요일은 제외)
나. 장 소 : 대학원 교학과
7.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1. 6.16 (토) 09:20까지 입실
나. 장 소 : 고사당일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강의동 5층)
8. 합격자 발표 2001. 6. 20(수)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9. 제 출 서 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탈모 상반신 사진(3×4cm) 4매 부착) 1통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통
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여학생은 초본제외) 각 1통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10. 전 형 료 가. 모집요강 및 원서대 : 3,000원 나. 전형료 : 50,000원
11. 기 타 가. 지원학과는 대학의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람

전화 : 02)760-4271, F A X : 02)760-4273, 인터넷홈페이지 : www.hansung.ac.kr

※특 전
가. 공무원, 고직원, 군/경 및 관련기관의 근무자는 수업료의 일부를 감면 함
나. 재학중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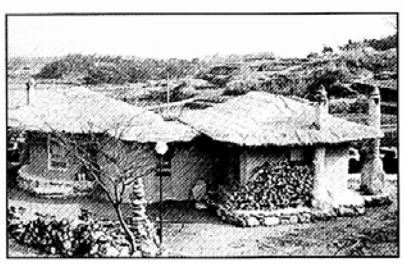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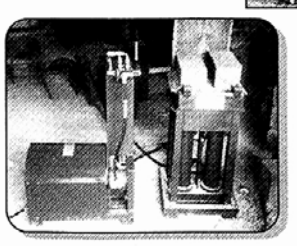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 대 진 합장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의 클락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법왕사 행자(男)모집
◆ 세계 최대불교 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서에서는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신심있는 행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고졸이상의 40세 미만 (단, 고졸이하는 검정고시 교육후 자격 부여됨)
◆ 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 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시까지 법왕사에서 전액 지원함 ♤21세 전후 환영
문 의 : ☎ 053)766-3747, 9088
인터넷 : www.bubwa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 초빙』
■ 대한불교 조계종 미륵사에서는 신심있는 불제자로써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자 격 : 취득년도 1998-2001년 사이【비구, 비구니스님 특별히 환영】
■ 본 미륵사에서는 불교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젊은 한의사 불제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 륵 사 청운 합장
053)651-9363

의정부 운불련
개인 콜 택시
전화 031)876-7070
Fax 031)876-8550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목조, 석재 세척제
3. 부식된 (썩은나무) 목재 복원
02)3474-6232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한방 다이어트로 살과의 전쟁 쉽게 끝낸다
모든 문제성 비만 고민 주저말고 어서 전화주십시요.
① 과립형으로 된 초간편 한방 다이어트로 해결해드립니다
② 여기저기 아프고 체질적으로 살이찌십니까?
③ 오기피와 한방다이어트로 해결해 드립니다
080-700-5700
02)444-4194

조계종 권음사(영남불교대학) - 진정한 대장부의 길 (※미혼, 고졸이상 만 40세까지)
행자모집 (남)
▫ 시설완비한 행자원의 독립운영 및 자율존중
▫ 전통적 수행을 통한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바루공양)
▫ 스님이 되면 모든 공부와 포교의 충분한 뒷바라지
▫ 본 사찰의 전 강의를 들으며 주지이신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의 직접 지도
·(※ 여행자는 본 사찰의 분원인 별도의 수행관에서 공부함 - 또는 위탁교육)
행자원 011)506-2702 T.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www.TVbuddha.co.kr
도심속의 대가람, 5만명의 학생 및 신도 포교와 수행의 새지평을 열고 있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뽁조목(霹棗木)뿌리
◎ 수령 약 600년 탁장용으로 수가공 함
◎ 토굴 불사에 약간의 도움을 주시면 양도코저 함
◎ 진귀한 영험있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054-383-8553
011-813-3679 지장암

녹자 판매
지리산 화개야생녹차(햇차)
※ 공장도가 판매
※ 국산 발효차 판매
※ 한통도 주문 可
055) 883-9321
영목다전(지리산 화개)

공양주보살님,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 60세 미만
02)877-7514

행자, 공양주 모집
· 신심깊은 공양주 모십니다
· 수행 정진 출가 행자 모집(만 40세 미만)
051)413-6266
051)418-1752

사회복지사 모집공고
- 관련학과 졸업자(사회복지지사자격증 소지자)이면서 比丘尼
- 자필이력서(사진첨부,우측상단 연락처 기재),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 요
- 접수기간 : 2001년 6월1일~6월 15일
- 문의 : 당 복지관 총무기획팀
(064)702-0295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공양주 구함
▷ 60세 이하
신심 돈독한 사람
울산 연등사
052)288-4520

서해 바닷가사찰
▷ 종무소 총무보살 구함 (30~45세)
▷ 기도 봉사하며 수행 할 보살 구함 (30~50세)
041)673-18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 이하
011)9611-824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태백선원 선방에서 수행 하시는 선방스님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 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을 모십니다
054)672-2207
054)672-3833

삶이 괴롭습니까?
(참나)를 알고 싶습니까?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고 싶습니까?
명상의 집 SATSANG 으로 초대합니다.

선명 수료한 기도, 공부, 수양하기 좋은 곳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67번지 청강사
055)932-5706

행자비구니스님모집
▷ 위치 : 충청북도
▷ 인원 : 00명
▷ 학력 : 고졸이상 소지자
▷ 연령 : 40세 미만
대한불교 조계종 통불사
043)646-4747
019)442-9682

『고급 흑단 염주를 아주 저렴하게 드립니다』
(직접 가공 함) 덕림 산방
이름 : 박정후
전화 : 061)337-4879
011)610-4879
주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

위치 좋은 곳 포교운 하실 분
• 위치 : 부산 광역시 북구 심만덕
• 3층건물의 3층
• 평수 : 40평 옥상사용가능,
• 구조 : 법당 방 2개 주방,욕실
• 보증금 : 2,000만원 월 30만원 입주즉시 법회 가능 시설 A급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55)852-9202

여 종무원 구함
▷ 나주 불회사
061)337-3440

《주지스님 급구》
학식과 법력 갖춘 분 (40세~60세)
▷ H.P 011)524-6185
▷ 야간 054) 247-1206
▷ 위치 : 경북 포항근교

- 포교당 안내 -
• 위치 : 부산 사상구
• 평수 : 60평 3층 건물 3층
• 가액 : 2천만, 월 35만원
- 암자 자리 안내 -
• 위치 : 경주시 산내
• 평수 : 875평 건물 2동 85평
• 가액 : 1억 9천 오백만원
051)208-9966
011)551-1719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 건물 : 37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6,500만원 (융자있음)
• 시설 : 지하수, 뒤:공원, 교통편리
• 대상 : 비구니스님, 무속인, 사주보시는 분 가능
061)762-263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여중 뒤
• 평수 : 3층 23평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32)654-5859/011)294-0528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읍 소재지)
• 부지 : 830평, 5층탑, 3층탑, 연못
• 건물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씩, 각각 3채 산신각 종각 미륵부처님 지장전
• 가액 : 상담 후 결정
• 특징 : 기차역이 걸어서 5분거리 터미널 걸어서 3분거리 마당까지 차가 들어옴
011)753-0768

사 찰 안 내
• 위 치 : 대구시내 소재
• 대 지 : 40평
• 1층 종무소 (30평) 2층 종무소 (30평) 3층 법 당 (30평) 4층 요 사 (30평)
※ 도심소재 포교건물로 건축 함
• 양도가 : 3억(융자있음)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소재
• 부 지 : 25평
• 요사채 : 35평(2동)
※ 산세가 아주 좋으며, 납골당 최적서울 강남에서 1시간 30분 소요
• 양도가 : 3억 8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홍성 소재
• 부 지 : 4,300평
• 법 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명부전 : 25평
※ 산세 좋으며 기도 수행 정진 도량 임
• 양도가 : 2억 (대출가능)
• 위 치 : 충북 증평 소재
• 부 지 : 4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50평(2동)
※ 교통의 요지이며, 국보급 문화재가 있음
• 양도가 : 3억 2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군포시 당동 코너 요지
• 대지 : 120평 • 건평 :120평
• 특징 : 3면 도로 접함, 정원석, 정원석 유, 4층 건물 1층 다용도공간 (35평) 2~3층 방 3, 주방 거실 욕실구조 4층 법당, 주변인구 밀집 지역
• 기액 : 5억
016)356-1133
031)446-113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전철역에서 5분거리 사찰 뒤 산
• 대지 : 73평,
• 건물 : 가건물 2동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6천
011)877-9009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 부평 • 평수 : 40평
• 특징 : 법당, 삼존불 일체설 완비 에어컨 있음 주방 주지실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5만원 권리금 상담 후 절충
032)512-5088
011)732-8616

사찰 안내
• 가액 : 2억 3천(가격조정가능)
• 임야,대지 : 5천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1동(20평)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061)434-7724
019)660-6954
서산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 당 : 24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300평
• 가 액 : 3억 2천
• 위치 : 천안 광덕
• 법당 : 30평
• 산신각 : 5평
• 요사 : 18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6천
• 위치 : 성남 분당
• 부지 : 920평 · 차량진입가 · 도심 근접하면서 조용한 사찰 도량 임
• 가 액 : 5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3포,5포,금단청필)
• 요사 : 80평(방10칸,주방2칸,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두세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71/018) 689-0455

포교당 안내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 평수 : 40평 4층 건물 4층 방 2 주방1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월 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특징 : 법당시설 완벽함 주변 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02)436-3647
011)266-2378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아름다운 수양지
• 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 총 1170평중 200평은 대지고 나머지는 밭으로 되어있는데 마당으로 사용 함
• 전통한옥으로 "ㄱ"자로 꺾어 지은 집 30평, 토굴이 7~8평
• 태양열 물탱크 등 설치
• 평생 살 집으로 지은 지 3년 되었으며 주변 경관이 뛰어남
• 가액 : 1억 1천만원
02)3216-2573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근교 외진 곳
• 가액 : 6,500만원
• 전세 2300만원
• 대지 : 175평(실사용 300평)
• 건물 : 1층 60평 방 5개 공양간 1개, 다용도실 10평 2층 25평, 법당
0502)789-6577

지리산 시조암 선원
• 위치 : 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 : 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 : 1억 9천
• 특징 : 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토굴 안내
• 경남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내 한려해상 공립공원 내 소재
• 근접지 : 해양 박물관 건립 중 달아공원 관광지 근접
•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자연 경관 수려
• 방생 및 기도터 적합
• 대지 : 73평 법당,요사채 : 20평, 인접임야사용가능
• 가액 : 5천만원
055)645-7487 / 011)9520-694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1,150평
• 법당 10평 요사 2동 주차장
• 가액 : 6천 5백만원
055)854-5205
017)856-3617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 부지 : 50평
● 법당 : 24평 ● 요사 : 24평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 대지 : 105평
● 요사 : 20평
● 법당 : 18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1)9545-7444

임 법 당
• 위치 : 경북 칠곡 팔공산하
• 구조 : 방 3, 욕실, 화장실, 창고 (기름, 연탄 겸용 보일러)
• 세금 : 보증금 無 1년 150만
• 탱화일체, 연, 서적, 생활도구, 불기
• 가액 : 일천만원(승용차무료보시포함)
054)976-2248
(오전 11시이후 전화요)
※ 행자모집 ※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2층 42평, 즉시법회가능
● 전세 : 2,0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429-0222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여주
• 대지 : 500평, 답 : 1,150평,
• 대웅전 : 30평
• 지장전 : 20평, 요사채 :40평
• 가액 : 5억 8천만원
• 특징 : 1)지장기도 영험도량 2) 자연 경관 수려] 3)경내석조불 및 조경등 여법하게 장엄하였음
사찰전문용역 02)736-3578~9
금강기획 011)789-2255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망우동 ● 법당 : 18평 방 3개
● 주방 수세식 화장실 욕실 구비12년간 포교한 곳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각종 집기류 일체 제공(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05-6531
02)2208-60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소재
• 부지 : 5,800평
• 법당 : 40평(정통법당, 목조, 단청)
• 요사 3동 80평(목조, 기와, 단청)
• 가액 : 5억 8천만원
• 특징 : 남골당 및 영탑 분양 할 수있음
• 위치 : 대구 광역시 소재
• 부지 : 200평
• 법당 : 20평(인법당)
• 요사 4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연구소 02)326-1060 053)624-2992 011)817-2836 018)689-0455

불사와 관련된 모든 상담은 저희와 해주십시오. 보시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① 사찰의 양도, 양수 전세에 관한 일
② 법당, 요사채, 산신각등 건축에 관한 일
③ 불상, 석탑, 석등, 조경, 연못조성에 관한 일
④ 사찰의 당보대출, 스님의 신용대출 알선에 관한 일
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연결에 관한 일(회원제)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80개 사찰 돌며 화합 구현

포천사암련 혜승스님



"원효스님의 육화정신에 따라 '화합'을 가장 중요한 운영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승가위의 확립을 위한 승가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977년 창립한 포천군사암연합회 9대 회장인 혜승스님(보문정사 주지).

스님은 "사암련이 두달에 한번씩 여는 정기회의를 관내 80여개 사찰을 순례하며 개최하고 있다"며 "이 때 회원스님들은 방문사찰의 포교방법을 듣고 공감하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사암련'을 표방한 포천사암련은 포천경찰서 경승실도 사암련 스님 10명이 매달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을 정도로 친목이 두텁고 지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승려와 재가불자들의 자질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가교육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외부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듣고 있으며 자체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재가불자를 위해 사암련 차원에서 97년 문을 연 2년제 교양대학은 99년 60명의 법사를 배출해 지역사찰에서 주체적으로 활동케 하고 있다. 포천 사암련은 사찰의 추천을 받은 신입생을 모집하여 오는 10월 2기 법사과정 교양대학을 개강할 예정이다.

청년불교의 활성화가 지역불교를 견인하는 토대가 된다는 인식하에 포천사암련은 청년회와 군불자 포교 및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천군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비롯한 모든 불교행사는 주최자가 청년회이고, 사암련은 뒤에서 재정적 물질적 뒷받침 역할만 하고 있다. 현재 포천군청년회가 군단위 청년회로는 드물게 1백여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돌보이는 활동을 하는 것도 사암련의 뒷받침에 따른 것이다.

법사과정 교양대학 열어

청년 · 군 포교도 적극적



◇포천사암련이 승려자질 향상을 위해 외부인사초청특강을 갖고 있다.

혜승스님은 "내년부터 봉축행사도 포천읍 뿐 아니라 각 읍과 면단위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삼론종 사정원장도 맡고 있는 혜승스님은 1963년 우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서울 태능에서 룸비니포교원을 운영하다 1990년 포천에 보문정사를 창건했으며, 어린이법회, 합창단법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백제불교 도래지 성역화 첫삽

영광군 진내리…마라난타상 · 만불전 등 건립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조감도

전남 영광군(군수 김봉렬)은 7일 법성면 진내리에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 사업 기공식을 갖는다.

지난해 기독교계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미뤄진 바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 사업은 2003년까지 1만4천여평 부지에 151억원이 투입돼 18m 높이의 마라난타스님상 건립과 만다라광장, 108계단, 만불전, 부용류, 스투파양식 탑 전시장, 일주문, 팔각정 등이 들어선다. 또 인도 파키스탄 양식으로 지어질 불교유물전시관에는 마라난타 스님이 모셔온 불두와 간다라시대 불교문화재가 전시되며, 마라난타스님이 타고 왔던 선박도 만들어 바다에 띄울 계획이다. 배주위에는 마라난타스님의 고향에서 채취해온 파키스탄의 식물이 심어진다.

특히 백제불교를 전래한 마라난타 스님상 건립은 불교계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백제불교도래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다정)가 모금운동을 통해 35억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영광군청 관광계 장현호씨는 "영광의 백제불교도래지 명소는 마라난타스님의 고향인 간다라의 불교문화와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며 "국내뿐 아니라 백제불교를 받아들인 일본 불교인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천성산 지킴이 발대

임도개설 · 습지훼손 감시

양산시가 허락없이 경내지에 임도를 개설해 심각한 사찰환경 파괴에 직면해 있는 내원사(주지 혜등)는 10일 양산시의 무분별한 임도개설과 고원습지 훼손을 막고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갖는다.천성산 화엄벌에서 열리게 되는 발대식에는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 산악회원, 일반시민 등 2백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내원사는 5월 30일 양산시에 공문을 보내 "경내지가 포함된 임도를 즉각 원상복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천미희기자

불교계-지자체

호국영령 합동 천도재

강원 · 고양 사암련등 주민 화합 · 방생법회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불교계와 합동으로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천도제를 봉행한다.

각 지역 사암연합회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게 호국영령을 천도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안녕 등 지역사회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지역포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불교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신흥사, 월정사, 태고종 · 천태종 강원종무원, 조계종 춘천승가회로 구성된 강원도 불교종단연합회는 화천군 비목문화제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오전 11시 화천읍 붕어섬에서 '한국전쟁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제 및 방생대법회'를 개최한다.

준비위원장 현각(원주 성불원 주지)스님은 "민 · 관 · 군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전쟁의 원혼을 천도하고 전쟁과 고통이 없는 정토세계를 지역사회에 화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 신흥사주지 무이스님, 청평사주지 청화스님, 석왕사주지 백운스님, 삼운사주지 월도스님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홍은표 화천군수등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홍선, 흥국사주지)도 고양시 후원으로 19일 오전 10시 30분 문예회관에서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스님을 비롯해 지역스님과 임창렬 경기도지사, 황교선 고양시장, 3군단장등이 참가한 가운데 호국영령 천도재 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 은평구사암연합회(회장 성운, 삼천사주지)는 1일 자용(수국사주지) 진관(진관사주지) 혜장(송천사주지) 두진(진관사 총무)등 지역스님과 불자, 노재동 구청장, 은평구의회 이희원 의장,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 공무원, 구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평구청과 공동으로 진관사에서 호국영령 천도재와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은평구사원연합회는 순국선열유족자녀 17명에게 5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합동으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좌 · 우익 및 양민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5월26일 지리산에서 개최했다.

한국전쟁 희생영령 '화해'

지리산 위령제 불교계등 5천여명 참가

생명평화 민족화해 지리산 위령제가 5월 26일 지리산 뱀사골 달궁계곡에서 불교와 원불교 등 7개 종파와 190여개 시민단체 좌 · 우익 양민, 희생자 유족 등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위령제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원혼들이 찾아오는 길을 닦는 길놀이와 이를의 한을 풀어주는 씻김굿으로 시작돼, 유족대표들이 분향과 헌주, 서울대 이애주 교수 진혼무, 김영옥 여수시립국악단장의 진혼가로 영령들을 위로했다.

공동봉행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평화로운 남북통일은 지리산에서 숨져간 넋들이 위로되고 우리 가슴속 대립과 분별이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서로 용서하는 '화해와 상생' '평화와 생명'이라는 21세기 문명의 화두를 제시했다.

공동집행위원장 수경스님(지리산 국민행동 상임대표)은 "앞으로 좌우 대립문제를 공론화시켜 일단 산사람들부터 대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지리산에 화합을 위한 위령탑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동산여중고 종교편향교육

불기소처분에 항고

경북 영주.봉화 실천승가회 회장인 도기스님은 영주지역 일부 중고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24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도기스님은 항고장에서 "동산여자중고가 교육청으로부터 성경교육 시간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으면서 주중 시간표에 '심' '실'이라는 암호로 표기한뒤 실제로는 성경교육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장재량권을 이유로 의견을 묵살하여 직무유기 했다"고 밝혔다. 도기스님은 항고대리인으로 용태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원우 기자

용인요양원 청와대등 방문

연꽃마을(원장 각현스님) 용인노인요양원은 입소 어르신과 지역 내 독거노인 등 60여명을 초청, 7일 청와대, 서대문형무소, 남산타워 등으로 서울 나들이를 다녀온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워저드 김희균

종단소식

조계종

경주 해황사 창건법회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는 17일 오전 10시 경주 감포에서 해황사 창건법회를 봉행한다.

관음사의 첫 번째 분원인 해황사는 대지 5,000평에 건평 300평 규모로 대웅전 육각정 등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도 및 참선수행 도량으로서 청소년수련희, 행자교육 도량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태고종

수계산림 행자등록

제25기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할 행자등록을 30일까지 서울 종무처와 각 시 · 도교구 종무원에서 받는다.

참가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1, 2차에 걸친 소양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6개월 이상의 행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오는 10월 경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설판되는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20일 종회의원 보선

10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20일까지 각 교구별로 치러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10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종단 부장급 이상 간부를 역임하여 종회의원직이 상실된 지역구 의원 8명과 직능직 의원 2명을 새로 뽑기 위한 것이다.

천태종

상월조사 27주기 열반재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 27주기 열반대재가 18일 오전 11시 총본산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다.

진각종

회당종사 탄생 100돌 행사

진각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첫 행사가 탄생성지인 울릉도에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19일 첫날에는 금강원에서 관정수 취구의식 및 기념사업 원만 추진을 서원하는 법회를 갖고 20일 오후 6시부터 도동항에서 남북통일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海印佛教美術院
나누어 지지 않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통불화 전문
서울시 중구 묵정동 18-27 대학 문화원 빌딩
代 02)2265-010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 10분소요 역곡 1호선 하차→남부역쪽 1번 출구 (기업은행 정문)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밀양 - 얼음골 신비의
참 다슬기
당신의 "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밀양얼음골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정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주는
건강보조 식품입니다
밀양얼음골 (시냇물농원)
상담문의 (자료신청)
☎ 055)355-5626

국제전화 00753
이제부터 국제전화 거실 때는
00753 만 누르세요!
한국 → 미국 : 180원/분
미국 → 한국 : 220원/분
안전하고 편리한 후불제 국제전화!
전세계 280여개 지역 서비스중
미국 로밍 개통! -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시고 요금은 저렴하게 한국에서 후불로 내시면 됩니다

미 국	180원	유 럽	380원
캐 나 다	380원	러 시 아	690-770원
일 본	290원	호 주	420원
중 국	760원	뉴질랜드	420원

■ 가입비, 연회비, 기본료가 없습니다. 할인시간대 통화시 30% 할인
■ 이용문의 : 도시폰 고객센타
TEL : 00753 또는 (02) 511-6333
(주) 도화텔레콤 Dohwa Telecom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8 영빌딩
http://www.dosiphone.net//
E-mail : helpdesk@dositel.com

나무심기·야생동물 방생등 생명사상 고취

방생문화 바뀌고 있다

조계종 · 환경부 20일 행사

환경위 '방생지침서' 배포

그동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일반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물고기 방생이 자연환경과 동물 생태계를 살리는 방생으로 거듭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20일 오전 10시 우이동 도선사에서 야생동물 방생과 나무심기, 꽃씨 나눠주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환경살리기 방생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자연과 환경살리기 방생행사는 뭇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보살행인 방생행사가 물고기 방생에만 의존해온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방생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찰주변과 국립공원의 생태보존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방생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비롯 수도권 사찰의 스님과 신도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물고기 방생만이 방생은 아니다"며 "산에서 열리는 방생행사를 통해 방생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교정하고, 다양한 방생모델을 펼쳐 참된 방생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8월 8일 백중 시기에 맞춰 대대적인 방생이 전국 사찰에서 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친환경적 방생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생모델을 수록한 〈방생지침서〉 2천부를 발간하여 전국사찰과 불교신행단체, 시민단체에 배포키로 했다.

두레생태기행, 맑고 향기롭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불교환경교육원 등 4개 단체가 경험사례를 토대로 합동 집필할 〈방생지침서〉에는 △방생지침 △전국 주요 방생지 소개 △방생 금지어종 및 장려어종 △생태방생의 사례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다.

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전국방생지와 금지어종, 장려어종을 표기한 방생지도를 제작하여, 빠른 시일내 배포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찰 여름수련회 예약 서두르세요

해인사 26일…대부분 7월중 수련프로그램 알차고 다양

'짧은 출가, 큰 깨달음.'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다양한 여름수련대회를 마련해 재가 발심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단기간의 출가경험을 통해 가슴에 보리에 씨앗을 심고, 성불의 열매를 기약하고자 하는 뜻깊은 사찰 여름수련회가 올해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불과 참선, 발우공양, 절하기, 경전강독, 교리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님들의 무소유 정신과 무욕의 삶을 익히는 기회가 될 이번 여름수련회는 어느해 보다 알차게 준비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과 절하기, 선무도 수련, 티베트 수행법 체험 등 이색적인 수련회도 눈길을 모으고 있다.

참회와 하심공부를 강조하는 수련회로는 나주 불회사의 관음대참회수련과 영남불교대 · 관음사의 매일 1,000배, 길상사의 1,080배 수련이 눈에 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회는 보령 세원사의 청소년 환경문화캠프, 문경 정토수련원의 부적응 청소년 수련, 해남 미황사의 한문 및 생활예절 공부 등이 있다. 파계사의 태교명상 수련대회, 경주 골굴사의 선무도 수련회, 보성 대원사의 티베트 불교문화 및 수행법 체험 수련회도 이색적인 프로그램이다.

조계종 포교원도 지난해처럼 사찰수련회 정보센터(02-7300-108)를 개설해 자세한 안내를 해주고 있다. 김재경 기자

주요사찰 여름 수련회

조계사	7/20~8/12(5회)	어린이~일반	(02)732-2183
통도사	7/15~8/11(6회)	어린이~일반	(055)382-7182
해인사	6/26~8/8(7회)	어린이~일반	(055)932-7430
직지사	7/27~8/5(2회)	일반	(054)436-6174
송광사	7/8~8/15(7회)	청소년 · 일반	(061)755-5325
법주사	7/22~8/13(4회)	어린이~일반	(043)543-3615
동화사	7/18~8/19(5회)	어린이~일반	(053)982-0101
화엄사	7/23~8/14(5회)	어린이~일반	(061)782-7600
대둔사	7/9~8/14(6회)	어린이~일반	(061)535-5775
마곡사	7/15~8/15(4회)	어린이 · 일반	(041)841-6221
은해사	8/3~8/11(4회)	어린이~일반	(054)335-3318
용주사	7/15~8/1(4회)	어린이~일반	(031)234-0040
수덕사	7/26~8/12(2회)	일반	(041)337-6565
월정사	7/23~8/5(2회)	일반	(033)332-6661
선운사	8/3~15(2회)	초등학생 · 일반	(063)561-1422
봉선사	7/19~8/15(3회)	어린이~일반	(031)527-5974
파계사	7/13~8/8(3회)	고등학생 · 일반	(053)984-4550
길상사	7/22~8/8(3회)	청소년 · 일반	(02)741-4698
진관사	7/21~23	어린이	(02)359-3910
신흥사	7/23~8/6(3회)	어린이~일반	(031)357-2695
세원사	7/27~7/29	청소년	(041)934-1434
골굴사	수시	청소년 · 일반	(054)744-1689
성주사	7/23~7/28(2회)	어린이	(055)262-0108
불회사	7/14~8/29(7회)	일반	(061)337-3440
송광암	7/19~8/19(5회)	청소년 · 일반	(061)843-8488
미황사	7/22~8/8(2회)	초등학생(4~6학년)	(061)533-3521
청암사	7/21~22	어린이	(054)437-0038
대원사	8/6~23(3회)	어린이 · 일반	(061)853-1755
영남불교대	7/28~8/5(4회)	어린이~일반	(053)474-8228
정토수련원	7/4~8/19(12회)	어린이~일반	(054)571-6031

의로운죽음

초등학생 2명 살리려 물에 뛰어들었으나…



서울 달마사 신도인 청년불자 최태욱(31세, 하이테크시스템)씨가 5월 26일 강원도 영월 동강에 빠진 초등학생 2명을 살리고자 물로 뛰어들었으나 안타깝게 자신은 숨졌다.

평소 방학 때면 절에 가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등 독실한 불자였던 최씨는 동강에서 나무보드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김하영(13세) 김선영(10세) 어린이가 급류에 떠내려가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상황을 보고 주위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이들은 간신히 구명했으나 자신은 물회오리에 휘말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수영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것으로 밝혀진 최씨의 49재는 7월 14일 서울 달마사에서 봉행된다. (02)814-4337. 김원우기자

도와주세요

백혈병 걸린 은아양



젊은 우바이 이은아(24 · 사진) 양이 백혈병과 싸우고 있다.

전북대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이은아 양은 지난달 백혈병에 걸렸다. 누나의 아픈 모습을 보던 동생 상배(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군의 과 친구 전원이 혈소판 헌혈을 해주고 있지만, 치료비 또한 네 식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불자들의 작은 정성이 은아 양의 귀한 생명을 건질 수 있다. (02)734-8050 김재경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인 양산스님이 결식아동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자비실천 새물결운동' 결식아동 기금 전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스님)은 5월 29일 재단 법당에서 '자비실천 새물결운동'의 하나로 지난 4월 실시한 '결식아동 돕기 1배-100원-108배 릴레이 행사'를 통해 조성한 기금 중 일부를 결식아동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모범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재단 상임이사인 양산스님(조계종사회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봉축기간 동안 자비실천 새물결운동을 주제로 장애인 세상나들이, 108배 릴레이 철야정진, 한마음 자원봉사축제 등을 실시했다"면서, "20일 동안 605만원의 성금과 1만여명의 자원봉사 참여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후원금을 받는 10명의 결식아동은 미아4동어린이집, 영등포구민어린이집, 구로연꽃어린이집 등 10곳의 어린이집에서 추천됐으며 1인당 25만원의 성금을 받았다. 모범자원봉사단체에는 사회복지재단 산하 자원봉사단과 연화복지원 법륜회(보현회 포함),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예술봉사단 등 6곳이 선정돼, 각각 50만원씩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재경 기자

'스님 교수 폭언' 파문 확산

석림회 '공식사과' 촉구

동국대 조사위 구성

동국대 석림회는 5월 30일 정각원 좌선실에서 '교내 폭언 폭력 기물 파손'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석림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모 비구니 스님의 멱살을 잡은 채 끌고 갔으며, 또 모 비구니 스님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무릎을 발로 찬 일까지 있다"며 "이번과 같은 스승의 모습을 보고 깊은 실망과 회의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석림회는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한 H스님의 공식적 사과(문서), 학교와 재단의 해결책 제시 등을 촉구하고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2학기부터 수업거부 등의 실력행사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림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H스님의 연구실을 청테이프로 봉쇄했으며, 기자회견 후 성명서를 불교대학장, 총장,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5월 29일 선학과 H교수의 폭행, 폭언에 대해 진상조사를 호법부에 의뢰했다. 김중근 기자

"金장군 사건 현명판단" 대법원에 탄원서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5월 29일 김태복 장군 사건과 관련해 박재윤 대법관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 현명한 판결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동창회장 법해스님(포천 보덕사 주지) 등 모두 64명의 연명서를 첨부한 탄원서에서 총동창회는 "군 부대내 법당신축 기부금을 뇌물수수라 하면서 증인을 회유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군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으며, 국방부 고등군사 법원은 조작된 증거를 꿰맞추고 법리를 오해하면서 선고유예로 판결하여 증거재판주의를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한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법관이 이를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

13일 중국서안 선유사

조계사(주지 지홍)는 〈왕오천축국전〉의 저자 혜초스님을 기리는 '신라국 대덕고승 혜초기념비' 제막식을 13일 오전 11시 중국 서안시 선유사에서 갖는다.

선유사의 대웅보전, 법왕탑과 나란히 세워지는 3m 높이의 혜초기념비는 앞면에 '신라국 대덕고승 혜초기념비' 글씨가 한글과 한자로, 뒷면에는 혜초스님의 생애와 업적이 기록된다. 김재경 기자

불상 해외 유출 일당 9명 적발

문화재 가치 놓고 논란

문화재 보수공사 중 발견한 불상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99년 11월 중순께 경남 함양군 함양읍 '문창후(최치원)선생 신도비(문화재자료 제75호)' 보호책 설치를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발견한 금동불상 3점을 해외로 밀반출하려던 일당 9명을 5월 29일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불상 가운데 "금동아미타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 초기 작품이고, 나머지 두 점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형보존이 잘 돼 있고 한국적 독창성이 뛰어나 보물급 문화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지난해 7월 같은 불상에 대한 밀매사건을 수사하면서 문화재청이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감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상반된 평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문화재청은 "당시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전문가들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감정을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권형진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天蓊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 455-7555



◇해미 개심사로 가는 길.

감성으로 보는 절

<9> 늘 열려있는 마음의 문-일주문

기둥 둘인데 왜 일주문일까
절안에 들어오려는 자
육신아닌 심안 열라는 뜻

나는 한때 내가 공부하는 방의 당호를 삼묵당(三默堂)이라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질 못해 짓지 않았지만, 이 깁지 않은 인생 침묵보다 더 좋고 마음 편한게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저 하늘에 묵묵, 사랑에 묵묵, 그리고 아는 것에 묵묵, 그래서 삼묵으로 내 삶을 이루어 나가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그 당호를 정하지 못한 건, 삼묵을 실천한다는 건 나를 버리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나는 나에 갇혀서 소승의 삶을 걷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소한 지식을 대단한 지식인 것처럼 나 스스로 도취하고 침소봉대하여 떠버리는 나 자신을 들여다 보니, 삼묵당의 당호를 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말' -,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고 했다. 태초의 말씀은 절대 진리를 뜻할 것이다. 서양사람들은 '말'이 사물을 규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이란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지시' 또는 '표현' 행위인지, 말을 많이 해 볼 수록 깨닫는다. 말이란게, 말을 하기 전엔 말을 안하면 답답해서 몸살이 나는데, 막상 말을 하고 나면 더 답답해 지고, 늘 후회하고, 게다가 제 맘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까지 굳어지게 하는게 말이 아닌가? 내 딴에 내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겠다고 마음먹고, 심사숙고해서 한 말이 결국 엉뚱하게 이해되어 난감해지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늘상 느끼고 산다. 말보다 더 확실한 의사전달 행위는 '이심전심' 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나는 서양사람들이 '사랑한다' 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만 흡족해 하는 사고방식을 마뜩하지 않게 생각한다. 말 없어도 같이 있으면 흐뭇한, 우리의 '정(情)' 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얼굴만 봐도 아, 저사람이 목이 타는구나, 그래서 쪽바가지에 나뭇잎 한 조각 띄워 샘물을 떠 주는 그 마음이 정말 더없는 의사소통 행위가 아닐까?

나는 강의 할때마다 이런 자괴감을 느낀다. 내가 아는 척 내 지식자랑을 늘어 놓는 이 말이 결국 알고 보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유치하고, 그러므로 내 치졸한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일인가를 깨닫고 몸이 잦아들 만큼 수치감을 느끼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래서 내 그 지식이 저들의 삶속에 얼마나 용해되어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내가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독화살이 결국 저들의 몸속에 꽂혀 들어가 지식이란 파편으로 마음속까지 병들게 하는 독화살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요즘엔 사실 자신있게 강의를 하지도 못하고 팔짝 때는 때가 많다.

절 이야기를 해 보자. 절은 '일주문' 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내가 처음 절에 갔을 땐 일주문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일주' 라는 것은 기둥이 하나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기둥이 둘인 것이다. 알고보니 기둥을 일렬로 세웠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래도 나는 못내 미심적었다. 일렬로 세워도 기둥은 둘이 분명한데, 그렇다. 일렬로 세워서 일주문이라고 한 설명이 결국 잘못이었다. 절은 봄립문자인 걸, 아는게 병이라 할까, 그 '말' 에 내가 걸려 넘어질 뻔 한 것이다. 기둥이 둘인데, 왜 한 기둥이라 했을까? 간단하다. 육신의 눈으로 아는 둘이 다 아닌 것, 마음의 눈으로 볼때 하나인 것을, 절은 절에 들어올때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부처님께 가까이 갈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둥이 둘인데, 왜 일주라고 하는가 하는 화두를 잡고 절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부산에 있는 범어사의 일주문은 삼문(三門)으로 되어있는데, 우람하고 육중한 지붕이 네 개의 돌기둥위에 얹혀서 250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것을 보고 서양학자들은 볼가사의한 것이라 감탄 한단다. 그럴 수 밖에. 물리적인 계산법 밖에 모르는,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그들에겐 이 마음의 세계에서 이룩되는 조화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육신의 세계는 허물어져도, 마음의 세계는 허물어지지 않는 것을 범어사의 일주문이 증명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번듯하게 선 일주문만 절 문 일까? 아니다. 그래선 마음의 문은 덜 열린 것이다. 문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이 마음의 문이다. 문이란 불법의 세계에선 애당초 없다. 그래서 무문관이다. 문은 경계를 뜻한다고 한다. 그래서 승속이 둘이 아니라고 하여 불이(不二)라고 한다. 그리고는 불이문이라고 세운다. 승속이 둘이 아니라면서 둘로 갈라놓는 문을 세운다? 뭔가 모순이 아닌가? 문(門)이란 한자는 원래 홍살문을 뜻한다. 그래서 여닫는 문짝도 없고, 빗장은 더더욱 없다. 문은 사람을 갈라 놓는게 아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화신(化身)하고, 보신(報身)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은 중생을 승속으로 갈라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잡귀를 때어놓고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절문은 그래서 붉은 쪼깔을 칠하고, 벽사(辟邪)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문은 번듯하게 세워놓은 문만 문으로 보는 건, 우리의 딱한 몸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는 절에 들어가는 길목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돌을 보고, 고해의 바다에 떠 있는 '나' 를 반기시는 부처님의 손짓과 그것이 봄문(佛門)인 것을 마음의 문으로 깨닫는다. 일주문은 육신에 갇힌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한 문이다. 그래서 일주문은 늘 열려 있다. 세심동 개심사(洗心洞 開心寺). 마음의 문을 열어야, 절에 들어 올 수 있느니라. 문이 말한다.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도피안사 한글대장경 모신다

1불자 1권 불사…내달 1일 회향법회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가 7월 1일 도솔산 개산 기념일까지 '1불자 1권의 한글대장경 모시기' 불사를 전개한다. 개인 단위로 동참할 수 있는 이 불사는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완성한 한글대장경을 사찰에 봉안함으로 법보 도량을 가꾸는 계기를 삼기 위해 전개된다. 불사 동참금은 한글대장경 1권당 3만원이며 동참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대장경 일련 번호에 따라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대장경을 사찰에 모시게 된다.

도피안사는 한글대장경 봉안불사 회향법회를 7월 1일 도솔산 개산 기념일에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부석사 주지 근일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신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한글대장경 정대불사로 봉행 할 계획이다. (031)676-8700

"부처님 가르침 생활속에 심는 기회"

도피안사 주지 송암스님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법보를 모시는 거룩한 의미가 있고 민족문화와 역사적 차원에서 한글대장경이 갖는 중요성을 우리 불자들이 알게 하여 불자들이 민족 문화 발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글대장경 봉안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은 어떤 불사보다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사찰 그 자체가 법보의 공간이지만 형상으로 법보를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은 쉽게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한글대장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자들이 쉽게 접하게 되어 법보의 가치가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이 송암 스님의 설명.

"법보란 부처님과 여러 조사들의 가르침을 두루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보는 대개 상징성을 갖는 의미로 파악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보는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나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손에 교과서가 있어야 하듯이 불자들의 손에는 경전이 있어야 합니다. 경전이 가르치는 내용을 바르게 배워서 알면 누구나 그 바른 진리를 실천 할 것이고 실천은 곧 정토를 건설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는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한글대장경이 절실히 필요했고 이제 동국역경원이 그 역할을 해 낸 만큼 사찰마다 한글대장경을 모시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송암 스님은 또 한글대장경은 우리시대에 만들어진 대장경이란 점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즉 한글대장경은 우리 글로 만들어진 우리시대의 문화유산이란 것이다. 한글대장경은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내용 전체와 한국찬술 역대 고승들의 논저, 팔리 대장경의 내용 일부를 추가 해 한글로 제작한 만큼 우리시대에 새롭게 형성된 문화유산이란 것.

"한글대장경을 사찰에 모시는 것은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불교아말로 민족문화의 정수를 전승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음을 불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이 불사에 동참하여 지혜의 삶을 서원하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길 발원합니다."

임연태 뉴미디어 부장 yim@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6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수의(壽衣)중에서도 윤년수의(閏年壽衣)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祈願)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선착순 100분에게 맞춤수의와 삼베 침구세트를 증정하여 드립니다. (삼베 特品이상)

품 명	구 성	재 질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 별 혜 택
삼베 二品	남 2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一品	남 2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장섬유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特品	남 20종, 여18종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 수의로 삼베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안동포 七세를 기준으로 제조 염색된 순수 삼베 100% 제품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수직 特品	남 20종, 여18종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를 베틀로 제작한 고급 수직제품으로 안동포 七세를 기준으로 제조 염색된 순수 삼베 제품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안동포 七세	남 20종, 여18종	순수 삼베 자연사 100%를 재래식으로 제조하여 자연염료인 치자 염색로 염색된 최상의 상품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맞베 주문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윤달(윤사월 5.23 ~ 6.20)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약주문을 받습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매, 학수, 버선, 모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행전, 턱받이,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매, 베개, 원삼띠, 면모, 학수, 버선, 오낭, 턱받이, 면포 (총 18종)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